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2009년 3·4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2009년 3·4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3 March 2009

1주차
03.02-03.08

1. 대내정세 — 2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6
가. 북·미 관계 나. 북·중 관계
다. 북·러 관계 라. 북·일 관계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23

2주차
03.09-03.15

1. 대내정세 — 32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40
가. 북·미 관계 나. 북·중 관계
다. 북·러 관계 라. 북·일 관계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45

3주차
03.16-03.22

1. 대내정세 — 48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58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북·일 관계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64

4주차
03.23-03.29

1. 대내정세 — 68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82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북·일 관계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88

5주차
03.30-04.05

1. 대내정세 — 92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04
가. 유엔 안보리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북·일 관계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13

인쇄 : 2009년 5월 발행 : 2009년 5월

발행처 : 통일연구원 발행인 :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 북한연구실 편집간사 : 권혜진 연구원

등록 : 제2-02361호(97.4.23) 주소 :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화 :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 <http://www.kinu.or.kr> 디자인·인쇄 : 두일디자인 2285-0936

(비매품)

4 April 2009

1주차
04.06-04.12

1. 대내정세 — 124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39
가. 유엔 안보리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북·일 관계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49

2주차
04.13-04.19

1. 대내정세 — 154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63
가. 6자회담 및 유엔 안보리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북·일 관계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73

3주차
04.20-04.26

1. 대내정세 — 176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86
가. 유엔 안보리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북·일 관계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93

4주차
04.27-05.05

1. 대내정세 — 198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군사 관련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211
가. 6자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219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3.02-03.08

3월
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중 관계
- 다. 북·러 관계
- 라. 북·일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별첨 1: “北, 핵보유국으로서 북미대화 원해”
(2/9, 연합뉴스)
- 별첨 2: North Korean Latitude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량강도 삼지연지구 시찰(3/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량강도 삼지연지구 혁명전적지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청봉숙영지’에 새로 건립한 고(故) 김일성 주석 동상과 여러 곳을 둘러보는 동시에 삼지연에 새로 건설한 답사숙영소와 문화후생시설들도 살펴본 후 “혁명전적지 건설과 관련한 과업”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보도
- 김 위원장은 삼지연지구는 항일무장투쟁 시기 김일성 주석의 “혁명활동 사적이 집중돼 있는 혁명의 성지이며 혁명전통 교양의 중요한 거점”이라며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 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하여 주체혁명 위업을 완성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의 시찰에는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 비서, 김정호 노동당 량강도위원회 책임비서, 당 중앙위 제1부부장들인 리제강 리재일, 북한군 현철해, 리명수 대장 등이 수행

나. 정치 관련

● 北,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 진행(3/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각지 선거구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후 2시 현재 93.1%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
- 통신은 중앙선거위원회의 보도를 인용, “14시 현재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3.1%가 투표에 참가”했으며 “연로하거나 병으로 선거장에 나갈 수 없는 선거자들은 이동투표함에 투표하고 있다”고 보도
- ※ 남한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해당하는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오전 9시에 시작돼 오후 6시까지 계속되며, 대의원 숫자는 지난 2003년 제11기 대의원의 경우 인구 3만 명 당 대의원 1명 원칙에 따라 총 687명을 선출했음.

- 통일신보, 김정일 선거구 우상화 선전(3/7, 통일신보; 3/8, 우리민족끼리)
 - 통일신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보로 등록한 제333선거구가 “만사성공의 길수”인 3으로 이뤄져 있다며 이번 선거가 3년 뒤 “강성대국” 실현을 앞두고 정권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
 - 8일 북한의 온라인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통일신보(3.7)는 제333 선거구에는 “전체 공화국 국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흠모의 열기”가 어려 있고, “‘333’이란 인민군 장병들의 해, 룩, 공 3군종도 연상시킨다”며 “인민군 장병들의 역센 의지가 담겨 있는 듯싶다”고 주장
 - 김 위원장을 대의원 후보자로 가장 먼저 추대하고 결국 후보자로 등록한 제 333선거구는 ‘인민무력부 선거구’임.
 - 신문은 머지않아 북한이 “행운의 수, 만사성공의 3길수와 더불어 정치사상 강국, 군사 강국에 이어 경제 강국을 실현한 강성대국으로 될 것”이라며 “정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는 이번 경사가 3년 후인 2012년에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획기적인 사변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 큰 의미를 부여

- 北, 대북사업단체에 ‘반정부투쟁’ 선동(3/7, 민화협 대변인 담화)
 -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는 7일 이명박 정부가 남북협력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대북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내 단체들에 반정부 투쟁을 벌일 것을 선동
 - 남한 대북 지원단체 등의 북한측 창구인 민화협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통일부가 검토니, 대북정책이니 뭐니 하는 당치 않은 구실 밑에 남조선 민간 단체들의 북남협력 사업을 가로막아 나서고 있다”며 이는 “북남협력 사업을 동족대결 책동에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비난
 - 민화협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 ‘진정’이나 ‘협력’이라는 말 등은 “여론 기만 술책”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오늘 북남 당국관계는 물론 민간 단체들의 협력사업마저 전면차단되고 조선반도에는 정치, 군사적 대결이 극한점을 넘어 어느 순간에 전쟁으로 번져질지 모를 엄혹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남한의 “민간 협력단체들과 각 계층 인민들”에게 투쟁을 선동

- 北, 南 인권제기 용서 불가(3/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제10차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한국 대표가 북

한 인권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개선조치를 촉구한 것에 대해 6일 “서로의 비방과 중상을 그만두기로 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전면 배치되는 행위”라며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반발

- 조선중앙통신은 6일 “주제넘은 인권 훈시” 제목의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 “우리의 인권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하면서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고 있다”고 주장

※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최명남 駐제네바 대표부 참사는 답변권 행사를 통해 “북조선의 인권문제에 관한 남한 수석대표의 부적절한 언급은 대결과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역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반발했었음.

● **北 최고인민회의대의원 후보 등록 완료(3/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3월8일 실시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후보자 추천, 등록이 완료됐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

- 통신은 중앙선거위원회의 ‘보도’를 인용,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333호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기로 했다는 것을 발표한 후 다른 모든 선거구들에서도 대의원 후보자의 “추천·등록 사업이 성과적으로 끝났다”고 보도했으나 후보자 명단은 밝히지 않음.

- 중앙선거위원회는 “제12기 대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자회의들에서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일꾼들과 인민군 군인들,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발표

※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선거일 두달 전 공고, 공고 후 10일 이내 중앙선거위원회 구성, 선거일 15일전 선거인 명부 작성과 공시, 선거일 3일전 후보 등록 완료 등의 절차를 거침.

● **김정일, 생모고향 방문에 “강성대국 예언” 선전(3/4, 조선신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모 김정숙의 고향인 함경북도 회령을 사상 처음으로 방문한 데 대해 북한 주민들은 “강성대국이 눈앞에 박두했음을 알리는 영도자의 예언”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4일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홍석형 함북도당 책임비서, 김기남 노동당 비

서, 당부장들인 장성택 박남기, 그리고 리재일 노동당 제1부부장과 함께 회령시를 방문, 오산덕 언덕의 김정숙 동상을 참관하고 공장, 은행, 학교 등을 두루 시찰했다고 2월 25일 보도

- 조선신보는 '회령'이라는 제목의 '메아리'란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지금까지 "방방곡곡에 현지지도의 발자욱"을 새겨왔지만, 함경북도 두만강 연안에 있는 생모의 "고향땅을 찾은 것은 처음"이라며 "미루고 미루던" 회령 방문의 실현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강성대국 소식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
- 그가 2008년 말 평안남도의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시찰하면서 북한 전역에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지핀 후 회령의 김정숙 동상을 찾은 것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강성대국이 눈앞에 박두했음을 알리는 영도자의 예언으로 여기고 확신에 넘치고 있다"는 것
- 신문은 그가 지난 2001년 8월 첫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두만강을 건너 귀국한 뒤 "두만강을 따라 올라가면 우리 어머니의 고향인 회령이 있다"면서 "어머니가 그리워질 때마다 회령에 가보고 싶었지만, 일감이 너무 많아 시간을 낼 수 없었다"고 말한 사실을 지적, 이번 회령 방문이 "결코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김정일이 1970년대 함경북도 온성군의 왕재산혁명사적지 기념탑과 박물관 건설 현장을 시찰하기 위해 열차를 이용할 때도 회령역에 멈추지 않고 그냥 통과토록 했다고 신문은 설명

● 北, 0.001mm라도 침범하면 천백배 보복(3/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무분별한 반공화국 군사적 도발책동은 파탄을 면치 못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미국과 남한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의 영토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모든 잠재력을 총발동하여 천백배의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미국이 '힘의 우위'를 뽐내고 있지만 그들의 군사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며 "우리는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

● 북한, 한국정부대표 인권발언에 강력 반발(3/3, 연합)

- 북한은 3일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매우 심각한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측에 인권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

-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는 이날 답변권 행사를 통해 “북조선의 인권문제에 관한 남한 수석대표의 부적절한(impertinent) 언급은 대결과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난
- 최 참사는 “이는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의 역사적 북남수뇌회담(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 및 정신에 대한 명백한 위반인 만큼, 정당화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으며 가능한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
- 그는 “남한은 이번 발언을 포함한 반복 캠페인으로 초래될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면서 “남한이 진정으로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모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의 근원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 앞서 우리 정부 수석대표인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매우 심각한(dire) 인권상황에 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북한이 국제 인권법과 당사국으로 있는 인권 조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인권개선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하였음.

● 北, 클린턴엔 침묵,李大통령만 비난(3/3, 노동신문; 민주조선)

- 북한 언론매체들은 3일 이명박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간 면담과 관련, 이 대통령이 한미 간 ‘혈맹관계’와 ‘6자회담을 통한 북 핵 포기’를 강조한 사실만 집중비난하고 클린턴 장관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 대조적인 보도
- 노동신문은 3일 ‘사대매국노들의 추태’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2월19일 방한했던 클린턴 장관을 면담하고 “한미 양국은 말 그대로 혈맹 관계”라며 “6자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득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을 “우리와 끝까지 대결해 보려는 범죄적 계책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비난
- 민주조선도 3일 ‘민족의 존엄에 먹칠하는 너절한 추태’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미 국무장관에게 저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한 것”이라며 “외세와 공모하여 동족과 끝까지 대결”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

- 그러나 두 신문은 클린턴 장관의 후계구도 문제 등 대북 발언에 대해선 침묵

● 北, 미국서 ‘北 핵보유국’ 인정 주장(3/3,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은 3일 미국과 영국의 “출판보도물들”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정계와 학계에서 우리 공화국(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미 행정부가 조선의 핵무장 해제가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을 먼저 제기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고 주장
- 이들 매체는 미국의 AP통신과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가 “미 행정부 내에서 우리나라를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더욱 높아가고 있는데 대해 소개”하면서 “얼마 전 미 국가정보국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조선의 핵무기는 전쟁목적이 아니라 전쟁억제 수단’이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고 주장
- 또 로이터 통신을 인용, 미 국가정보위원회가 최근 보고서에서 “조선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또다시 규정”하고 특히 “조선을 중국, 러시아와 나란히 핵무기 보유국으로 명기했다”고 주장하고 “미 정부는 조선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최근 들어 정보 및 국방 관련 기관들과 인물들이 연이어 조선의 핵무기 보유 자체를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임.

● 김정일이 민족단합의 유일중심(3/2,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일 ‘조국통일의 기본 담보는 민족 대단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민족단합과 남북통일을 위해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연계할 것을 주장하면서 “민족단합의 유일한 중심”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며 그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
- 방송은 “단합된 민족의 힘의 위력은 얼마나 위대한 영도자를 단결의 중심으로 모시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 대해 김 위원장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가 말한 “민족대단결 방침”에 따라 투쟁할 것을 선동

다. 경제 관련

● 두만강개발계획 논의, 남북 등 5개국 참여(3/7,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개발계획(UNDP)은 두만강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제10차 광두만개발(GTI, Great Tumen Initiative)회의를 24, 25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
- 이번 회의에는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한다고 UNDP의 두만강개발사무국 주수 대변인이 RFA와 인터뷰에서 밝힘. 2007년 11월 러시아 회의 이후 1년 4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의 첫날엔 25명으로 구성된 경영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이튿날엔 투자설명회가 예정
- GTI는 두만강 인근 지역인 북한의 청진과 중국의 옌지, 러시아의 나훛카를 연결하는 삼각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1995년 ‘두만강유역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 UNDP와 참여국들은 2007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9차 회의에서 대상지역 범위를 한국의 동해안과 중국의 네이멍구자치구를 포함토록 광역화하고 이름도 현재의 ‘광두만개발’로 변경하였음.
- 이 사업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재화를 북한의 항구를 통해 한국이나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라진과 선봉 등 북한의 동북지역 항구개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北기술자들, 유럽서 재생에너지 기술 연수(3/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에너지기술단이 3월 11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을 순방하며 풍력 에너지를 비롯해 각종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배운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
- 스위스 비정부기구(NGO)로 북한에 풍력 발전기를 시범설치해준 캠퍼스 뛰어 크리스투스외 부르크하르트씨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대표단이 독일의 후춤을 시작으로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대학, 기업체, 풍력 발전소, 전문 기술학교 등을 방문해 유럽의 첨단 재생에너지 기술을 연수할 예정이라고 밝힘. 북한 기술대표단은 연수에서 풍력 에너지 뿐 아니라 태양 에너지, 수력, 바이오가스 등 폭넓은 분야의 재생에너지 기술을 배울 예정

- 캠퍼스 뛰어 크리스투스는 이미 북한의 황해북도 지역에 300W와 2kW 규모의 풍력 발전기를 1대씩 설치했으며, 북한의 요청으로 현재 2kW 규모의 풍력발전기 2대를 더 설치 중임.
- 이 단체는 북한이 바다와 인접한 지역이 많아 풍력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데 적절한 환경을 갖췄다고 보고 오는 2020년까지 500m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풍력 발전기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임.

● **노동신문, 영농준비 완료(3/2, 노동신문)**

-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 이모작을 위한 앞그루(전작) 밀,보리 파종을 이미 시작한 가운데 북한 전역에서 올해 농사 준비가 끝났다고 노동신문이 소개

● **유럽기업들, 원가 낮추려 대북투자 관심 증대(3/4, 자유아시아방송)**

- 유럽 기업들의 북한에 대한 사업과 투자가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제품 원가 절감에 대한 관심 때문에 유럽 기업들의 대북사업이 시작된 2001년 이래 가장 큰 특수를 맞을 전망이라고 네덜란드 GPI컨설턴시의 폴 치아 대표가 주장
- 유럽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북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들 기업의 북한 방문을 조직해온 네덜란드 GPI컨설턴시의 치아 대표는 4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유럽 기업들은 특히 값싼 노동력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의류와 농산물 산업 투자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설명
- 그는 휴대전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영상 애니메이션 등 북한의 정보통신 분야도 유럽 기업들의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작년 10월 방북한 유럽 사업단이 이 분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확대했다”고 언급

● **北, 일반인 휴대전화 허용, 6천500명 돌파(3/3, 동방(東方)위성TV)**

- 북한이 일반인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이후 휴대전화 사용자가 이미 6천500명을 넘어섰다고 중국 상하이의 동방(東方)위성TV는 3일 보도
- 동방위성TV는 2일 평양 시내의 한 휴대전화 전문매장에서는 100여명의 주민들이 줄을 서서 장사진을 이루는 기현상을 연출했다고 보도, 일부 주

민들은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곧바로 전화를 거는
가 하면 각종 기능을 연구하면서 기쁨을 만끽했다고 소개

- 북한 주민들은 “정부가 일반인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다”면서
“우리들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 같다”고 답변했다고 보도

※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은 2008년 12월 북한에서 3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했으며 당시에는 일부 특권계층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음. 그러나 북한에서 휴대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북한은 지난 2002년 11월 유럽 방식의 GSM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으나 2004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통과한 용천역에 폭발사고가 발생한 이후 휴대전화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였음.

라. 군사 관련

● 北, 키 리졸브 기간 남북 군통신 차단(3/9, 연합)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9일 한미간 ‘키 리졸브’와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기간에 “북남사이에 유일하게 존재해 온 마지막 통로인 군통신을 3월 9일부터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음.
-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이들 군사연습 기간에 “개방되어 있는 동,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다 엄격한 군사적 통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성명은 특히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에 대한 요격행위에는 “가장 위력한 군사적 수단”에 의해 즉각 대응타격할 것이라고 밝히고 광명성 2호에 대해 요격할 경우 “투입된 모든 요격수단들 뿐 아니라” 미·일과 남한의 “본거지에 대한 정의의 보복타격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민주조선, 2008 국방백서 비난(3/7,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 민주조선은 7일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2008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신문은 ‘극악한 반공화국 대결기도의 발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는 것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라며 "미국은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고 북침 전쟁연습을 연이어 벌려 놓고 있다"고 주장

● 北, 키리졸브 철회여부로 오바마행정부 판단(3/6,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은 6일 열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간 장성급회담에서 미군이 '키리졸브'와 '독수리' 한·미 합동군사연습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새 미 행정부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대응한 강력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
- 북측 단장인 곽철희 인민군 소장은 3월2일 회담에서도 이들 군사연습 계획에 대해 "조선반도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한 새 미 행정부의 약속이 기만적인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고 통신은 보도
- 북한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이 회담을 "조미(북미)장령급 회담"이라고, 유엔사측을 "미군 측"이라고 각각 부름으로써 남한 배제 입장을 재확인하고, 6년여 만에 유엔사와 장성급회담의 개최를 제안한 이유 중의 하나가 '통미 봉남' 과시에 있음을 시사

● 조선신보,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은 대결노선 분쇄가 목적(3/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6일 '대결구도의 원흉 - 북남합의 백지화한 남측 당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1월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남 "전면대결 태세" 진입을 선언한 것은 남한의 대북 "대결노선을 짓부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은 그러나 민족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리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이는 "6.15, 10.4에 수표(서명)한 최고사령관(김정일)의 뜻을 받들어 움직이는 군대로서 본분"이라고 언급
- 신문은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 이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은 총참모부 성명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말하고, 조평통의 남북 간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들의 무효화 선언은 "북남합의를(북한이) 솔선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남한 정부의 "대북 대결노선에 의해 합의가 사문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을 정식으로 확인했을

따름”이라고 주장

- 신문은 조평통을 “북남관계 문제에서 나라를 공식 대변하는 기관”이라고 설명

● 北·유엔사 장성급회담 종료, 이견 팽팽(3/6, 연합)

-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간 제16차 장성급회담이 6일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은 6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제16차 장성급회담을 개최하였으나 오전 10시46분께 종료
- 유엔사 측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전날 ‘동해상 남측 민항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 그러나 북측은 지난 2일 열린 제15차 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3월 9~20일 열리는 키 리졸브 연합연습으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면서 훈련 중단을 요구, 유엔사측의 철회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 유엔사가 제의하고 북측이 수용해 열린 6일 장성급회담에는 유엔사 측에서 조니 와이더 미국 공군소장, 이창현 공군준장, 매튜 오해런 영국군 준장, 해롤드 카번 뉴질랜드 대령 등이, 북한 측에서는 곽철희 소장(한국의 준장급) 등 4명이 참석

● 조평통, 南항공기 안전 담보 못해(3/5, 조평통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5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실시(9~20일)를 비난하며 “우리는 군사연습 기간 우리측 영공과 그 주변 특히 우리의 동해상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남조선 민용 항공기들의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평통은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과 괴뢰 도당의 무분별한 북침 전쟁연습 책동으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그 어떤 군사적 충돌사태가 터질지 알 수 없게 됐다”고 주장
- ※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 기준으로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한 국적기는 16편(미주 12편·러시아 4편)”이라며 “한 편당 685유로(약 135만원)의 통과료를 북한에 지불했다”고 밝힘.

● 北·유엔사, 판문점서 영관급 접촉(3/5, 연합)

-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은 5일 판문점에서 영관급 회의를 열어 제16차 장성급회담을 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유엔사가 발표
- 유엔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45분간 유엔사와 북측간 영관급회담을 열어 6일 오전 판문점에서 제16차 장성급회담을 하기로 확정했다”며 “오늘 회담에서는 장성급회담 의제와 행정적인 의전절차를 조율했다”고 밝힘. 유엔사는 앞서 3월 2일 제15차 회담에서 북측에 회담을 제안했고 북측이 이 제안을 수용해 회담이 성사되었음.
- 북측은 이날 영관급 회담에서도 3월 9~20일 실시되는 ‘키 리졸브’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으며 6일 열리는 장성급회담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보고서, 北, 2006년에 대포동2호 20기 생산(3/4, 연합)

- 북한이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인공위성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이 지난 2006년까지 모두 20기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생산했다고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주장
- CRS가 최근 업데이트한 ‘북한 탄도미사일의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일부에선 북한이 2005년 처음으로 대포동 2호 미사일 초기생산을 시작했고, 2006년에 20기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이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힘.

● 北, ‘키 리졸브’에 전투동원태세 갖춰(3/3,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3일 ‘북침전쟁 도발을 노린 위험한 불장난’ 제목의 논평에서 3월9일 시작되는 한미합동 ‘키 리졸브’ 및 독수리 군사연습을 “전쟁도발 책동”으로 규정하고 북한군이 이에 대응해 “전투동원태세”를 갖췄다고 언급
- 신문은 “첨단 군사장비와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 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것을 “엄중시”한다며, 이번 군사연습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인 동시에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불장난 소동”이라고 주장

- 北, 유엔특위서 유엔사 해체 주장(3/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에서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북한 대표는 2월 24일에 열린 특별위원회에서 한국전 정전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유엔으로부터 그 어떤 지지도 재정적 지원도 받지 않고 유엔의 통제 밖에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남한에 존재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주한 유엔군사령부는 “미군사령부이고 ‘유엔군’이라는 것도 미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
 - 그는 이어 “미국이 이러한 유엔군사령부의 존속을 고집하는 것은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영구화하고 유엔의 이름을 빌려 미군의 침략적 성격을 가리우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총회 제30차회의 결의대로 조속히 해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 사회·문화 관련

- 北박현숙, IWF 여자역도 10대선수 선정(3/7, 조선중앙통신)
 - 베이징 올림픽 여자역도 63kg급 금메달리스트인 북한 박현숙이 국제역도 연맹(IWF)의 2008년 여자역도 10대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
 - 압록강체육단 소속인 박현숙은 베이징 올림픽 여자역도 63kg급 경기에서 인상 106kg, 용상 135kg을 들어 합계 241kg으로 금메달을 획득
- 노동신문, 여성역할에서도 ‘군사선행’ 강조(3/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세계여성의 날(8일)’을 맞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나가는 오늘 우리 여성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참으로 크다”며 “모든 여성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켜나아가야 한다”고 여성 역할의 제고를 강조
 - 신문은 ‘대고조 시대의 요구에 맞게 여성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여성들은 모든 사업을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밀고나아가야 한다”며 “인민군대를 친혈육으로 여기고 성심성의로 원호해 우리의 군민 대 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가고 자식들을 잘 키워 조국 보위초소에 적극

내세우고 가정을 혁명화하여 선군시대에 혁명적 군인가정들이 더 많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주문

- 또한 “여성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해 자기 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나라살림살이에 보탬을 주는 좋은 일들을 더 많이 찾아 해야 한다”며 “혁명적 군인문화를 적극 따라 배우며 온 사회에 혁명적인 문화정서 생활 기풍을 세우는 데서도 여성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

● 北, 봄철위생에 옷차림, 머리단장도 중요(3/1, 노동신문)

- 북한에서 3~4월 ‘봄철 위생 월간’을 맞아 집과 직장, 도시를 보수·정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 개선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노동신문이 1일 보도
- 신문은 1일 ‘봄철 위생월간’의 시작을 알리며 봄에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15), 건군절(4.25) 등을 맞게 된다고 하며 “모든 지역, 모든 단위들에서는 이번 봄철 위생월간 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자각하고 이 사업을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과 밀접히 결부해 정신이 번쩍 나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주문
- 신문은 또 동, 인민반, 가정들에선 “자기 마을, 자기 가정을 위생 문화적으로 더 잘 꾸려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봄의 계절적 특성에 맞는 옷차림과 머리 단장, 몸 단장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강조

● 北엘리트체육 산실, 국가종합체육단 50돌(3/3, 조선신보)

- 북한 엘리트 체육의 최고봉인 ‘국가종합체육단’이 올해 창립 50돌을 맞았다고 조선신보가 3일 소개
- 국가종합체육단은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훈련지도와 후방사업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9년 2월 27일 세워졌으며 창립 당시엔 축구, 육상, 체조 등 7개 종목의 선수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농구, 배구, 탁구, 소프트볼, 수중발레, 속도빙상(스피드 스케이팅), 자전거, 배드민턴 등 30여개 종목으로 늘어났음. 체육단은 현대적인 숙소와 식당, 훈련장을 갖췄으며, 평양 시내에 동계훈련소, 마라톤훈련소, 해양훈련소, 종합산중훈련소 등도 꾸려져 있음.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체육단이 “나라의 체육기술 발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1971년 11월 현지지도를 비롯해 지금까지 수십여 차례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신문은 보도

- 지난 50년간 체육단에 속한 북한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올림픽을 비롯한 크고 작은 국제대회에 1천470여회 참가해 금메달 1천443개, 은메달 1천310개, 동메달 1천633개 등 총 4천38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신문은 소개

● 北, ‘식수절’에 대대적인 나무심기(3/2, 조선중앙TV; 노동신문)

- 북한에서 2일 남한의 식목일 격인 ‘식수절’을 맞아 각 도, 시, 군에서 식수 활동과 쫓기모임이 개최됨.
- 조선중앙TV는 2일 나무심기를 힘있게 벌이기 위한 농업근로자들의 쫓기모임이 평양 용악산 혁명사적비 앞 교양마당에서 김영일 내각 총리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꾼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원들의 쫓기모임도 고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에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중앙과 지방의 여맹 일꾼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보도
- 노동신문은 식수절을 맞아 ‘부강조국의 내일을 위하여 더 많은 나무를 심자’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 “오늘의 현실은 산림조성 사업에서도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식수도 “강성대국의 대문 열기 위한 총공격전”의 하나라며 전국적으로 나무심기를 촉구
 - ※ 북한의 식수절은 원래 우리의 식목일(4.5)과 비슷한 날인 4월6일이었지만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1946년 3월2일 평양 모란봉에 올라 산림조성 구상을 제시한 것을 기념해 1999년부터 3월2일로 앞당겨졌음.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보즈워스, 北과 대화 희망·노력 중(3/7, 연합)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7일 “당장은 아니지만 북측

과 접촉하고 싶다”면서 “북한과 대화하기를 원하며 지금도 노력중”이라고 밝힘.

- 보즈워스 대표는 방북을 위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북한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북측과 접촉을 계속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하든 미사일이라고 하든 발사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즉답을 피함.
-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의 ‘한국 민항기 위협’ 발표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철회했으면 좋겠다”고 지적
- 또 그는 북핵 6자회담 재개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너무 이르다”고 언급
- 보즈워스 대표는 7일 오후 주한 러시아대사관에서 북핵 6자회담 러시아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과 오찬을 겸해 회동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양측의 평가와 대응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
- 보즈워스 대표는 10일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

● **美국무부, 北, 민항기 위협 용납 불가(3/7, 연합)**

- 미국 국무부 고든 두기드 부대변인은 6일 북한이 동해상을 통과하는 한국 국적 민항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 “국제 민간항공과 전 세계적인 상업 활동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힘.
- 두기드 부대변인은 “북한의 호전적인 레토릭은 보다 더 건설적인 개입정책을 꾀려는 목표에 비추어 부당하고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언급, 또 미국 정부가 미국적 민항기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내가 알고 있는 한 그렇지 않다”고 답변

● **북, 한미동맹 파기해야 핵포기, 핵물질-핵무기 ‘분리 폐기’ 주장(3/6, 동아일보)**

- 북한이 2월 3~7일 민간인 신분으로 방북했던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 정책특별대표 일행에게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미동맹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5일 알려짐.
- 보즈워스 특별대표와 함께 방북했던 모턴 아브라모위츠 전 국무부 차관보

는 미국 싱크탱크 닉슨센터가 발행하는 저널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을 만난 결과를 이같이 전언

- 그는 “김 부상 등 북측 관리들이 핵무기 포기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거, 한미동맹의 파기를 제시했다”고 밝힘.
- 북한은 또 핵 폐기 과정을 기존 3단계가 아닌 4단계로 세분하겠다고 밝힘. 북한이 그동안 6자회담을 통해 사실상 합의된 ‘핵시설 폐쇄→불능화→폐기’라는 3단계 외에 ‘핵무기 제거’라는 별도의 4단계를 제시하며 사실상 핵무기는 포기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임.
- 아브라모위츠 전 차관보는 “북측은 ‘무기들(weapons)을 제거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라며 비핵화를 단계별로 진행하기를 희망했다”며 “북측은 이에 앞선 3단계에선 경수로를 제공받은 뒤에야 플루토늄 시설 등을 폐기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냈다”고 전언
-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핵무기 포기 전제조건을 내세운 것은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뜻”이라며 “6자회담이 열리는 것도 어렵지만 막상 열려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고 언급

● 北, 인권 지적 美에 반박(3/4,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미국 국무부가 2월 하순 발표한 ‘2008년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지독하게” 나쁘다고 평가한 가운데 노동신문은 4일 미국을 “인권유린의 선수권 보유자”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노동신문은 ‘인권유린의 선수권 보유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인권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은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걸고들 때면 그 무슨 인권문제를 약국의 감초처럼 꺼내들곤” 하지만 “미국으로 말하면 인권에 대하여 말할 처지에 있지 못한 나라”라며 관타나모 수용소 사례 등을 들어 역공

● 北 위성발사시 유엔제재 불가피(3/2, 미국무부)

- 미 국무부는 2일 북한의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 준비 움직임과 관련, “어떤 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긴장을 불필요하게 증가

시키게 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가 반드시 뒤따르게 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

- 고든 두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이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한반도에서 이 시기에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아야 한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그들이 결의안을 위반하면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미사일이나 위성을 발사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

나. 북·중 관계

● 中, 北미사일 우려 간접 표명(3/7, 연합뉴스)

- 중국의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은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명
- 양 부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리고 있는 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유관 당사국들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을 하기를 바란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각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언급, 그는 북한의 발표 내용을 ‘통신위성 발사 실험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우리는 이 발표에 주목하고 있으며 각국 반응과 사태 추이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
- 이어 북핵 6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회담의 중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언급, 그는 “오바마 정부가 6자회담을 매우 중시하고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힌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6자회담에 일부 어려움이 있지만 9.19 공동성명에 근거해 각국이 공동 노력해 제2단계 행동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제3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

● 북·중 수력발전이사회 결정서 조인(3/3,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중국은 2월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조(북)·중 수력발전회사이사회’ 제60차 회의를 열어 결정서를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조인식에는 조·중수력발전회사 이사회 북측 이사장인 김만수 전력공업성 부상과 중국 서인표 국가전력망공사 부총경리가 참석, 서명
- 북한과 중국은 국경 하천인 압록강의 수자원을 공동 이용한다는 취지로 지난 55년 4월 조·중수력발전이사회를 설립, 매년 평양과 베이징에서 번갈

아 회의를 열어 수풍, 운봉, 위원, 태평만 등 4개 발전소의 운영문제 전반을 논의

다. 북·러 관계

● 러 외무, 北 로켓발사 움직임 주시(3/2, 연합)

-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2일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유엔 결의안 준수를 촉구,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이 인공 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누구도 (인공위성) 발사를 금지하지 않지만, 인공위성을 운반하는 로켓은 별개 문제”라면서 “우리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로켓인지 알아야 한다”고 언급
- 라브로프 장관은 특히 “우리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모든 관련국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유엔 결의안을 바탕으로 한 의무의 준수를 기대한다”고 강조
- 그는 아울러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한 6자회담을 되도록 빨리 재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회담 참가국들이 “양자회담에 중요한 이슈를 (6자회담의) 의무이행 조건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라. 북·일 관계

● 총련 일꾼 대표단 방북(3/6, 조선중앙통신)

- 홍인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일꾼 대표단이 고 김일성 주석의 생가인 평양 만경대를 방문하고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

● 日, 北 미사일 발사시 제재 강화(3/5, 요미우리 신문)

- 일본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북 경제제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5일 보도, 신문은 외무성 한 간부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발사가 이뤄지면 제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

- 또 북한과 일본이 2008년 8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와 대북제재 해제를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이 간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 영향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양측 간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

● 北, 과거청산이 북일관계 정상화 선결조건(3/5,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과거청산 의지부터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일본이 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과거청산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

- 신문은 “조일관계 개선에서 근본문제는 일본의 과거청산에 기초한 신뢰회복”이라며 “일본의 과거청산은 신뢰회복의 선결조건이고 조일관계 개선의 전제”라고 강조

● 민주조선, 日, 구걸외교 비난(3/4,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4일 ‘정치난쟁이의 역겨운 추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당국자들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일 때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구걸외교”라고 비난

- 신문은 “일본 반동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의 지지와 협력만 있으면 만사가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리석은 망상”이라며 “세상만사는 미국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조일관계의 열쇠를 미국이 쥐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

● 日, 미사일요격 구축함 2대 동해 파견 검토(3/3, 교도통신)

- 일본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미사일요격 군함 2대를 동해로 이동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3일 보도

- 교도통신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경우 일본 정부는 최첨단 이지스 레이다 시스템과 스탠더드 미사일-3(SM-3)를 갖춘 2대의 구축함을 동해로 파견할 것”이라고 방위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보도, 이 간부는 이와 관련해 미군과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미군도 현재 미사일요격 군함을 일본에 배치해 놓고 있음.

● 北, 日 ‘다케시마의 날’ 비난(3/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영토 강탈 야망의 발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최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날’ 행사를 가진 것을 거론, “일본 반동들이 독도 강탈 책동을 노골적으로 벌이는 것은 조선 재침의 구실을 마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비난

마. 기타 외교 관계

● 주북 독일대사 연회(3/6, 조선중앙통신)

- 토마스 쉬퍼 북한 주재 독일 대사가 5일 독일과 북한 간 외교관계 수립 88주에 즈음해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 이 자리에는 궁석웅 외무성 부상, 오룡철 무역성 부상, 북한-독일친선협회 위원장인 홍선옥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초대되었음.

● 北, 아랍 국가들과 잇단 교류(3/2, 조선중앙통신)

- 평양의 천리마문화회관에서 2일 쿠웨이트의 국경절(2.25) 48주년과 독립기념 18주년에 즈음해 쿠웨이트의 역사와 문화, 생활 풍습을 소개하는 사진 및 도서 전시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전시회에는 ‘조선쿠웨이트친선협회’ 위원장인 백용호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과 협회 관계자들이 참가했다고 통신은 보도
- 또 방북중인 후세인 하리디 이집트 외교 차관이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면담했다고 통신은 보도, 2월27일에 방북한 이집트 외교부 대표단은 2일 박의춘 북한 외무상도 면담
-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은 지난해 12월 북한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앞으로 3년간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에 총 4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3 대남정세

● 평양 남북경협 임가공업체 10곳 체불(3/7, 연합)

- 평양에서 의류 등 임가공을 하는 남북경협 업체 약 100곳 중 10곳 이상이 세계적 경제위기와 남북관계 긴장에 따른 자금난으로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거나, 일부는 부도를 내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7일 알려짐.
- 2월28일에서 3월4일까지 방북했던 김정태 중소기업남북경협교류회장은 평양에 있는 섬유부문 임가공 경협업체들을 총괄하는 북한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련) 산하 새별총회사의 리명준 총사장으로 부터 이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밝힘.
- 이들 임가공 업체들은 1월초만 해도 정상가동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급격히 상황이 악화된 것은 경기침체의 심화에 따른 자금부족 때문이라고 김 회장은 분석, 이에 따라 김 회장은 북한의 새별총회사측에 북한이 지난 4년간 20-30%씩 올린 임가공료의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새별총회사측은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고 전언
- 안동대마방직의 회장이기도 한 김 회장은 안동대마방직과 새별총회사 및 북한 경공업성간 합영회사인 평양대마방직도 2008년 10월말 준공한 평양대마방직의 경우도 당초 3월 정상가동할 계획이었으나 “운영자금을 아직 확보하지 못해 5개월째 중단 상태”라고 언급
- 김 회장은 그러나 안동대마방직이 역시 북한 측과 합영으로 “트럭 40대를 투입한 북한내 물류사업은 중국 단둥-신의주-평양 사이 구간에서 3월 16일 개시할 예정”이라며 “평양 임가공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 현재 20일정도 걸리는 물류 기간을 이틀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주장
- 한편 지난 3일 북한의 김성일 민경련 부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태 회장이 남북 경협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남북대결 구도의 종식을 위해 인도적 사안 등에서 북한이 전향적 태도를 취할 것을 주문한 데 대해 김성일 부회장은 “남측이 대결구도를 안 풀면 YS(김영삼 대통령) 때처럼 (남북 간에) 한번도 마주 앉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짐.

● 北, 개성기업에 ‘근로기준’ 통보(3/4, 연합)

- 북한이 임금체불시 제재규정과 근로조건 등을 담은 ‘노동세칙’을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 4일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와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연말, 1개월 임금체불시 벌금 최고 2천 달러, 2개월 체불시 10일간 영업정지, 24시간이상 연속 근무자 기본급 300% 추가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 세칙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입주기업 측에 통보했음.

- 노동세칙은 북한 법령인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시행령 성격으로, 작년까지 남-북간에 세부 조문을 둘러싼 협의가 계속돼 왔음.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공단 관리위 측과 협의해오던 '노동세칙'을 2008년 말 통보해왔다"고 확인하고 "아직 임금체불로 벌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함.
-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처럼 북측이 근로조건을 일방 통보해오며 따라 입주 기업들이 '노사협' 과정에서 북한 당국을 직접 상대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강원도, 북측과 교류협력사업 재개 합의(3/3, 연합)

-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3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도의 실무자들이 지난 달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들과 평양과 금강산에서 만나 송어양식장 건립 지원 등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이에 따라 강원도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난해 추진하지 못했던 송어양식장(3천300㎡)을 북측 강원도 안변군 과평리 남대천변에 오는 6월까지 완공하기로 합의했으며 남측은 설계와 자재 제공, 북측은 인력과 시공을 맡기로 했음.
- 또 안변 남대천변에 2003년 12월과 2008년 5월 각각 준공한 연어부화장과 양어사료장은 북측의 내수면 어업을 위한 기반조성 차원에서 계속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금강산 인근인 삼일포와 금천리 협동농장의 10ha 논과 밭을 공동 경작하고 1천마리 규모의 돼지를 기르는 양돈사업도 추진하기로 하였음. 여기에 더해 2001년 시작된 금강산지역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남북 환경교류의 모범사례로, 성과를 거둘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음.
- 이번 합의를 위해 강원도 이근식 기획관리실장 등 실무자 3명이 2월 18-21일 평양과 금강산을 방문, 민족화해협의회 및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관계

자와 실무협의를 갖고 합의서를 교환

● 南한총련·北조선학생위 공동결의문 발표(3/2, 조선중앙통신)

- 남한의 제17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가 3.1절 90주년을 맞아 '공동결의문'을 내고 이명박 정부와 미국을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 두 학생 단체는 1일자 결의문에서 특히 한미 합동 키 리졸브 군사연습을 “북침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고 “북남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러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현 정세 하에서” 이를 실시하는 것을 비난

■ 별첨: “北, 핵보유국으로서 북미대화 원해”(2/9, 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3~7일 평양을 방문했던 모튼 아브라모위츠 전 국무부 차관보를 비롯한 미국 전문가들에게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고 북·미 양자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방북했던 미국 민간 전문가 6명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이홍구 전 총리를 비롯한 국내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참석자에 따르면 미국 방북단은 북한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수차례 만났으며 김 부상은 방북단에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도 핵무기비확산조약(NPT)체제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이를 인정해달라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NPT 체제하의 합법적인 핵보유국은 아니더라도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국제적으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부상은 또 방북단에 “미국의 오바마 정부와 직접 양자대화를 하고 싶다”면서 6자회담에 대해서는 ‘원하지는 않지만 미국과 대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방북단의 한 일원이 이날 간담회에서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 측에서 이홍구 전 총리와 한승주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윤영관 서울대 교수, 정종욱 전 청와대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북단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한 아브라모위츠 전 차관보는 앞서 외교부 당국자와 만나 ‘핵무기는 6자회담의 대상이 아니며 검증은 비핵화 3단계(핵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듣고 왔다고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당국자는 이에 언급, “핵무기가 6자회담의 대상이 아니고 검증은 비핵화 2단계(불능화) 합의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 별첨2: North Korean Latitude

by Morton Abramowitz
02.26.2009

The North Korean legacy left by the Bush administration to President Obama reminds one of the baseball manager's rant to his centerfielder's incessant errors: "You screwed up that position so badly no one will ever be able to play it again."

Bush's minions came to power determined to destroy the Agreed Framework, the Clinton-era agreement designed to end the North's production of plutonium and ultimately to prevent the use of existing stocks for building weapons. In return, North Korea was to receive two light-water nuclear reactors and heavy fuel oil to relieve immediate energy shortages, as well as a gradual normalization of relations. Pyongyang at one point even agreed to a missile-test moratorium and proposed an end to the production and export of medium- and long-range missiles. Besides, the North had and still has an effective conventional deterrent—the ability to quickly destroy Seoul with massive artillery which makes American bombing of North Korean facilities extremely difficult, whatever our bombast.

Mr. Bush's preference for "regime change" over diplomacy scrapped the Agreed Framework and resulted in North Korea's production of more plutonium,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a weapons test. In its twilight years, the Bush administration resigned itself to negotiations in the six-party forum, buying off parts of North Korea's nuclear-weapons capabilities—reverting to Clinton's strategy, but no longer labeling it as "rewarding bad behavior." The biggest difference now is that we're dealing with a nuclear North Korea.

When our private delegation visited Pyongyang in early February, senior North Korea officials, including their top six-party negotiator, gave us their version of what needs to be done.

They want to resume negotiations and proceed step-by-step toward denuclearization. Getting rid of what they called their "weapons" would be the last step. They want first to conclude phase two of the six-party agreement by

disabling their plutonium-production capabilities, which is currently held-up by the absence of promised fuel oil and a dispute over the possibility of verification. They would then proceed to the agreements' third phase and dismantle their plutonium structure, but only if we gave them light-water reactors.

The North would give up their nukes under variously expressed conditions related to ending American hostility, removing the U.S. nuclear umbrella or ending our alliance with the South?perhaps all these things. In short, denuclearization?or getting back to where we were supposedly moving when the Bush administration took office?is at best a long way off. Whether this is their bottom line remains to be seen.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the unenviable choice of continuing the six-party negotiating process, finding a faster formula for achieving denuclearization or benignly neglecting Pyongyang until it becomes more accommodating. Quick-fix rhetoric is not likely to entice Pyongyang to abandon its weapons. How long is the United States prepared to live with a nuclear North Korea that possibly contributes to proliferation?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remains dim in trying to deal with this opaque, often mendacious, regime. The best solution is indeed regime change, but we do not really know how to do that with anything approximating an acceptable level of risk. A broader policy including long-term engagement?like the one advanced for a decade by South Korean leaders?produced little change in the North. An international version of this approach would face fierce opposition in Washington, continuing already present disagreements with Japan and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benign neglect might be appropriate, but it inevitably leads to Northern provocations, fears of war and a return to talks. We can put down a serious proposal to try to secure its nuclear weapons, but it is hard to see North Korea ready to give them up anytime soon. That means we are most likely, as Secretary Clinton indicated during her Asian trip, to resume the six-party talks and at least seek to prevent the North from accumulating more plutonium.

If we proceed incrementally, as the six powers agreed to in 2007, we need to stiffen safeguards against proliferation and reassure Japan and South Korea

about our deterrent capability, lest domestic political forces compel them to develop nuclear weapons. At a minimum, we will need close strategic consultations on this score not only with Tokyo and Seoul, but also Beijing. The North's vitriol agains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apparent intention to test-fire a long-range missile?which could halt negotiations for an uncertain period?has worsened the diplomatic atmosphere.

In resuming negotiations we need to remember that North Korea is a pitifully weak state with a large but somewhat archaic military apparatus. The country is isolated, has no allies and may well face a turbulent political transition. In devising policy we should not forget?which we usually do?the depressing fact that the North has an enormous humanitarian problem, with much of its people in deep distress and little prospect for improvement.

Fashioning a Korean policy is hard. Aside from the difficulty of keeping our friends and allies singing from the same sheet, Washington has been polarized not only over policy, but also over the facts. The level of discourse can be venomous. Developing a coherent, sustainable strategy toward North Korea would be a great achievement. Actually implementing that strategy would be heroic, hopefully without a bad centerfielder.

※ Morton Abramowitz, a senior fellow at the Century Foundation, was former president of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3.09-03.15

3월
2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중 관계
- 다. 북·러 관계
- 라. 북·일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포사격훈련 참관(3/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 포병사령부 산하 제1811부대를 시찰하고 포사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
- 통신은 김 위원장이 “포병들의 용맹스러운 훈련 모습을 보고 모든 군인들이 적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제때에 격파 분쇄하고 조국을 철벽으로 지킬 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의 포병부대 시찰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명국 현철해 리명수 대장, 김원홍, 한동근 상장 등 북한군 지휘부와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당중앙위 책임간부들이 수행했으며, 리정부 포병사령관이 김 위원장을 영접

● 北, 김정일 후계자 세습 통달(3/15, 아사히 신문)

-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 문제와 관련, 북한 노동당의 조직지도부가 2008년 12월 고위 당간부들에게 후계자를 세습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내부 통달을 내리고 사상교육을 지시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15일 보도, 그러나 통달에는 후계자의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아사히 신문이 베이징(北京)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보도
- 통달은 각 조직의 인사와 검열권을 쥐고 있는 당조직지도부가 작년 12월 1일자로 고위 간부들에게 하달된 것으로 “후계자에 김씨 가문의 사람이 된다는 점에 대해 내부에서 사상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보는 미국 국무부 고위간부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짐.
- 이 소식통은 “누가 후계자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습 여부를 놓고 당과 군 내부에서 대립이 빚어지기 시작함에 따라 통달을 통해 김 위원장의 의도를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
- 다른 소식통은 후계자 문제에 대해 “3명 모두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아직 백지에 가까운 상태”라면서 이번에 후계자를 언급하지 않은 것

은 “차남과 3남이 20대로 젊어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로 10년 후 다시 검토한다”는 판단이라고 신문은 보도

나. 정치 관련

● 北조평통, 南, 대화하려면 사죄부터(3/14, 조평통 서기국)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14일 이명박 정부가 “진짜 남북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반공화국(반북) 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전쟁접경까지 몰아간 범죄행위에 대해 온 민족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
- 조평통 서기국은 이날 ‘보도’를 통해 또 남측 당국이 대화를 하려면 “사죄”와 함께 “불순한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철회하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행위들을 일체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

● 김정일, 만포시민 수천명에 컬러TV 선물(3/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신념은 행복을 안아온다’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중국과 인접해 있는 자강도 만포시의 주민 수천명에게 일시에 컬러TV를 선물로 보냈다고 14일 보도
-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3월 4일 김 위원장이 만포시를 현지지도하면서 “유색 금속, 타이어, 모제품생산과 사회급양봉사, 도시경영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된데 대해 높이 평가”해 “만포시안의 노동계급과 시민들에게 선물을 보냈다”고 보도했으나 선물 종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음.
-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만포시 주민들에게 이같은 선물을 보낸 배경에 대해 만포제련소, 압록강다이야(타이어)공장, 만포방사공장, 식당인 만포각 등 만포시내를 현지지도(중앙통신 3.1일자 보도)하면서 2년전 현지지도 때에 비해 몰라보게 발전한 모습에 크게 감동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 김 위원장은 또 시찰과정에 자강도와 만포시에 대해 ‘올적마다 달라지는 도’, ‘즉시 집행하는 도’, ‘타발이 없는 도’, ‘인민적 시책이 훌륭히 실시되고 있는 도’라고 칭찬하고 “국경지대에 살지만 모두다 우리식”이라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고 신문은 보도

● 北, 한반도 긴장은 반복 대결책동 탓(3/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사대매국노들의 역겨운 망동'이라는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현재 한반도에 "엄중한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북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나 '대화 거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반북) 대결책동의 산물"이라고 비난
- 신문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호주 및 인도네시아 등 순방에서 대북정책의 지지를 구하며 "남북관계의 파탄과 한반도 긴장격화 책임을 북에 떠넘기려 한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최근 인천의 강연회에서 통일은 주변국들의 "양해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발언한 점도 언급하며 "사대매국노들의 용납 못할 궤변"이라고 비난
- 노동신문은 이날 '이른바 북위협설은 북침을 위한 위장간판'이라는 다른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이명박정부가 말하는 '북위협설'은 한국의 "이전 독재자들이 입버릇처럼 외우던 판에 박힌 '남침위협설'의 복사판"이라며 "여론의 이목을 판데로 돌리고 반공화국 대결책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 北안주탄광 붕괴, 광부 29명 7일만에 구조(2/27, 노동신문)

- 북한의 주요 석탄생산지인 평안남도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 산하 태향탄광에서 2월 14일 탄광이 붕괴하는 바람에 광부 29명이 갇혔으나 7일만에 모두 무사히 구출됐다고 노동신문이 보도
- 이 신문은 '지하 막장에서 분출된 노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안주탄광측은 광부 구출을 위한 긴급 협의회를 소집, 가정주부들까지 나서 우회 갱도를 파 들어간 끝에 7일 만에 29명의 광부를 무사히 구출해내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신문은 소개
- 신문은 이들 광부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갱도에 갇힌 채 맞은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2월 16일)에 '충성'을 맹세하고 석탄을 더 캐내 '강성대국' 건설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전제 주민들에게 이들의 "불굴의 정신력"을 본받을 것을 촉구했으며 노동신문은 거의 4면 전면에 걸쳐 이 기사를 게재

- 北, 아무리 떠들어도 위성 발사(3/7, 통일신보: 3/8, 우리민족끼리)
 - 8일 북한의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통일신보는 7일자 ‘인공 지구위성 발사는 자주적인 권리의 행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재’니 ‘요격’이니 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에 놀랄 공화국이 아니다”라고 언급
 - 이 신문은 “지금 남조선의 보수 집권세력은 공화국이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려 하는 것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으로 왜곡”고 있다고 남한 정부의 대응을 비난

- IMO, 北발사 일정·위험좌표 통보(3/13, 연합)
 - 국제해사기구(IMO)는 12일 낮 영국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광명성 2호’를 4월 4~8일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한 뒤 이를 회원국들에게 알림. IMO는 ‘실험용 통신위성 광명성 2호 발사에 관한 정보’라는 제목의 안전항해 회람을 통해 “북한 정부의 요청으로 실험용 통신위성 광명성 2호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들에게 알린다”고 발표
 - IMO 발표 내용에 따르면 발사 예정일은 4월 4~8일, 시간은 매일 오전 2~7시(세계 표준시)로 설명

- 北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두남 사망(3/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며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김두남 대장이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날 4면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의로 된 그의 부고를 게재
 - 사망한 김두남 부부장은 북한의 명목상 국가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친동생임.
 - ※ 그는 포병사령부 부사령관(1970.11)을 거쳐 1980년 10월 제6차 노동당 대회 때 당 중앙위원 겸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에 올랐고 1982년 10월 중앙당 군사부장, 1985년 4월 대장 승진과 함께 김일성 주석의 군사담당 서기(보좌관)로 자리를 옮겨 김 주석 사망(1994.7) 때까지 보좌, 김 주석 사후에는 그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 관장으로 있으면서 때때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사보좌 역할도 수행

- 北외무성, 자주권 수호, 모든 조치 취할 것(3/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11일 한미간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합동군사연습(9~20일) 실시에 따른 “현실적인 위협 속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외무성 대변인은 특히 “미국의 새 행정부가 우리를 건드리는 심히 내정간섭적인 언행들을 연발한 데 이어 이제는 남조선 괴뢰호전 세력과 야합하여 무력으로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실정에서 우리는 누가 무엇이라고 하여도 자기의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의지를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고 강조

- 김격식, 좌천 아닌 야전 군단장으로 임명(3/11, 연합뉴스)
 - 지난 2월 북한군 총참모장(합참의장)에서 갑자기 해임됐던 김격식(69) 대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을 관할하는 인민군 4군단장에 임명된 것으로 11일 확인, 정보 당국자는 “우리 기준에서 보면 합참의장이 야전 군단장으로 내려간 것은 강등이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특명을 받고 NLL 긴장 고조를 위해 파견된 것이라면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

- 北대의원선거, “경축 분위기” 소개(3/8;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은 8일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대의원 선거일을 맞아 언론 매체를 통해 속속 투표율을 전하거나 선거구별 ‘경축 분위기’를 자세히 소개
 - 노동신문은 사설을 통해 주민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했으며 조선중앙TV는 선거가 시작된 아침 9시부터 특집방송을,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등 대내외용 라디오방송도 각 지역의 투표장을 찾아 현지 분위기와 주민들의 인터뷰 등을 녹음 방송으로 보도

- 北외무성, 수단 대통령 체포영장은 주권 침해(3/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8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에게 전쟁범죄 혐의 등을 적용,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수단 인민의 지지를 받아 합법적으로 선거(선출)된 국가수반”을 체포하겠다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전대미문의 난폭한 침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 인공위성 요격하면 우리도 반격(3/9, 연합)

- 북한은 9일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의 인공위성 요격에 나설 경우 북한도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위협, 익명을 요구한 주중 북한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 인공위성 요격에 나서면 우리도 발사지점을 탐지해 반격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

● 조선신보, 키 리졸브, 평양점령 목적(3/9,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9일 시작된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 연습에 대해 “평양점령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실전적인 훈련”이라고 주장
- 신문은 ‘전쟁이나, 평화냐’라는 제목의 글에서 “키 리졸브로 말하면 평양을 압박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전시증원연습(RSOI)이 대북 선제공격이라는 비난이 일어 그 무마책으로 작년부터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엄중한 것은 이것이 ‘조선군의 격멸’, ‘북 정권의 제거’, ‘조선반도 통일여건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조선 침략전쟁 계획인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

다. 경제 관련

● 北, 연말연초 對中 비료수입 40배 급증(3/13, 연합)

- 북한이 한국의 대북 비료 지원이 계속 중단될 경우에 대비, 지난 연말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으로부터 화학비료 수입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40배 정도나 늘렸다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 ‘2009년 북한의 식량수급 전망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중국의 해관총서 통계를 인용해 북한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가 2만5천608t에 달한다고 지적(1년 전 같은 기간은 635t에 불과)

● 北, 유럽기업들에 零세율로 투자유치(3/11, 자유아시아방송)

- 최근 네덜란드에서 유럽 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린 대북 사업 설명회에서 북한 관리들이 관세 등 각종 세금을 0% 수준으로 낮춰주겠다고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섰다
-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북한 관리들은 또 외벽 유리 공사를 하고 있는 105층짜리 류경호텔 사진을

보여주면서 평양 한복판에 이러한 고층 쇼핑센터나 호텔을 세우고 싶다면 이러한 관광시설에 대한 유럽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

● WFP, 지원식량없어 北사무소 폐쇄 중(3/10, 미국의소리방송)

- 세계식량계획(WFP)이 미국 정부로부터 대북 지원용 식량을 배정받지 못함에 따라 북한내 식량 분배 감시요원의 수를 줄이고 지역 사무소를 폐쇄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 WFP는 9일 성명에서 “지난 몇 개월간 외부 지원이 줄어들어 현재 계획된 지원사업의 15%만 수행 중”이라며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사업을 축소해야만 한다”고 설명

● 北, 양식어업 기술강습 및 전시회(3/10, 연합)

- 북한의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가 3월 17,18일 ‘전국 해양과학 부문 기술강습 및 전시회’를 연다고 노동신문은 보도, 노동신문에 따르면 이번 기술강습 및 전시회는 바닷가 양식과 어장 탐색의 정보화, 현대화를 위한 기술과 경험을 보급하기 위해 열린다고 함.

라. 군사 관련

● 北, 동해안 해안포 진지 노출(3/13, 연합)

- 북한이 동해안 해안포의 진지를 노출하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 경비정 1척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짐. 합참의 한 관계자는 13일 “북한이 서해안과 마찬가지로 동해안 해안포 진지의 위장막을 걷어내고 진지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해안포 실사격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
 - 북한은 동·서해안에 사거리 20km에 달하는 76mm, 100mm 해안포를 다수 배치해 놓고 있으며 최근에는 포신의 길이를 늘여 사거리가 30~40km로 확장된 해안포도 전력화한 것으로 알려짐.

● 北, 4월 4~8일 발사 IMO에 통보(3/12, 연합)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북한이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 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들에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으나 발사 시기 등 구체적인 통보 내용은 밝히지 않음.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문화유적 관리에 전 주민 동원시스템(3/15, 조선신보)

- 북한은 오랜 문화유적들을 보호·관리하는데서 전담 기관 뿐 아니라 전 주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대중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췄다고 조선신보가 15일 보도
- 조선신보는 북한당국이 해마다 정하는 봄·가을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 문화유적들의 복원·보존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며 “문화유적들을 중심으로 한 주변일대들에 대한 관리를 사회적으로 분담하는데 여기에는 나이 어린 학생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주민이 동원 된다”고 소개
- 북한은 또 매년 4월과 11월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민족문화 유산을 잘 보존해서 근로자들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교양하라”고 지시한 것을 계기로 ‘문화유적 애호월간’으로 지정하고 있음.

● 北평양 궤도전차, 6월부터 운행 정상화(3/14, 조선신보)

- 북한은 현재 고려호텔 옆에 위치한 평양역에서 광복거리 끝인 만경대(송산역)까지의 궤도전차 구간에 대한 2단계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6월1일부터 이 구간 운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14일 보도
- 2단계 공사의 작업구간은 광복거리입구에서 차량기지가 있는 종점인 만경대 송산역까지 10km로 낡은 전주를 궤도 레일과 함께 교체

● 평양에 이탈리아 요리 전문점 개업(3/14, 조선신보)

- 평양의 광복거리에 이탈리아 현지에서 요리 연수까지 받은 요리사들이 피자 와 스파게티를 비롯한 각종 파스타 솜씨를 선보이는 이탈리아 요리 전문식당이 들어서 시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4일 보도
- 작년 12월 문을 연 이 식당은 북한에서 이탈리아 요리 전문점으로는 두 번째로, 앞서 2005년 7월 평양의 변화가인 창광거리 련화동에 첫 이탈리아

요리 전문점인 ‘별무리 차집’이 개업, 신문은 새 이탈리아 요리 전문점의 운영은 개별적인 상업 관계자의 착상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도 세계적으로 이름난 요리들을 맛보게 해야 한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소개

- 北, 청소년에 민족자존 교육 강화해야(3/12,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12일 강한 민족적 자존심을 지니고 더 높이 비약하자’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2012년 “강성대국”을 건설하려면 민족적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사상교육의 강화를 강조
 - 신문은 특히 “민족의 전도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달려있다”며 제국주의자들이 “민족성을 말살하고 사회주의 사상 진지를 허물기 위한 사상공세의 축수를 청소년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에 대응해 “새 세대들에게 조선민족의 강한 자존심을 심어주는 데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주문
- 北고현숙, 빙속 국제대회 금메달(3/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여자 빙상의 고현숙이 독일에서 7~8일 열린 제3차 ‘도전자컵(첼린저 컵)’ 국제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따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美국무부 관계자, 北발사체는 탄도미사일(3/14, 자유아시아방송)
 - RFA는 13일(미국시간)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월 4-8일 예정돼 있는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판단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이 발사하려는 로켓은 탄도미사일”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
 - 미 국무부의 고든 두기드 부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미사일

이나 인공위성을 발사했을 때 미국의 요격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미래의 일이고 정보 관련 사항”이라며 언급을 피함.

-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다음달 4-8일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내용을 국제기구 외에 별도로 미국 정부에도 직접 알려줬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미 정부는 유엔의 국제기구를 통해 발사 정보를 받았다”고 설명

● 오바마, 北 미사일 위협성 경고(3/12, 연합)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 북한 미사일 발사계획의 위협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북한 핵 프로그램 종식을 위해 중국을 비롯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힘.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방미 중인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미국의 외교안보 과제를 설명하면서 “북한 미사일 계획이 주는 위협성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전언

● 오바마, 대화를 통한 北개방 노력 계속(3/12, 연합)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정책과 관련, “대화를 통한 북한 개방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오바마 대통령은 3월 10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백악관에서 처음 직접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을 통해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반 총장-오바마 대통령 면담 자리에 동석했던 유엔 고위 관계자가 12일 전언

나. 북·중 관계

● 中영화 감상회 개최(3/13, 조선중앙통신)

- 중국 영화 ‘따뜻한 가을’ 감상회가 12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보도, 감상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기남 당 비서, 박익춘 외무상 등이 참석, 중앙통신은 산서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이 영화에 대해 “중국의 어느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 간부들의 직권 남용과 부정부패행위에 대해 보여줬다”고 소개

● 원자바오, 6자회담으로 문제 풀어야(3/13, 연합뉴스)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13일 북핵 6자회담을 적극 추진하고 대국적 견지에서 이견을 줄이는 방식으로 한반도 정세를 풀어나가야지 모순을 격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언급,
- 원 총리는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폐막한 직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한반도 정세는 6자회담을 적극 추진해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
- 그는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만이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동북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협상을 강화하며 6자회담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

● 北김영일, 北·中관계 강화발전 노력(3/12, 신화통신)

- 중국 방문을 앞둔 김영일 북한 총리는 12일 중국과의 양자 관계를 한층 강화,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힘. 김 총리는 이날 신화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은 올해 북중 우호의 해를 맞이해 북·중 관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

● 원자바오 中총리 10월 이후 방북할 듯(3/10, 연합뉴스)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10월6일 북·중 수교 6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10월 이후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임.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은 10일 원 총리가 ‘북·중 우호의 해’ 폐막식이 열리는 오는 10월 이후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답방할 계획이라고 보도

다. 북·러 관계

● 러 정보체계 가동, 北위성 발사 주시(3/13, 인테르팍스 통신)

- 북한이 미사일 실험으로 보이는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군도 위성 발사 시 정보 시스템을 총가동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힘.

- 한편 이날 미하일 마르켈로프 러시아 연방의회(상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성발사 계획의 위험성을 북한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위성 발사는 남북 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북핵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리는 이번 발사에 대한 북한의 절대적 투명성을 원한다”라고 언급
-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3월 10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관련국들은 이 지역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공격적인 발언이나 어떤 행동도 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러, 북한, 우주조약 가입 지난 3월5일 통보(3/12, AFP 통신)

- 북한이 1967년 제정된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조약에 가입한 사실을 최근 러시아 외무부에 통지했다고 AFP 통신이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을 인용해 12일 보도
- 러시아 외무부의 한 소식통은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3월 5일 북한의 우주조약 가맹에 대한 통지와 외교문서를 받았다”고 언급

● 러 외교차관, 北 발사 뒤 제재여부 따질 것(3/12,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러시아측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교부 아·태 담당 차관은 12일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

라. 북·일 관계

● 日외상, 北 미사일 일본 낙하시 요격(3/15, 연합뉴스)

- 일본의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상은 15일 북한의 인공위성 명목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발사체가 일본에 낙하할 경우 요격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
- 나카소네 외상은 가나자와(金澤)에서 가진 강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해 “인공위성이라고 하지만 미사일 개발 관련 기술인 점에는 변함이 없고, 일본으로서는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어 미국 등과 함께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고 언급

- **日총리, 위성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3/13, 연합)**
 -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는 13일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 계획 통보와 관련, “인공위성이라고 말해도 명확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힘.
- **조총련 간부 6명 北대의원에 피선(3/10, 조선신보)**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인 재일동포 6명이 8일 실시된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당선됐다고 조선신보가 10일 보도, 대의원에 선출된 조총련 간부는 서만술 의장, 허종만 책임부의장, 량수정 부의장, 강추련 재일본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중앙위원장, 장병태 조선대학교 학장, 박희덕 경제위원회 부위원장임.

마. 기타 외교 관계

- **유럽의회, 北에 위성발사 중단 촉구(3/1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노동당의 초청으로 3월 16일부터 닷새간 방북하는 유럽의회 대표단은 북측에 위성발사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
 - 유럽의회 내 ‘북한통’으로 알려진 글린 포드 의원은, 유럽사회당 부대표인 크리스티안 비지닌 의원을 중심으로 자신을 포함해 대표단은 모두 5명이라며 “유럽의회가 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원치 않으며, 대표단이 적시에 방북하는 만큼 유럽의회 의견이 북한 당국에 전달될 방침”이라고 언급
 - 그는 이번 방북을 통해 “유럽과 북한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특히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며 “지난 8년간 인도적인 지원과 경수로 건설, 소규모 개발을 목적으로 북한에 전달한 유럽연합의 지원액은 5억 유로”라고 설명
- **북한 주재 쿠바대사관 관계자들의 친선모임 개최(3/13, 조선중앙통신)**
 -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조선민주여성동맹과 북한 주재 쿠바대사관 관계자들의 친선모임이 13일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날 모임에는 로

성실 여맹 위원장과 호세 갈레고 몬타노 쿠바 대사 등이 참석

● ICAO, 北에 '민항기위협' 철회 촉구(3/9, 연합)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9일 한·미 '키 리졸브' 합동군사훈련 기간 영공과 그 주변을 통과하는 남측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북한의 발표를 철회할 것을 촉구, 이사회에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관련 발표를 철회하고 ICAO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즉시 북한에 발송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0일 발표

3 대남정세

● 평북협, 북에 김치공장 세워(3/15, 연합)

- 북한 돕기 운동을 펴온 불교 단체인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평북협)는 북측의 요청을 받아 올해 안에 김치공장을 지어주기로 했다고 15일 발표
- 김치 공장은 개성이나 사리원, 평양 가운데 한 곳에 하루 생산량 10t 이상의 규모로 짓기로 했으며 공장은 150평 규모의 생산동과 100평 크기의 절임동, 150평짜리 저온창고와 30평 크기의 자재 창고 등을 설치

● 北, 통행차단 유지, 6명만 귀환(3/14, 연합)

-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다시 차단한지 이틀째인 14일 한국인 2명과 외국인 4명 등 6명의 귀환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지만 통행 차단 조치는 그대로 유지
- 이종주 통일부 홍보담당관은 "13~14일간 예정된 개성공단 방문과 귀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귀환할 예정인 인원은 어제 귀환하지 못한 인원을 포함해 총 427명이며, 오늘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총 727명"이라고 발표
- 다만 북한은 이날 오전 9시와 오후 5시 2차례 걸쳐 본인 결혼, 자녀결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우리 국민 2명과 중국인 3명과 호주인 1명 등 외국인 4명의 귀환을 허용

● 北, 개성공단 통행 다시 차단(3/13, 연합뉴스)

- 북한이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북 육로를 사흘 만에 다시 차단, 북한은 13일 개성공단을 왕래하려던 남측 인원의 경의선 육로 통행계획에 대한 동의 입장을 남측에 통보하지 않음에 따라 오전 중 방북하려던 개성공단 관계자 611명이 떠나지 못했고 오후 공단에서 남으로 귀환할 예정이던 250명도 발이 묶임.
- 북측 개성공단 및 출입관리당국은 동의 지연 사유를 묻는 우리 측의 거듭된 질의에 구체적 언급 없이 '기다리라'고만 답하고 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언

03.16-03.22

3월
3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가극 '홍루몽' 현지지도(3/22,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 북중 '친선의 해'를 맞아 중국의 고전을 북한판으로 개작한 가극 '홍루몽'의 제작 현장을 찾았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22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또 김일성 주석과 중국의 노세대 지도자들이 "장구한 기간에 걸쳐 마련한 귀중한 조중친선을 더욱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라며 "문화교류는 두 나라 인민의 친선을 증진시키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고 매체는 보도
 - 이날 시찰에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장성택 최익규 김양건 당 부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동행

- 김정일, 광장서 군인 집단 격려(3/2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군 전초병열성자대회 참가자들을 고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 앞 광장에서 만나 격려하고 기념촬영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같은 장소에서 또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 병상관, 창광원 등의 건설에 투입된 '군인 건설자들'도 만나 치하하고 기념촬영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두 군인집단을 단체로 만난 날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음.
 - 북한 언론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상 '전초병열성자들'과 '군인기술자들'은 각각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임. 김 위원장이 금수산기념궁전 앞 '광장'에서 이런 행사를 가진 것은 이례적임.
 - 검은 털모자를 쓰고 흰 외투와 썩색 바지 차림의 그는 임시 설치된 계단식 좌대에 도열한 수백 명 앞을 걸어가며 이들의 환호에 오른팔을 들어 답례하거나 좌대 앞에 서서 두팔을 어깨 높이로 치켜들어 박수로 격려하거나 양손을 앞으로 깎지 낀 채 걷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그의 얼굴은 다소 핏색한 얼굴이었지만 광장에 기념촬영을 위해 층층이 줄을 지어 서있는

군인들 앞을 걸으면서 두 손을 들어 박수를 치거나 오른팔을 쭉 펴서 환호에 답례를 보내는 등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음.

- 행사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 국장, 김명국 현철해 대장 등 북한군 지휘부가 수행

● **살빠진 김정일 심한 당뇨병 앓는 듯(3/20, 조선중앙통신; 3/21, 조선일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종합대학에 새로 건설한 수영관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 통신은 이 수영관이 “대규모의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갖추고 있으며 국제경기도 할 수 있게 건설됐으며, 김 위원장은 수영장 내,외부를 “장시간” 돌아본 후 ‘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
- 그는 또 김일성종합대학 전경을 부감하고 “김일성종합대학은 만년대계로 물려줄 민족번영의 귀중한 재부”라고 강조하면서 “현대적인 도서관을 비롯해 대학을 전망성있게 꾸리는 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보도
- 시찰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 김기남과 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장성택, 박남기, 그리고 박명철 국방위원회 참사와 현철해 인민군 대장이 동행했으며, 현지에서 성자립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김태희 당 책임비서가 맞이했음.
-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 위원장이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김형직사범대학 등 평양 시내 대학생들의 예술소조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 위원장이 그동안 입었던 겨울 외투를 벗고 단출한 파란색 인민복 복장으로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에 새로 건립된 수영장을 둘러보는 사진을 보도, 사진 속의 김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이전에 비해 살이 많이 빠진 모습으로, 복부 비만도 제법 들어간 상태임. 목 부위 살도 줄어들면서 오른쪽 귀 밑에서 턱으로 흐르는 주름이 두드러져 보이고, 턱 가운데에서 가슴 앞쪽으로 내려가는 살이 아래로 축 쳐져 보였음.
- 신경과·재활의학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체중 감소는 의도한 다이어트보다는 ‘연하곤란’(음식물을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이라는 뇌졸중 후유증 때문인 것으로 추정, 연하곤란 증세는 뇌졸중 후 짧게는 2-3개월 후, 길게는 6개월 이상에 걸쳐 서서히 회복됨. 이와 관련 인터넷매체인 데일리NK는 18일 북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 “김 위원장이 지난달 말 회

령을 시찰할 때 계단을 오르면서 부축을 받았으며, 평지에서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호위군관 두 명이 옆에 꼭 붙어서 다닌다”고 보도

● **김정은 베른학교 가명은 박철(3/5, 스위스 시사주간지 레브도)**

- 스위스의 프랑스어 시사주간지 레브도(L'hebdo)는 ‘수습 독재자가 베른지방 독일어를 말한다’는 제목의 3월 5일자 기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것으로 보이는 셋째 아들인 김정은은 스위스의 베른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 of Berne) 재학시절 ‘박 철’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는 증언이 보도됨.
- 레브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1983년 1월 8일생’으로 올 1월 8일로 26세가 된 것으로 추정됨.
- 베른국제학교의 론 슈워츠 체육교사는 김정은에 대해 “그는 떠날 당시 9~10 학년이었다”면서 “그는 학교 농구부와 수영부 활동을 했고, 수줍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으나 팀워크를 형성하는데는 강인했다”고 회고, 김정은은 1998년 15세때 스위스를 떠남.
- 베른국제학교의 교장이었던 다비드 카틀리는 김정은에 대해 “솔직한 아이였고 친구들과 간의 다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아이였다”면서 “특히 친구들과 중에 미국 외교관 자녀들이 많았다”고 술회
- 하루 수업을 마치면 북한 대사관에서도 김정은을 픽업하러 왔으며, 당시 김정은의 학교 친구들은 그의 아버지가 ‘대사관 운전기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 정운은 일종의 보디가드로 보이던 ‘광철’이라는 또 다른 북한 학생이 김정은과 늘 함께 다녔다고 증언, 슈워츠 교사도 “광철은 체격이 좋고 무뎡뎡했으며, 그를 도와서 학생들과 함께 농구를 했다”고 증언.

나. 정치 관련

● **北, 美 인도지원도 인권과 결부 비난(3/22,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유엔인권이사회가 조만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신문은 22일 ‘제국주의자들의 인권보호 타령을 반대배격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설에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인도주의문제까지 인권문제와 결부시키며 인도주의를 정치적 흥정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

- 노동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은 ‘인도주의 원조’를 받으려면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해당 나라들에 체제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국주의자들이 ‘인권보호’를 구실로 다른 나라들의 경제·교육·문화·외교정책 등을 시비하면서 사상정치분야에서의 자유화·다원화, 경제분야에서의 ‘소유의 다양화’와 시장경제의 도입을 강요”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들의 국가사회제도까지 변경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

● 北, 美도 인공위성 인정하는데 南은 부인(3/21,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21일 ‘하늘의 해를 떨어뜨리려는 부질없는 망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도 북한이 내달 초 발사하려는 로켓에 대해 미사일이 아닌 ‘인공지구위성’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남한당국은 여전히 탄도미사일로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

- 통일신보는 “공화국(북한)이 발사하려는 인공지구위성을 미사일이라고 우려대던 미국도 이제는 그것이 인공지구위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남한 당국이 “그 무슨 대응조치와 국제적 공조로 공화국을 어찌보려 하는 것은 하늘의 해를 떨어뜨리려는 것과 같은 부질없는 망동”이라며 “북남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간 남조선의 보수당국이 동족의 위성발사까지 걸고들며 도발과 적대행위에 매달린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 北, ‘만경대 가문’ 또 강조(3/21, 통일신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0년전 자강도 현지 지도 당시 조부 김형직, 아버지 김일성 주석 그리고 자신으로 이어지는 “만경대 가문의 3대”를 언급하면서 “만경대 가문이 대를 이어 개척하고 실현해 나가는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결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고 통일신보가 21일 보도

- 통일신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999년 가을 자강도내 여러 지역을 현지 지도하던 중 랑림군으로 가는 직령을 차로 넘으면서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이라는 표지비를 보고 “생각되는 것이 많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만경대 가문의 3대가 대를 이어 걷는 길이 되었다”라고 언급했다고 소개

● 량강도당 책임비서에 김히택으로 교체(3/22, 조선중앙방송)

- 백두산 일대를 관할하는 북한 량강도의 당 책임비서가 김경호에서 김히택으로 교체된 것으로 확인됨. 조선중앙방송은 2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량강도 삼지연군 현지도 30주년 기념보고회 소식을 전하면서 김히택 도당 위원회 책임비서가 김철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과 보고회에 참가해 기념 보고를 했다고 보도
- 김 신임 도당 책임비서의 경력은 1980년 량강도 갑산군 행정위원회(현 인민위원회) 지방공업관리부 부부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짐. 그와 같은 이름으로 김히택 노동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이 있지만 동명이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전임 김경호 도당 책임비서는 4월 4일자로 중앙통신이 보도한 김 위원장의 량강도 삼지연지구 혁명전적지 현지도에 수행했으며 4월 9일 김 위원장의 현지도 지시 관철 궐기모임에 참석한 것을 끝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

● 당 선전선동부장에 최익규 임명(3/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익규 전 문화상이 북한 주민에 대한 사상교양과 체제 선전을 총괄하고 있는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중 ‘친선의 해’를 맞아 ‘피바다가극단’에서 제작하고 있는 가극 ‘홍루몽’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하면서 최익규 당 부장이 장성택(행정부)·김양건(통일전선부) 당 부장 등과 함께 김 위원장을 동행했다고 소개
- 한 대북소식통은 “최익규 전 문화상은 지병으로 은퇴했다가 지난 2월 공식이었던 당 선전선동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
- 최 부장은 200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 회의에서 문화상으로 임명됐으나 2005년 10월 이후 당뇨 등 지병으로 은퇴했다가 지난 8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선출되면서 대외에 건재를 과시, 최 부장은 김 위원장이 아직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내정되기 훨씬 이전인 1960년대 중반 조선예술영화촬영소 감독으로 일하던 당시 영화부문 지도에 나선 김 위원장과 인연을 맺은 오랜 최측근임. 또 1970년대 초반부터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20여 년간 활동하는 과정에서 정운의 생모이자 만수대예술단

무용수 출신인 고영희씨와도 절친했으며, 현재 정운의 후계수업과 후계체제 구축을 주도하고 있는 장성택 당 행정부장과도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짐.

- 최 부장은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일하는 과정에 1986년 북한에 피랍됐던 신상옥·최은희씨의 탈북에 대한 책임과 영화제작 과정의 비리에 연루돼 잠시 좌천되기도 했으나 김 위원장과 고영희씨의 각별한 신임으로 재기, 최 부장은 당 관료이기도 하지만 북한 내에서는 최고의 영화, 가극, 연극 감독으로도 손꼽힘.
- 그는 선전선동부 과장, 부부장 직함을 가진 채 김 위원장의 지도하에 ‘꽃파는 처녀’(1972), ‘유격대 오형제’(1968), 김일성 주석의 항일활동을 소재로 한 ‘조선의 별’(1-10부, 1980~87), ‘민족과 운명’(1-50부) 등 북한이 이른바 명작으로 내세우는 우수한 영화를 직접 연출, 제작
- 한편 전임자인 정하철 당 선전담당 비서 겸 선전선동부장은 당 조직지도부가 2005년 5-6월 ‘농촌 총동원기간’ 대낮에 안이하게 음주판을 벌인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부위원장 등에 대한 ‘집중검열’을 진행하는 과정에 과거 중앙방송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정 부장의 업무상 과오를 문제 삼으면서 철직돼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짐.

● 北, 南 인권 제기에 남북관계 정상화 없어(3/20, 조평통 대변인 담화)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남한 정부가 북한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시한 것에 대해 “(남한이) 인권모략 소동에 매달리는 한 그 어떤 대화나 북남관계 정상화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
- 조평통은 20일 대변인 담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 “인권모략 소동으로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그것은 파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도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비난

● 北, 발사 직후 최고인민회의 12기 첫 회의 개최(3/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를 발사한 직후인 4월 9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20일 발표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3월 16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관한 결정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가 4월 9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유엔인권이사회 대북결의안 상정(3/20, 자유아시아방송)

-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이 상정됐으며 결의안에 대한 표결은 오는 26일이 유력하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방송은 20일 이 결의안의 주상정국인 체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한국이 이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보도

● 北, 모든 나라, 우주진출 권리 있다(3/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를 내달 4~8일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국경선이나 경계선, 관할권 등이 존재하지 않는 무한대한 우주는 전 인류의 것”이라며 우주이용의 정당성을 강조
 - 통신은 ‘우주 진출을 적극화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러시아, 이란, 베트남의 위성발사와 중국, 인도 등의 위성발사 계획을 소개하면서 “지금 우주를 평화적 목적에 맞게 개발, 이용하기 위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활동이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위한 우주진출 권리가 세계 모든 나라들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문타폰, 북한 870만명 식량불안정 상태(3/20, 연합뉴스)

- 유엔은 북한 주민 870만 명이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힘. 비릿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일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특별연설을 통해 “지난해 북한지역의 날씨가 비교적 좋았음에도 작황이 늘지 않은 것은 비료 및 연료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870만 명 가량의 주민이 식량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고 언급

- 문타폰 보고관은 또 “고문이 법률에 의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수감자들은 곤경을 완화하는 데 뇌물을 동원하기도 한다”고 보고
-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은 즉시 원조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위해 식량 및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을 제공하고 동시에 효율적인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공개처형 등 개인의 안전 및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 美단체, 北 전역 심장의료체계 구축 추진(3/19, 미국의소리방송)

- 지난 1998년부터 대북지원 사업을 벌여온 미국 구호단체인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GRS)’가 북한 전역에 종합 심장의료체계를 구축키로 하는 등 올해부터 대북 사업을 의료와 교육 등 다방면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
- GRS의 로버트 스프링스 회장은 “올해도 황해남, 북도와 함경북도 일부 지역의 주민 15만명에게 매일 식량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2004년부터 콩 농장과 두부 제조공장, 두유, 콩기름 공장 등을 세운 황해북도 곡산군에 된장과 간장공장도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힘.
- GRS는 또 북미간 사회문화 교류사업의 하나로 오는 6월 중국 베이징이나 평양에서 미국인 강사들이 평양외국어대학 영문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강습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2년에 한번씩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맞아 열리는 북한의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캐스팅 크라운즈’, ‘애니 모세스 밴드’ 등 미국의 유명 뮤지션들을 출연시킬 계획이라고 스프링스 회장은 설명

● WFP, 北 당국 철수요청 안받았다(3/19,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이 자신들에게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는 일부 외신보도를 부인하고 계속 북한에 남아 구호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
- WFP 아시아사무국의 폴 리슬리 대변인은 “WFP가 북한에서 철수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우리는 북한에 계속 남아 구호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200만명의 북한 주민에게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고 주장

● 美구호단체, 북한 떠나라 통보 받아(3/17, 연합)

- 미국의 추가 대북 식량지원을 거부한 북한이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구호단체들에게도 이달 말까지 철수할 것을 요구, 국제 구호단체 ‘머시 코(Mercy Corps)’의 조이 포텔라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머시 코’를 포함한 5개 구호단체에 3월 말까지 북한을 떠날 것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힘.
- 포텔라 대변인은 “그들은 어떠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당국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힘. ‘머시 코’는 그동안 ‘월드비전’, ‘글로벌리소스서비스(GRS)’, ‘사마리탄스 퍼스(Samaritan’s Purse)’,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hristian Friends of Korea)’과 함께 북한에서 식량 배급 활동을 펴 왔으며, 예정된 활동 기한은 오는 5월까지였음.
- 이들이 지금까지 북한에 들여온 식량은 모두 7만1천 톤에 달하며, 이중 5만 톤은 배급이 완료됐음. 포텔라 대변인은 북한 사람들이 아직도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이 미칠 파장을 걱정

라. 군사 관련

● 北로켓, 4월4일 발사될 듯(3/20,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 일본 지지통신)

- 북한이 4월 4~8일 사이에 인공위성으로 주장하는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발사가 4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20일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일본 지지통신을 인용해 보도
- 지지 통신은 기상 악화나 마지막 순간 고장만 없다면 북한은 4일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베이징(北京) 외교 소식통의 말을 빌려 보도
- 북한은 3월 11일 외무성 해사국장 명의로 4월 4~8일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3단 운반 로켓 ‘은하-2호’로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 북측 발표로는 로켓 발사 직후 1단 로켓 추진체는 동해에, 2단 로켓 추진체는 태평양에 떨어질 것으로 알려짐.
- 현재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로켓 발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 말에는 발사대에 로켓이 장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北, 21일부터 군통신선 정상화(3/21, 연합)

- 북한은 21일 오전 8시부터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3.9~20) 차단

했던 군 통신선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남측에 통보, 정부의 한 소식통은 20일 “북측이 내일 오전 8시부터 통신선을 회복한다고 오늘 오후 통보해 왔다”고 밝힘.

- 북측은 개성공단관리위에 보낸 팩스(전통문)를 통해 “우리(북)측은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의 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려는 입장과 의지로부터 차단하였던 북남 군통신을 21일 8시부터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언급
- 그러나 북측은 키리졸브 훈련 종료일인 20일 우리 측 인사의 방북 및 귀환 계획에 대해 동의 통보를 보내오지 않음에 따라 개성공단 관계자의 방북과 귀환이 무산되었음. 북한이 통행을 차단한 것은 훈련 개시일인 3월 9일을 시작으로 이번이 세 번째임.
-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 개시일인 9일 1차로 통행을 차단했다가 10일 정상화했지만 13일 다시 통행을 전면 중단한 뒤 16일 귀환에 한해서만 통행을 허용한데 이어 17일부터 19일까지 통행을 전면 허용

마. 사회·문화 관련

● 평양 창광거리 식당들 개보수 완공 단계(3/21, 우리민족끼리)

- 평양 창광거리에 밀집한 유명 음식점 18곳에 대한 개건(개조) 공사가 착공 1년 만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우리민족끼리’가 21일 보도, 우리민족끼리는 창광봉사관리국 산하 18개 식당의 개건공사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설비 이동과 내·외부 벽면 및 보도 타일 붙이기, 주방 신축, 상·하수도 망 공사, 지붕 씌우기, 잔디 심기 등의 작업이 끝났다고 소개
- ※ 창광거리는 평양 역전에서 시작해 고려호텔을 거쳐 노동당 청사로 이어지는 거리로, 평양을 대표하는 고급 음식점을 비롯해 다양한 음식점들이 자리잡고 있음.

● 北, 외국어 시청각설비 자체개발·보급(3/18, 조선신보)

- 북한의 ‘조선교육후원기금’이 “시청각 설비에 의한 외국어 교육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현장에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8일 보도, 이 기금은 북한이 교육기관 후원을 위해 2005년 1월26일 설립한 민간단체임.

- 외국어 시청각 설비는 지난해 4월부터 평양제4소학교, 평양창덕중학교, 함경남도 락원군 서중중학교, 남포교원대학 등 20여개 소, 중학교들과 대학들에 도입, 기금은 앞으로 국내외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저가의 외국어 시청각 설비들을 대량 제작해 더 많은 학교들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소개

● 北, 광통신망 원격진료 시범실시(3/18, 조선신보)

- 북한이 광케이블 통신망을 이용해 “먼거리의료(원격진료) 봉사”를 시작했다고 조선신보가 18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김만유병원, 평안북도인민병원, 만경대구역인민병원을 원격진료 시범병원으로 지정, 이들 병원에 협의용 카메라, 액정표시장치, 컴퓨터, 전자심전계, 전자현미경 등을 갖춘 원격진료실을 만들. 이들 병원은 김만유병원을 중심으로 전용 빛섬유(광섬유) 케이블에 의한 고속정보망으로 연결되어, 김만유병원의 지방병원 담당과가 지방병원들의 원격진료 의뢰를 받아 처리하는 방식임.
- 김만유병원은 보건성 보건경영학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영상협의체제와 원격원트겐진단협의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원격의료에 관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오래 전부터 원격진료를 준비해왔다고 신문은 설명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조선신보, 北발사 美제재시 6자회담 중단(3/1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인공위성 발사계획 통보는 조선이 제공한 <자성의 기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4월의 인공위성 발사는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며 ‘광명성 2호’를 예정대로 4월 4~8일 사이에 발사했을 때 미국이 “제재와 압력”에 나설 경우 “6자회담이라는 외교틀에 의해 유지돼온 조선(북한)과의 대화 과정은 중단 위기에 직면”할 게 확실하다고 조선신보가 19일 주장

- 남한과 일본에 대해서도 신문은 “‘미사일’ 소동이 확대될 경우 그 귀결은 출구가 없는 벼랑대지”라며 “조선의 군대는 자주권 침해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눈앞의 ‘위기’를 과장하기보다 사태의 수습을 내다본 발사의 차후대책을 세우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주문
- 조선신보는 이날 또 ‘파탄 면치 못할 이명박식 <실용주의>’라는 제목의 다른 기사에선 한반도의 대결구도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오바마 정권이 대화와 대결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

● 北, 핵시설 불능화 속도 늦춰(3/17, 연합)

- 북한이 북핵 6자회담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핵시설 불능화 작업의 속도를 다시 늦췄음.
- 외교 소식통은 17일 “북한이 최근 폐연료봉 제거 속도를 하루 15개에서 일주일에 15개로 늦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핵시설 불능화의 대가로 제공되는 경제·에너지 지원이 더디게 진행되는데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고 언급
-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는 2007년 ‘2.13합의’에서 북한의 핵시설 폐쇄 및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에 따라 한·미·중·러 4개국은 중유를 포함, 중유 100만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설비를 제공하기로 합의, 미국과 러시아는 이미 할당된 중유 20만t 제공을 끝냈으며 중국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짐.
- 한국(5.5만t)과 일본(20만t)의 지원이 남아있지만 한국은 작년 12월 검증의 정서 채택 실패 이후 지원을 중단했고 일본은 납치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아예 지원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중국의 지원을 끝으로 지원이 중단된 상태임.

나. 북·미 관계

● 北, 미국인 2명 억류 조사 중(3/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 일 조.중(북한-중국) 국경지역을 통하여 불법 입국한 미국 사람 2명이 억류되었다” 며 “현재 해당 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21일 보도
- 통신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짧게 이 같은 사실을 밝

힘. 북한이 미국인 기자 2명의 억류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 보도가 처음임. 미국의 '커런트TV' 소속 한국계 유나 리(Euna Lee)와 중국계 로라 링(Laura Ling) 기자는 3월 17일 북·중 접경지대의 두만강 인근에서 취재 도중 북한 당국에 억류되었음.

● 美, 여기자 北억류 우려 전달(3/20, 연합)

- 미국 행정부는 19일 미국 국적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된 사건과 관련, 사건발생 경위를 파악하는 동시에 북한 측에 유감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인 2명이 억류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 하지만 우드 부대변인은 이들 여기자 2명의 억류경위 및 소재파악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피함. 그는 “보도를 본 것 외에는 어떤 실제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더 상세한 노력을 수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여러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답변
- 국무부는 북·미 뉴욕채널과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중국 정부와 사건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 미국은 북한과 정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웨덴 공관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

● 北 식량지원거부, 美 실망(3/17, 연합)

-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7일 식량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북한의 통보사실을 확인하면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언급, 미국은 2008년 6월부터 12개월에 걸쳐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40만t, 머시코 등 5개 비정부단체(NGO)를 통해 10만t 등 총 50만t의 식량을 직·간접 지원한다는 계획대로 대북지원 약속을 이행해 오고 있는 상황
- 미국은 지금까지 16만9천t을 전달했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 1월 옥수수와 콩 5천t을 지원했다. NGO들은 이미 5만t을 북한에서 분배했으나, 나머지 2만t은 모니터링 문제 등으로 분배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임.
- 이런 와중에 북한의 이번 거부 의사 표시로 지난해 2년 반 만에 재개됐던 미국의 식량지원은 목표의 50%도 채우기 전에 중단될 위기

- 식량지원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로 북한내 식량배급의 투명성을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 요원의 배치문제 부상

다. 북·중 관계

● 김영일 중국 방문 마치고 귀국(3/21, 연합)

-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김영일 북한 총리 등 북한 대표단이 21일 4박5일간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
- 김 총리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우방귀(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과 만나 6자회담 재개와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협의, 북한과 중국은 오는 10월6일 양국 수교 60주년 기념 일을 축하하기 위해 올해를 북·중 우호의 해로 정하고 지난 18일 베이징 국가대극원에서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을 거행했음.
- 김 총리의 이번 중국 방문에는 김태봉 금속공업상, 김창식 농업상, 리용남 무역상, 강능수 문화상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대거 수행

● 원자바오, 북·중 회담서 김정일에 안부(3/18, 연합)

- 중국을 방문 중인 김영일 북한 총리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18일 양국 총리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발전방안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문제,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에 대한 논의
-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 참석차 방중한 김 총리는 이날 오후 5시25분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원 총리를 비롯한 중국 대표단 13명과 함께 총리회담을 시작, 원 총리는 "김영일 총리의 중국 친선 방문을 환영하며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 참석을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김정일 총비서와 다른 지도부에게 따뜻한 인사말을 전해주기 바란다"고 인사
- 회담에 북한에서 김태봉 금속공업상, 김창식 농업상, 리용남 무역상, 강능수 문화상, 김영일 외무성 부상 등 장차관급 인사를 포함해 13명이 참석했고 중국에서도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 등 13명이 참석

● 방중 北총리, 산둥성 당서기와 담화(3/17, 조선중앙통신)

- ‘북·중 우호의 해’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김영일 북한 총리가 17일 산둥(山東)성(省) 성도인 지난(濟南)시(市)에서 장이강(姜異康) 산둥성 당서기를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라. 북·러 관계

● 러 특사, 北 위성발사 과대해석 경계(3/17, 러시아 관영 이타르타스 통신)

- 러시아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한반도 담당 특사는 러시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있을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과대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로그비노프 특사는 17일 러시아 관영 이타르타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움직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 서두를 필요가 없지만 상황이 그리 간단치 않다며 국제사회는 오는 4월 초에 있을 북한 위성 발사의 모든 상황을 신중히 살펴 공황상태로 빠져드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

● 북·러 친선협조 강조(3/17, 노동신문; 민주조선)

- 북한 언론매체들은 17일 북한과 러시아(옛 소련 포함)간 경제문화협조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아 기념 논평을 게재하고 이 협정이 “두 나라 친선협조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는 역사적 계기로 됐다”고 주장
- 노동신문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간 처음 체결된 이 협정 이후 지난 60년간 양국은 “협정에 기초해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이익에 맞게 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조와 교류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친선의 유대를 두터이 해 왔다”며 이 같은 친선강화 발전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건전한 국제관계 수립을 추진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주장
- 민주조선도 기념논평에서 양국 친선이 “두 나라 정부와 인민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앞으로도 계속 확대 강화 발전될 것”이라고 강조
- 김영일 총리는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에게 축전을 보내 이 협정의 체결로 양국 사이에 “여러 분야에서 쌍무협조를 발전시킬 수 있는 법률적 기초가 마련됐고 이를 토대로 두 나라 인민은 상호 왕래와 교류, 호혜적

인 협조를 발전시켜 왔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두 나라 사이의 협조관계가 쌍방사이에 합의된 공동문건들의 정신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

● 북·러,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60돌 기념 사진전시회 개최 (3/16,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60돌에 즈음한 사진전시회가 16일 평양 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개막식에는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대리, 조선-러시아친선협회 위원장인 홍선옥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발레리 수히닌 주북 러시아 대사 등이 참가

마. 북·일 관계

● 日방위상, 北 미사일 요격 월내 명령(3/21, 아사히 신문)

- 일본의 하마다 야스가즈(浜田靖一) 방위상은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물체의 발사가 실패해 일본에 떨어질 경우에 대비, 자위대법 제82조 2항에 의거해 ‘탄도미사일 등 파괴조치 명령’을 이달 중 내릴 생각임을 밝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1일 보도
- 파괴조치 명령은 미사일 등이 일본으로 날아올 우려가 있을 경우 각의결정을 거쳐 방위상이 명령하거나, 일본으로 날아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태의 급변에 대비, 사전에 방위상의 판단으로 원칙적인 비공개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바. 기타 외교 관계

● EU 트로이카 대표단 방북(3/21, 조선중앙통신)

- 이리 쉬틀레르 체코 외무부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럽연합(EU) ‘트로이카(EU 순회의장국과 집행위원회, 이사회 사무국)’ 대표단이 21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유럽의회 사회당그룹 대표단 귀국(3/21, 조선중앙방송)
 - 방북했던 유럽의회 사회당그룹 대표단이 21일 평양을 떠났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비행장에서 박경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대표단을 전송
- EU, 北 유엔 결의 이행해야(3/17, 연합)
 - 유럽연합(EU)이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북한에 대해 유엔 결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 EU 집행위원회의 크리스티안 호먼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유엔 프로세스(결의 의미)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라고 언급하고 “우리는 그 프로세스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라면서 북한을 거듭 압박
- 北공보위대표단 중동 방문(3/16,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정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공보위원회 대표단이 중동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 16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 평양역에서 관계부문 일꾼과 북한 주재 시리아 임시대사가 대표단을 전송

3 대남정세

- 軍통신선 복원 첫날 215명 방북·415명 귀환(3/21, 연합)
 - 북한이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3.9~20) 끊었던 군 통신선을 21일 복원함에 따라 남북간 육로통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 이날 개성공단 관계자 215명이 방북하고 전날 귀환하려다 못한 인원을 포함, 총 415명이 남으로 복귀
 - 이에 따라 21일 오후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552명이라고 통일부는 발표
 - 지난 20일 키리졸브 훈련기간 세번째로 통행을 전면 차단했던 북한은 이날 오전 복원한 군 통신선을 통해 우리 측 인원 및 차량의 출입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보내옴.

● 못자리용 비닐 대북 지원 사실상 무산(3/20, 연합뉴스)

- 올해 정부 차원의 첫 대북지원 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못자리용 비닐의 지원이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무산
- 통일부와 민간단체 간 정책협의체인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이하 민관협)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못자리용 비닐의 대북지원 문제를 논의했으나, 민간단체측이 '시기성'을 내세워 자금지원 결정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정부 측은 '결정 유보' 입장을 견지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3.23-03.29

3월
4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장 시찰(3/26,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 희천발전소 건설장을 현지지도하고 이 발전소를 “강성대국” 건설 목표 해인 2012년까지 “무조건 완공”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26일 보도
 - 김 위원장은 현지지도에서 “전기 문제를 우선 풀어야 지금 우리 당이 경제강국 건설에서 중심고리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금속공업을 비롯하여 석탄공업, 철도운수 등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확고히 추켜세울 수 있고 경제의 전반적 활성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칠 수 있다”고 주문
 - 방송은 김 위원장의 “명령에 접한 즉시” 북한군 건설부대들이 “현지에 달려와 치열한 건설 전투에 진입했다”면서 “희천발전소들의 전체 건설자들은 아직 배낭도 채 풀어놓지 못한 때에” 김 위원장이 시찰을 왔다고 전함으로써 김 위원장이 이 발전소의 공사를 서두르기 위해 최근 군 건설부대를 집중 투입한 것으로 추정됨. 김 위원장은 “기존 관념으로 보면 10년 이상 걸려야 할 대규모 발전소 건설을 3년 반이라는 단기간에 끝낸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힘겨운) 과제”라며 공사를 독촉
 - 발전소 시찰에는 박도춘 자강도 당책임비서,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당 중앙위 부장들인 박남기 장성택이 수행

- 김정일, 황남도 재령광산 현지지도(3/2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황해남도 재령광산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 김 위원장은 채굴장과 광원들의 작업 모습을 직접 둘러본 뒤 철광석 증산을 위해 “박토를 적극 앞세우고 모든 채굴 및 운반, 사별 설비의 대형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정비보수를 잘해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
 - 그는 또 “철광석은 나라의 부강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귀중한 자원인 만큼 한덩어리의 쇠돌이라도 모조리 이용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탐사를 앞세워 예비광량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과 함께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심

층채굴대책도 면밀히 세워나가야 한다”고 지적. 그는 “이 광산의 광부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철 바깥에서 일하므로 이들의 사업과 생활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며 광원들을 위한 후방사업의 강화도 지시

- 현지지도에는 김락희 황남도 당 책임비서와 박남기 당 중앙위 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등이 동행

※ 재령광산에는 3천300만t 이상의 철광석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채굴된 철광석은 인근의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등에 공급

● 김정일 위원장 동생 김경희 중태설(3/24, 동아일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생이자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부인 김경희(63)가 알코올의존증 합병증으로 의식불명에 가까운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24일 동아일보가 보도, 이 신문에 따르면 2008년 10월 김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이 북한으로 데려간 프랑스 신경외과 전문의 프랑수아사비에르 루 씨(57)의 주 치료 대상도 김경희였던 것으로 전해짐.
- 김경희는 오랫동안 알코올의존증을 앓아 뇌에도 치명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정남이 지난해 외부 노출 위험에도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루 씨와 함께 평양에 들어간 것은 장조카로 평소 자신을 아꼈던 고모와의 각별한 관계 때문이라는 것
- 또 다른 베이징의 소식통도 “지난해 김 위원장의 건강악화설이 나올 때 김경희가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심각한 상태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

● 북한에서 ‘김정운 후계 낙점’ 확산(3/23, NK In & Out: 열린북한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삼남인 정운을 후계자로 내정했다는 소식이 북한 당·군 간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대북 인권단체인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온라인 소식지 ‘NK In & Out’은 23일 “황해도 소식통”을 인용해 “황해도내 군·당 간부들은 김정운이 후계자로 낙점됐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고 보도
- 소식지는 또 “평양을 다녀온 소식통에 의하면, 평양 시민들의 상당수도 김정운이 다음 후계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며 “이 소식통은 1월말 친

- 하계 지내던 무역일꾼의 입을 통해 들었는데 김정운이 후계자로 확정됐으며 이는 군·당 간부에게도 정확하게 확인한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주장
- 대북 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이 만드는 온라인 소식지 ‘열린북한통신’도 이날 함경북도 “청진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청진 군부대의 일반 병사들이 3월 현재 김정일 아들을 ‘친애하는 장군, 김 대장’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김정일 위원장 아들에게 “수령급 호칭인 ‘친애하는’ 호칭”이 붙었다는 것은 “3대 세습 방침이 확정됐으며 이를 주민들에게 통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
- 이 소식지는 “또 다른 내부 소식통은 신의주의 외화별이사업소 당원 강연회에서 초급당 비서가 김정일의 아들을 ‘친애하는 김 대장, 친애하는 김 장군’이라고 부를 것을 공식 포치(통보)했다고 전해온 바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신의주와 마찬가지로 김정일의 몇번째 아들을 ‘친애하는 김 장군, 김 대장’이라고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고 설명

나. 정치 관련

- 北, 국제사회 압력에 핵실험 협박(3/29, 노동신문)
 - 북한이 4월 4~8일로 예고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 ‘2차 핵(核)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력 반발, 노동신문은 29일 “(로켓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정, 토의만 되면 6자회담은 완전 파탄나게 될 것”이라며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 김정일, 생일날 모임서 “반드시 이긴다” 강조(3/28,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생일인 2월 16일 모종의 실내 집회에서 북한의 내외 정세와 그에 따른 자신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
 - 28일 노동신문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제목의 장문의 ‘정론’에서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이한 감격과 환희가 강산에 차넘치던 지난 2월의 경사로운 날” 김 위원장은 “혁명의 수뇌부의 영도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희망찬 미래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렇게 선언했다고 보도

- 노동신문은 “2012년까지는 이제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장군님만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장군님만 받들면 우리의 행복은 반드시 온다”고 강조, 또 “혁명은 본질에서 있어서 공격전이다”며 “(김 위원장에게) 공격은 확고부동한 난관극복의 방식, 미래개척의 방식, 승리쟁취의 방식”이라거나 “피동적인 방어가 아니라 주동적인 공격을 좋아하시며”, “시련이 막아설수록 더욱 더 완강한 공격으로! 이것이 백두산 장군의 혁명하는 본때이고 불변의 투쟁방식” 등으로 김 위원장의 대내외 정책 스타일을 설명

● 조선신보, 北로켓에서 문제는 권리박탈 적대행위(3/28,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진짜 문제는 ‘평화적 우주 이용 권리’를 빼앗으려는 일본 등의 적대정책이라고 주장
- 신문은 28일 ‘우주개발은 모든 나라에 인정된 권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과학기술을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이용하려는 조선(북한)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적대국의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문제시되어야 할 것은 요격소동을 벌이며 ‘북조선 위협론’을 고취하는 일본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된 권리를 불법시하고 봉쇄하려고 하는 적대행위”라고 언급
- 신문은 특히 “운반로켓 기술의 군사전용이 가능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그러나 “거기에 탑재하는 것이 위성인가 탄두인가 하는 차이는 크다”며 “미국은 핵탄두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 조선은 기술의 평화적 이용목적은 내외에 공언하고 그에 따라 모든 일을 밀고 나가고 있다”고 ‘평화적 목적’을 재차 강조
- 신문은 특히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위배된다는 한·미·일의 입장과 관련,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 후 발표된 안보리 의장의 언론발표문은 “어느 나라나 평화목적의 우주개발 계획이라면 추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일부러 강조했다”고 반박

● 6·15선언 남·북·해외위, ‘실천대중운동’ 벌이기로(3/28, 조선중앙통신)

-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평양에서 위원장 회의를 갖고 오는 6월15일부터 10월4일까지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운동기

간'으로 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

- 남측에서 김상근 신임 상임대표 등 5명이 참가한 가운데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북남공동선언 지지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 이 기간에 북남공동선언 고수·이행을 위한 다양한 대중운동을 보다 집중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통신은 보도
- 회의에선 통일부가 이번 회의에 남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하려던 정대연씨 등 진보연대 소속 2명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공공복리 저해 우려’를 들어 방북을 불허한 것을 “반통일적 행위”로 규정, 공동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통신은 보도
- 통신은 “북·남·해외 위원장들은 6.15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가 해내.외에서 6.15 지지세력의 단합을 강화하고 북남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전민족적 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데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다”며 “회의에서는 외세의존과 사대매국 책동을 배격하고 통일문제, 민족내부 문제를 조선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데 대하여 강조했다”고 소개

● **北매체, 민화협 관변단체화 기도 비난(3/28, 우리민족끼리)**

-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새 대표 상임의장에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가 선임된 것을 “민화협을 저들의 반통일 책동을 합리화하는 관변단체로 더욱더 전락시키고 동족 사이의 화해, 협력을 차단하려는” 기도라고 비난
- 매체는 남한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북한 방문과 지원협력 사업에 대해 “부당한 간섭과 훼방을 일삼는 등 협력, 교류사업마저 대결적인 대북정책의 틀에 맞추려고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통일관련 정부 요직과 단체들에도 분열책동에 앞장서온 극우 보수분자들을 체계적으로 박아내고 있다”고 주장

● **유엔 인권이사회,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3/27, 연합)**

- 유엔 인권이사회는 26일 오후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6개국, 반대 6개국, 기권 15개국으로 결의안을 채택
- 유럽연합(EU)이 주도한 이번 북한 인권결의문은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및 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과 함께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결의문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북한에 대한 UPR(보편적인 정례 인권 검토)에 북측의 참여를 촉구,

- 우리 정부는 2008년 3월에 열린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고 찬성표만 던졌음. 그러나 2008년 11월 열린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이어 이번 결의안에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 표결에서는 작년에 비해 찬성국이 4개국 더 늘어났으며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이 반대

● **北대사, 못 산다고 우주개발도 못하나(3/27, 연합뉴스)**

- 자성남 영국 주재 북한대사는 26일(이하 영국시간) 미사일 발사 계획과 관련해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 큰 나라들은 모두 쏘아올렸는데 우리가 쏘아올리는 것만 갖고 지역평화를 해친다고 몰아세우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 그는 또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갖고 있다”고 언급
- 자 대사는 26일 밤 ‘앵글로 코리안 소사이어티’ 주최로 런던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행사에서 “살기도 어려운데 우주개발에 돈을 쏟아 붓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천영우 주영한국대사의 지적에 작심한 듯 북한의 논리를 주장
- 자 대사는 2000년대 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를 지냈으며 미국통이자 군축 전문가로 알려짐.

● **민주조선, 인권문제 제기 수용납(3/27, 민주조선)**

- 유엔 인권이사회가 26일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결의를 한 가운데 민주조선은 27일 ‘모략 소동은 자멸을 촉진할 뿐이다’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남한이 “반공화국 인권 모략 소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남한의 대북 인권문제 제기는 “대결을 격화시키고 북남관계를 더욱 위험한 국면으로 몰아넣는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주장

● 北측, 안보리 제재에 핵시험 대응 가능 시사(3/26, 조선신보)

- 북한 당국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안보리의 제재가 있을 경우 북핵 6자회담이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하는 수준의 카드를 내보였지만,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비공식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26일 제2차 핵시험 가능성까지 시사
- 조선신보는 '6자공약 준수 의지 판별의 계기점, 조선의 위성발사에 대한 안보리 논의' 제목의 기사에서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695호 → 북한의 핵시험'으로 이어졌던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역사를 망각한 제재소동이 되풀이될 경우 조선(북)의 초강경 대응을 다시 촉발시킬 수 있다"고 주장
- 이 신문은 추가 핵시험이라고 명확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2006년 "핵시험 자체가 그 3개월 전에 있었던 '통상적인 군사훈련(미사일 발사)'을 문제시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판단, 대응조치를 취하는 '자위의 논리'에 바탕"을 둔 것인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우주의 평화적 이용정책에 대한 문제시는 지난 시기보다 적대감의 도수가 높다"고 주장, 또 "2006년의 선례에 비춰볼 때 조선이 '2012년 구상'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를 결단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군사적 억제력의 강화에 의거한 경제부흥의 노선을 택할 수 있다"고 주장
- 지난 24일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대한 해설성의 기사에서 이 신문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다면 "그동안의 6자회담의 이행 과정은 수포가 된다"며 "회담이 열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다"고 강조, 그동안 진행해 온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등을 원상복구하고 핵개발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뜻도 시사
-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안보리 제재시 "곧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체가 9.19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며 "9.19공동성명이 파괴되면 6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도 의의도 없어지게 된다"고 언급

● 美 여기자 보위사령부 초대소에 압송(3/24, 중앙일보)

- 2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청한 정보 소식통은 "여기자 2명이 현재 평양 근교의 보위사령부(북한의 정보 보안부대) 관할 초대소에 머물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

- 이 소식통은 또 “함경북도 지역 북 중 국경을 넘어간 두 여기자는 관할 27 국경경비여단 초병에게 체포됐다”며 “북한 보위사령부가 주도해 하루 만에 평양으로 압송해 입북 경위 등을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언, 그는 “북한 당국이 이들을 평양으로 하루 만에 긴급 이송한 것은 그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
- 관계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미국 커런트TV 소속 여기자인 한국계 유나 리(Euna Lee)와 중국계 로라 링(Laura Ling)이 북-중 국경을 넘은 건 17일 오전 3시쯤이었음.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투먼시 외곽의 웨칭(月晴)이란 마을로 두만강 강폭이 좁고 민가가 드물어 몰래 이산가족을 만나거나 탈북자 은신처로 사용되는 곳이었음.
- 적발된 이들은 27경비여단 소속 초소본부로 끌려간 뒤 여권과 신분증을 통해 미국 국적임이 드러났으며 현장에 투입된 보위사령부 특수요원들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18일 오전 평양으로 두 여기자를 압송, 보위사는 여기자들이 소지했던 취재 녹화테이프나 카메라·취재수첩 등을 정밀 분석해 군사 시설물 촬영을 포함한 군사 정탐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군부가 주도하는 보위사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 국가안전보위부(북한 최고의 정보기관)로 넘겨지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임.

● 北, 아이슬란드 대사에 리희철 임명(3/24,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리희철 아이슬란드 주재 대사가 3월 17일 올라푸르 라그나르 그림손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사를 전달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4일 보도, 북한은 아이슬란드와 1973년 7월27일 수교
- 리 대사는 2008년 4월 스웨덴 주재 대사에 임명된 뒤 라트비아(2008.10), 핀란드(2008.10), 리투아니아(2008.11), 노르웨이(2009.2) 대사도 맡은 데 이어 아이슬란드 대사도 겸임하게 된 것으로 보임.

● 北불교도연맹 위원장 심상진으로 교체(3/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에 심상진 부위원장이 등용된 것으로 확인,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중국과 중국대북(대만)에서 진행되는 제2차 세계불교학술토론회에 참가할 심상진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불교도연맹대표단이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

- 심상진 신임 위원장은 ‘심상련’이라는 이름으로 1990년부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본부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다가 1998년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고 2005년부터 불교도연맹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3월 8일 실시된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피선
- 그동안 조선불교도연맹은 유영선이 위원장을 맡아왔으나 작년 9월말께부터 남북간 불교교류문제를 논의하는데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설이 있었음. 유 전 위원장은 교육성 국장이라는 모자를 쓰고 남북장관급회담의 북측 대표단에 포함됐으며, 2004년엔 남-북간 사회문화교류를 전담하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의 부회장을 지냈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는 종교분야 간담회 북측 단장으로 참석하기도 해 통전부 부부장 기용 가능성이 커 보임.

● 노동신문, 30여년 역사 ‘3혁명’ 재강조(3/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북한의 최장기 대중운동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춰 “보다 높은 단계”로 심화시켜 나갈 것을 주장, 노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말 제기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에 맞춰 “지금이야말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이 운동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할 때”라고 주장
- 신문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가운데 특히 사상혁명과 관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해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미쳐날뛰는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

● 만경대 가문의 애국의 혈통 강조(3/23, 조선중앙방송: 3/21, 통일신보)

- 김정일 위원장의 조부 김형직이 “모든 반일 역량을 하나로 묶어 세워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운동을 통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위력한 지도적 혁명조직”이었다고 북한이 선전하는 ‘조선국민회의’를 1917년 3월23일 결성한 기념일과 관련, 북한 매체들은 잇따라 “만경대 가문의 애국의 혈통”을 강조
- 조선중앙방송은 23일 ‘음악과 기사’ 프로그램에서 김형직이 지었다는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들려주며 “만경대 가문의 애국의 넋이 어린 신념의 노래”라고 주장하고 “이 위대한 애국의 혈통으로 주체의 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 노래는 조국의 통일과 우리 혁명위업, 세계 자주화 위업을 기어이 실현해 갈 만경대 가문의 신념과 의지, 우리 인민의 불타는 마음을 담아 신고 영원히 울려갈 것”이라고 주장

- 21일에는 주간지 통일신보가 김정일 위원장이 10년전 자강도 현지지도 당시 김형직, 김일성, 그리고 자신으로 이어지는 “만경대 가문의 3대”를 언급하며 “만경대 가문이 대를 이어 개척하고 실현해 나가는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결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고 소개

● 北 위성발사는 경제강국 건설의 걸음(3/23, 조선신보)

- 북한이 내달 4~8일 인공위성 ‘광명성 2호’를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조선신보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우람찬 총진군이 벌어지고 있는 속에서 우리나라의 인공지구위성 발사는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귀중한 한걸음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기계설계부문 과학전시회 개최(3/27, 조선중앙통신)

- 제5차 기계설계부문 과학기술전시회가 24-27일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 美, 대북 식량선적 중단은 영양조사 불허가 이유(3/26, 자유아시아방송; 미국 의소리방송)

- 미국 정부가 2008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다가 2008년 9월 이래 세계식량계획(WFP)이 분배하는 식량의 선적을 중단한 것은 북한이 당초 합의와 달리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영양실태조사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미 국무부 국제개발처(USAID)의 존 브라우스 북한담당관이 밝힘.
- 브라우스 담당관은 북한이 식량배급을 감독할 한국어 구사 요원의 증원을 거부한 점도 있지만 영양 실태조사 거부가 미국 정부에 가장 큰 우려를 안겼다고 언급, 그는 미국의 대외원조법상 지원대상 국가에 인도주의적 필요가 있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이 제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지원대상 국가에서 영양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설명

- 그는 북한이 식량지원과 관련한 북-미간 합의를 이행할 경우 미국은 곧바로 WFP를 통한 식량지원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힘.

라. 군사 관련

● 北,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준비(3/29, 산케이 신문)

- 산케이(産經)신문은 29일 '인공위성' 명목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북한이 이와는 별도로 원산 부근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 신문은 북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의 전언을 통해 이 같은 별도의 미사일 발사 계획이 드러났다고 전하면서 미국의 정찰위성 등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로켓 발사 직후 실행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설명

● 北, 발사대에 대포동 2호 장착(3/25, 조선일보)

-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 가능한 북한의 대포동2호 로켓(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 발사가 4월 초로 예고된 가운데 북한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시험장의 발사대에 대포동2호를 장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한·미 정보당국은 예상보다 발사대 장착이 앞당겨짐에 따라 실제 발사도 예고 시점(4월 4~8일)보다 빨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이 이번에 장착한 로켓이 지난 2006년 발사된 대포동2호 미사일과 같은 형태인지, 길이 등 크기가 커진 개량형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길이가 33~35m 내외의 3단 로켓 형태인 것으로 전해짐. 이번에 발사될 대포동2호의 최대 사정거리는 미 알래스카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7000~8000km로 추정, 북한은 최근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대포동2호 1단계 로켓이 무수단리 시험장에서 650km 떨어진 동해상에, 2단계 로켓이 3600km 떨어진 태평양상에 각각 낙하할 것이라고 통보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4월 개학 준비 한창(3/21, 민주조선; 3/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4월 1일 새 학년도 개학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 조선중앙통신은 3월 26일 내달 개학을 앞두고 교육기관들에서 새 학년도 교육에 필요한 교수요강 작성을 이미 끝낸 데 이어 실험·실습과 실물교육을 위해 “현대적인 과학설비와 기구들을 보충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보도
- 또 민주조선 21일자는 “새 학년도 준비를 실속있게 하는 것은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라며 빈틈없는 개학 준비를 강조, 신문은 “새 학년도 준비에서 기본은 교육의 직접적 담당자인 교원들이 교수 준비를 빈틈없이 하는 것”이라며 “교원들에 대한 재교육 강습을 비롯하여 그들의 실무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조직지도 사업을 잘 짜고 들어야 한다”고 주문, 교원의 자질 향상을 강조
- ※ 북한은 1996년부터 새 학년도 개학일을 9월 1일에서 4월 1일로 바꾸었으며, 3월을 ‘학교지원 월간’으로 정해 교재 준비와 교과과정 점검, 교과서와 학용품 공급 등 개학 준비 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음.

● 北TV, WBC 간략히 언급(3/29,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9일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과 관련, 미국과 베네수엘라 경기를 짧막하게 보도하는 형식으로 소개, 방송은 WBC에 대해 “세계 1등급 야구경기대회”라고 언급했으나 WBC의 자세한 연혁이나 참가국 현황, 최종 경기 결과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세계결핵의 날 기념행사(3/27, 조선중앙통신)

- ‘세계결핵의 날’을 맞아 24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위생강연과 사진전시회 등 관련 행사가 열렸으며, 북한 각지에서는 ‘결핵전파를 막는 것은 바로 나’라는 주제로 다양한 홍보활동이 벌어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 北음식점의 변화(3/26, 조선신보)

- 북한의 닭, 오리 등 가금류 전문식당인 월향각이 손님들 앞에서 직접 오리를 구워 내놓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소개, 월향각은 최근

“자동회전대에서 오리를 구워내는 장치”인 통오리구이로를 구입했는데 이 구이로는 표면이 유리로 돼 있어 오리의 조리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리성숙(50) 지배인은 “손님들은 자기가 원자재를 선택하고 자기 눈앞에서 조리되는 것을 직접 보게 되는 것을 재미로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

● **北김책공대 전자도서관 이용자 매년 2배 증가(3/24, 노동신문; 3/25,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첫 전자도서관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이 2006년 초 개관한 이래 이용자 수가 연인원 53만7천여 명에 이른다고 노동신문이 소개
- 신문은 24일자에서 김책공대 전자도서관의 “독자 수는 해마다 두 배 이상 증가돼 하루 최고 8천여 명”의 교수, 학자, 학생들이 이용하며 개관 이후 “각종 봉사를 받은 독자 수는 연 53만7천여 명”이라고 밝혔다

● **AI방역, 항구적 사업으로 추진(3/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방역사업을 “항구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소개
- 통신은 국가비상방역위원회가 조직된 후 AI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전 국가적, 전 군중적인 사업”으로 방역사업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AI 예방을 위해 “겨울 철새들의 이동경로가 밀집돼 있는 지역들에 조사구역을 선정”해 “새들의 종류와 이동, 서식 등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설명
- 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국가과학원 세포·유전자공학분원은 유전자 분석방법으로 AI바이러스의 아형(亞形)을 즉시 판단할 수 있는 신속감별법을 찾았고, 농업과학원 수의학연구소의 AI 신속 진단기술 개발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
- 북한은 AI 예방사업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긴밀한 협조 밑에 적극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통신은 강조

● **北함북도, ‘꽃제비’들 농장에 배치(제271호, 오늘의 북한소식; 3/25, 연합뉴스)**

- ‘오늘의 북한소식’은 최근호(제271호)에서 소식통을 인용, 회령시가 2007

년 청진시 여행자집결소에 구류했던 꽃제비 70여명을 최근 영수리농장과 궁심리농장에 각각 배치했다고 말하고, '농장 청년독립분조'로 불리는 이들은 "합숙생활이 기본이고, 식사는 각 일꾼(간부)들이 각출해서 보장"하지만 매일 작업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면 완수할 때까지 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 간혹 밤 10시가 넘어도 과제를 다 할 때까지 숙소에 안 보낼 때도 있으며, 개인별로 하루 단위로 노동 과업을 부과하는 '개인 도급제'를 실시한다는 것

- 이들 꽃제비 대다수는 2007년 봄 춘궁기에 부모, 형제를 잃은 도시 출신의 고아들로 한 농장 간부는 "다른 농장들도 이런 아이들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마 2007년과 2008년에 집결소에 붙잡혔던 아이들 중 16살이 넘는 아이들을 농장에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소식지는 전연

● 北창광거리 식당들 통신망 연결(3/24, 조선신보)

- 북한이 평양 창광거리에 밀집한 음식점 18곳에 대한 개건(개조) 공사의 일환으로 이들 식당을 정보통신망으로 서로 연결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4일 보도
- 이들 식당을 관리,운영하는 창광봉사관리국은 "모든 식당들을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해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설비들을 갖추기로 하고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도입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신문은 설명, 개건 공사는 2008년 4월 시작돼 현재 80% 진행됐으며 식당 건물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두고 내,외부의 장식 미장, 주방의 신축과 축조, 상하수도망 공사, 거리에 잔디를 새로 심고 도로에 타일을 붙이는 작업 등을 실시
- 창광거리에는 창광산국수집, 서양요리집, 무지개식당 등 18개 식당이 있으며, 전통요리 외에도 중국 요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요리를 제공
- 창광봉사관리국의 류영희(45) 처장은 "이번 개건 사업을 단순히 건물이나 상,하수도망을 새로 고치는 과정으로 보지 않는다"며 개조공사를 음식점의 서비스와 경영 방식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설명, 이에 따라 식당 종업원들은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무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손님들에게 선보이게 될 "봉사복의 개작도 이들의 몫"이라고 신문은 소개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러, 위성이면 안보리결의 무관, 美에 통보(3/28, 자유아시아방송)
 - 러시아 정부는 북한이 로켓에 실어 발사하는 게 인공위성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1718호의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미국 정부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
 - ‘서울과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러시아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북한이 쏘려는 발사체가 위성이라면 1718호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최근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보도
 - 러시아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북한이 쏘려는 것이 미사일이든, 위성이든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은 발사 원리가 같아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한·미·일의 해석과 다른 것임.

- 中, 6자 각국 절제·냉정 유지해야(3/26, 연합)
 -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했다는 보도와 관련, “각국이 절제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한 사실을 중국에 통보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사실 확인은 하지 않은 채 “우리도 관련 보도를 봤다”면서 이같이 언급
 - 친 대변인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중국이 유엔의 제재에 동참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즉답을 피한 채 “중국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유관 당사국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변

- 北, 안보리 상정하면 6자회담 없어질 것(3/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26일 장거리로켓(북한은 인공위성 주장)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 성명 등 낮은 수준의 조치나 북한 관련 논의를 상정만 해도 6자회담이 없어지고 핵 불능화도 원상복구될 것이라고 밝힘.
 - 북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과 가진 문답에서 “유엔 안보리가 의장

성명이든 공보문이든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비난하는 문건 같은 것을 내는 것은 물론 상정 취급하는 것 자체가 우리(북한)에 대한 난폭한 적대행위”라고 언급

- 이어 “이런 적대행위로 인해 (북핵 폐기를 위한 절차가 명시한) 9·19 공동성명이 부정당하는 그 순간부터 6자회담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조선반도 비핵화를 향해 지금까지 진척돼온 모든 과정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고 필요한 강한 조치들이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나. 북·미 관계

● 美, 北 미사일 요격 않을 것(3/29, 폭스뉴스 선데이)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그것(미사일)을 요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게이츠 장관은 또 북한이 지금 당장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능력을 갖추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
- 게이츠 장관은 “만일 어떤 미사일이 하와이를 향하고 있거나, 하와이 등지를 향해 날아오는 것처럼 보인다면 (요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 시점에서 그러한(요격)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

● 보즈워스, 김정일 만나고 싶다(3/28, 워싱턴 포스트)

- 스티븐 보즈워스는 28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이상적으로는 북한 지도자인 김정일과 만나고 싶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높은 외무성 고위 인사들과 접촉하고 싶다”고 언급
- 특히 그는 자신의 역할과 관련, “나는 6자회담을 매일 대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포함한 좀 더 넓은 정책 이슈들에 집중할 것이라고 ‘양자협상’을 언급하기도 함. 그는 또 핵 문제와 관련한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 “우리는 거래(deal)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략적 긴급성이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두 동맹국(한국, 일본)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 美정보국장, 北, ICBM능력 과시 의도(3/27, 연합뉴스)

-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6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그는 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앓은 뇌졸중에서 회복된 뒤 굳건히 권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다른 사람이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
- 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위성 발사 계획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

● 클린턴, 北 미사일 발사시 유엔 회부(3/26, 연합뉴스)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도발적인 행동'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이 문제를 유엔에서 문제삼을 것이라고 25일 경고
-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6자회담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이 같은 도발적인 행동이 간과되지 않을 것이며 그에 따른 결과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

● 美, 北로켓 대응 이지스함 2척 배치(3/26, AFP 통신)

- 미국 해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로켓 발사에 대비해 이지스 구축함 2척을 일본앞 해상에 배치했다고 26일 밝힘. 미 해군의 공보장교인 찰스 하워드씨는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미사일을 탐지, 파괴할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인 매케인호와 채피호가 25일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佐世保)항을 떠났다고면서 “우리는 어떤 긴급 상황에도 준비돼 있다”고 언급

● 美, 北은 두 여기자 잘 대해준다고 확인(3/24, 미 국무부)

- 북한은 억류중인 두 명의 미국인 여기자들을 잘 대해주고 있다고 확인했으며,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영사보호를 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발표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정레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는 보호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그들에게

영사접근을 제공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히고 “북한은 미국 정부에게 억류자들을 잘 대해줄 것을 확인했다”고 전언

- 우드 대변인은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우와 관련된 북한 당국의 언급은 스웨덴 대사관이 아닌 북한으로부터 직접 전달된 것임을 밝혔으며,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긴박하게 북한과 직접적인 접촉이 계속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
- 그는 이와 함께 “6자회담은 아주 유용한 틀이며, 북한이 우리와 함께 더 진전할 수 있기 위해 6자회담에 돌아오기를 원하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지적

● 美, 북한 주민 9만명 인적관리(3/25, 조선일보)

- 미국이 식량구호단체 등을 통해 북한 주민 9만여 명의 인적 사항을 확보했으며, 최근까지 대북 지원 식량의 현지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 자료를 적극 활용했던 것으로 24일 알려짐.
-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탈북도 못해 북한 주민 200만~300만명이 굶어 죽었지만, 2000년대 초 2차 식량 위기가 닥치자 10만명 이상이 중국으로 탈출해 구걸하거나 풀뿌리를 캐며 연명, 미국 구호단체 관계자는 “당시 소문을 듣고 북-중 국경지역에 가보니 탈북자들이 수백명씩 무리를 지어 야산(野山) 등에 숨어 있더라”고 언급하고 이들 단체는 그때부터 25kg의 쌀과 약품 등이 담긴 ‘배낭(구호품 키트)’을 준비해 탈북자들에게 나눠줬으며 “식량 배낭을 나눠주면서 탈북자들의 이름·주소·가족·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기록했는데 약 9만여 명의 탈북자들이 배낭을 받은 뒤 다시 북한 땅으로 돌아갔다”고 설명
- 그는 “(구호단체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 9만여 명의 인적 정보를 미 국무부에 빠짐없이 넘겼다”고 밝힘.
-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미국측 식량 분배 모니터링(Monitoring·감시) 요원의 활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들이 가진 북한 주민들의 인적 정보가 북한 당국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기 때문으로 안다”고 설명하고 미국측 감시 요원들은 단순히 식량을 나눠주는 것만 살피지 않고 2000년대 초 탈북했다 돌아간 주민들이 살아있는지, 가족 구성에 변동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짐.

● 스티븐스, 北, 도발중단·남북대화 재개 주장(3/23, 주한 미대사관)

-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는 23일 “미국은 한국의 우방으로서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남북대화 재개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한다”고 언급
- 그는 이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2주 전 한국에 와서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어리석은 생각이며 남북대화과 6자회담의 재개를 바란다는 데 한국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

다. 북·중 관계

● 中문화부, 北에 가극 ‘홍루몽’ 의상 기증(3/26, 조선중앙통신)

- 중국 문화부에서 북한의 ‘피바다가극단’이 준비 중인 중국 가극 ‘홍루몽’에 출연하는 배우들의 의상을 기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
- 북한 피바다가극단은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아 ‘조-중 친선의 해’ 행사의 일환으로 중국의 가극 ‘홍루몽’의 공연을 준비 중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근 가극 ‘홍루몽’의 제작현장을 직접 방문해 미완의 공연을 관람하고 제작 관련 지침을 줄 정도로 이 작품 창작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김 위원장은 가극을 관람한 뒤 “최상의 수준으로 완성해 조-중(북-중) 친선의 해인 올해에 우리 인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

라. 북·러 관계

● 러시아, 北에 로켓 발사 자제 요청(3/27, 연합)

- 러시아 외무부는 27일 북한에 로켓 발사 자제를 요청

마. 북·일 관계

● 日, 北로켓 파괴조치 명령 발동(3/27, 연합)

- 일본 정부는 27일 안전보장회의 결정을 거쳐 북한이 발사를 준비 중인 인공위성 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

- 해 파괴조치 명령을 발동
-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을 내린 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안전, 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관점에서 만전을 기해 대응하겠다”고 밝힘.
 -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달할 방침이라면서 “우리 나라 영역 내에 낙하하는 케이스는 통상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냉정한 대응을 당부
 - 파괴조치 명령에 따라 자위대는 시즈오카(靜岡)현 항공자위대 요코마쓰(浜松)기지에 배치돼 있는 지대공 유도 패트리엇(PAC3)을 28일 육상자위대 아키타(秋田), 이와테(岩手) 등 두 기지로 이동할 방침이며 수도권 경계를 위해 도쿄(東京) 방위성 본부와 사이타마(埼玉)현 아사카(朝霞)주둔지 등에도 배치할 예정임.
 - 또 해상배치 요격 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 곤고, 초카이호(모두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 기지 배치 중)를 동해쪽으로, 미사일을 레이더로 포착하는 이지스함 기리시마호(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 기지 배치 중)를 태평양에 각각 배치함.

바. 기타 외교 관계

- 정부경제대표단 베트남 방문(3/28, 조선중앙방송)
 - 리명산 무역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정부경제대표단이 베트남에서 열리는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28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EU, 北 로켓발사 유엔결의 훼손 경고(3/24, 연합)
 - 유럽연합(EU)은 북한 당국에 ‘실험적 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24일 발표. EU 이사회 순번의장국을 맡고 있는 체코 정부는 이날 ‘트로이카(의장국·집행위·이사회 사무국) 국·과장급 인사들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설명. 이 회동에서 EU 트로이카는 “북한이 발표한 실험적 위

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를 훼손하는 것으로 비칠 것이며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체코 정부는 설명 - 체코 정부에 따르면, 이리 쉬틀레르 체코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을 단장으로 한 EU 트로이카 대표단은 3월 21~23일 평양을 방문해 북한 당국자들과 양자 관계, 인권 및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논의하였음.

3 대남정세

● 남북교류협력 행정절차 간소화(3/27, 연합)

- 개성공단 사업 등과 관련해 남북을 수시로 오가는 우리 국민들은 오는 7월 31일부터 방북 때마다 당국의 승인을 받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됨.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예고
-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에 의해 최장 1년의 수시 방문 기간을 보장받은 남북협력 사업자는 수시방문 기간 별도의 방문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왕래할 수 있게 됨.
- 또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에 참석한 계기에 북한 주민을 접촉한 경우와 당국 간 합의에 따른 행사나 국제행사 참석을 위해 남한을 방문한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개정안은 개성공단 등 특구 지역 안에서 이뤄지는 총 투자금액 50만 달러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했으며 북한 방문 등과 관련한 민원 처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
-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3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시행

● 한국YMCA, 콩기름 400캔 인천서 선적(3/27, 연합)

- 한국YMCA는 27일 인천항 1부두에서 콩기름 400캔(개당 18ℓ)을 북한에 보내는 선적식을 가짐. 한국YMCA 관계자는 “이 콩기름은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부족하기 쉬운 지방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콩기름은 캔에 담겨 인천~남포 정기화물선인 트

레이드포춘호(4천500t)을 통해 28일 정오께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앞으로 보내질 예정

● 통일부, 北미사일 상황대책반 가동(3/27, 연합)

- 통일부는 2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상황대책반'을 가동, 김천식 통일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황대책반은 북한 미사일 발사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발사 예고 기간 민간인 방북 및 북한 체류 인원 등 왕래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게 됨.

● 개성공단 통행 정상화국면(3/23, 연합)

- 북한이 23일 우리 측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출입을 허용함에 따라 키리졸브 한미합동훈련기간(3.9~20) 차단과 정상화를 반복한 남북간 통행이 일단 정상화 국면으로 돌아감.

-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오전 8시30분께 북측이 군 통신선을 통해 오늘자 우리 측 방북 및 귀환 계획(방북 640명, 귀환 261명)에 대해 동의서를 보내왔다”며 “이에 따라 오전 9시와 10시 두 차례의 출경(방북)이 있었고 이 출경은 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언급

-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군통신선도 재개통됐고 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절차적으로는 정상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9일 이후 출입경 상황이 계속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9일 이후부터 유지하고 있는 (부내) 상황실은 당분간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언급

● 통일부, 민간단체 방북 정상화(3/23, 통일부)

-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인 3월 9~20일 북한의 통행차단 등으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뤄졌던 민간단체들의 방북이 21일부터 정상 진행되고 있다고 통일부가 발표

-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9일 이후 군통신선이 차단되고 개성지역 출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평양이나 사리원, 남포 등지로 방북하는 민간단체들의 방북일정도 조정됐는데 이런 일정들이 2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3.30-04.05

3월
5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첨부 1〉 우리정부의 北로켓발사 공식입장 [전문]
- 〈첨부 2〉 北 “진입 성공” 발표 [전문]
- 〈첨부 3〉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 [전문]
- 〈첨부 4〉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발사 일지
- 〈첨부 5〉 北 로켓관련 입장 발표 일지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로켓 발사 전 과정 관찰(4/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로켓 발사 전 과정을 지켜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김 위원장은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아 ‘광명성 2호’의 발사 전 과정을 관찰하고 큰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언
 - 김 위원장은 운반 로켓도 인공위성도 100% 북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해 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킨 것은 주체적인 과학 기술의 자랑찬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이어서 김 위원장은 로켓 발사에 기여한 과학기술자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전병호 당 군-수공업담당 비서와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동행했다고 통신은 소개

- 김정일, 평양대극장 현지지도(4/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예정된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리모델링을 마친 평양대극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새벽 보도,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에 관한 보도는 지난달 28일 평안북도 구성공장기계공장과 평안남도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 현지지도 보도이후 8일 만임.
 - 김 위원장은 이날 장시간에 걸쳐 극장의 내·외부를 둘러보고 만족해하며 리모델링에 참여한 군인건설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통신은 보도, 북한은 4월 3일 평양대극장 리모델링 준공식을 가졌음.
 - 김 위원장의 평양대극장 현지지도엔 김기남 노동당 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최익규 당 선전선동부장, 강능수 문화상, 현철해, 리명수 북한군 대장이 수행

나. 정치 관련

- 조선신보, 北, 세계 9번째 자력 발사국(4/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5일 이뤄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98년 이래 두번

째로 되는 인공위성을 자체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쏘아올림으로써 과학기술의 높은 수준을 과시했다”고 평가

- 조선신보는 ‘우주개발의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광명성 2호의 성공적 발사는 조선(북한)이 이룩한 첨단과학기술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
- 신문은 북한이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기초”로 보고 있다며 “우주개발 계획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견인차나 같다”고 강조, 신문은 “지금까지 자체로 만든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나라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며 러시아, 미국 등의 순으로 위성 자력발사국의 순위를 꼽으면서, 국제사회의 평가와 달리 북한은 1998년 8월 첫번째 위성인 광명성 1호 발사로 이란(2009.2)에 앞서 9번째 발사국이라고 강조
- 신문은 98년 발사에 대해 일본은 탄도미사일이라며 인공위성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미국도, 남조선도 인공위성이라고 인정했다”며 “연대별로 된 미항공우주국(NASA)의 ‘인공위성발사정보’에도 조선이 98년 8월 29일 ‘광명성1호’를 쏘아올렸다고 명백히 표기되어 있다”고 덧붙임.

● 北, 인공위성 궤도 진입 성공 발표(4/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5일 오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은하2호’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 로켓에 실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발표, 조선중앙통신은 5일 오후 3시28분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성과적으로 발사’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전망 계획에 따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
- 조선중앙통신은 3단계로 된 은하 2호가 5일 오전 11시20분 무수단리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발사돼 9분2초만인 11시29분2초에 광명성 2호가 궤도에 진입했다고 설명, 통신은 “광명성 2호는 40.6도의 궤도 경사각으로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운 거리 490km, 제일 먼거리 1천426km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으며 주기는 104분 12초”라고 언급
- 또, ‘광명성 2호’에는 “필요한 측정기재와 통신기재들이 설치”돼 있고 “위성은 자기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며, “지금 위성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 선율과 측정자료들이

470MHz로 지구상에 전송되고 있으며, 위성을 리용하여 UHF 주파수대역에서 중계통신이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

- 통신은 ‘광명성 2호’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실용위성 발사를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며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한 운반로켓과 인공지구위성은 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라고 주장

● 평양은 조용(4/4, 연합)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한 가운데 방북했다가 4일 평양에서 귀국한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평양 시내에서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해 특별히 눈에 띄는 동향은 없었다고 설명, 또 북측 관계자들은 통일부의 권고에 따라 일정을 앞당겨 이날 귀환하려는 대북 지원 단체 관계자들에게 “들어와서 보니 알겠지만 우리가 초청장을 보낸 것은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이라며 “통일부에 걱정하거나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꼭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가 전언
- 지난달 28일 방북했다가 4일 오전 9시 평양 순안공항에서 출발해 베이징을 거쳐 돌아온 ‘겨레말큰사전’ 남측편찬위원회 관계자는 “거리 분위기에서 별다른 이상 동향이 없었다”며 “인공위성 발사를 직접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구호판 등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소개, 또 시내 경비가 강화되거나 군복 차림의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거나 군대가 이동하는 모습도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 다만 “만났던 북측 관계자들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은 국가의 자주권에 속하는 사안인데, 특히 일본이 왜 걸고넘어지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전언
- 이날 평양에서 귀환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도 “평양시와 별다른 바 없이 조용했다”며 “북측 관계자들은 위성 발사 사실 자체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쏘는지는 모르는 것 같았다”고 소개

● 北, 로켓발사 앞두고 초긴장 태세 조성(4/3, 노동신문; 4/2, 조선중앙방송; 4/2, 조선중앙TV; 4/1, 조선중앙통신)

- 북한 매체들은 3일 북한군 총참모부가 2일 이례적인 ‘중대보도’를 통해 “고

도의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고 “사소한 요격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지체 없이 정의의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을 반복보도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한 분위기를 조성

- 노동신문은 3일자 1면에 ‘중대보도’를 전문 게재했으며, 조선중앙방송은 2일 오후 2시부터 3일 오전 7시까지 5차례 재방송했고, 조선중앙TV도 2일 반복 보도
- 1일 조선중앙방송은 미국이 RC-135 전략정찰기로 로켓 발사장 인근 해안 상공에서 공중정찰하고 있다며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 준비를 간섭하며 함부로 우리측 영공에 간섭 비행기를 침범시킨다면...가차없이 쏘아 갈 것”이라고 경고

● **조선신보, 北로켓기술 수출 언급(4/4, 조선신보)**

-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장거리 로켓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고 조선신보가 ‘2012년 구상 안받침한 광명성 2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4일 보도
- 신문은 “현 시기 조선의 최대 과제는 경제부흥”이라며 “대형 로켓의 개발은 우주공간에 운반된 각종 위성의 이용, 로켓 개발 과정에 탄생한 첨단기술의 민수 이전, 위성발사의 상업화와 로켓기술의 수출 등 일련의 경제적 효과를 상징할 수 있다”고 강조
- 조선신보는 “(북한)인민들에게 있어 ‘광명성 2호’의 당면한 의미는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국산 로켓에 의한 시험통신위성의 성공적 발사는 2012년을 향한 조선식 경제부흥 노선-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실효성을 증명하는 사변”이라며 4일 오전 현재 발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로켓발사의 성공을 기정사실화하고 “위성발사의 신호는 명백하다”며 “2012년은 어길 수 없는 시한이고 최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최고 영도자의 의지”라고 강조

● **北, 곧 인공위성 발사(4/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곧 인공위성을 발사하게 된다”고 발표, 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통보’를 인용, “동해위성발사장에서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운반로켓 ‘은하-2호’로 쏘아올리기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며 “위성은 곧 발사하게 된다”고 소개

● 리태남 평남도 黨책임비서 경질된 듯(4/3, 연합)

- 북한이 3월 말 사망한 홍성남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겸 함경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의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 각 도당 책임비서가 모두 포함됐으나 유일하게 리태남 평안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만 빠져 그가 최근 교체된 것으로 추정됨.
- 홍성남 국가장의위원회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조명록 국방위위원회 1부위원장, 김영일 총리 등 당·정·군 고위 간부 36명으로 구성, 이 위원회에는 리태남을 제외하고 홍석형(함북), 김평해(평북), 김락희(황남), 최룡해(황북), 박도춘(자강도), 리철봉(강원도), 김희택(량강도) 등 각 도당 책임비서가 모두 포함되었음. 그러나 북한 언론매체들은 그의 후임으로 볼만한 다른 인물의 이름도 거명하지 않음.
- 리태남이라는 이름은 대신 3월 22일 열린 북한 최대규모의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평남 덕천소재)의 종업원 꺾기모임에 대한 북한 매체의 보도에서 이 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등장해 그가 평남도당 책임비서에서 물러난 후 이 자리에 임명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

● 홍성남 함남도당책임비서 장례식 거행(4/2, 조선중앙통신)

- 홍성남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겸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의 장례식이 2일 평양 애국열사릉에서 국장으로 치러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장례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 등 국가장의위원회 위원과 유가족이 참석

● 北, 로켓발사 앞두고 최종입장 표명(4/2,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2일 '중대보도'를 발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 조치에 대해 "사소한 '요격 움직임'에도 지체없이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 북한의 이날 '중대보도'는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에 따른 3각 공조체제를 갖춘 한국과 미국 일본을 두루 겨냥한 가운데 특히 요격과 제재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일본을 주 과녁으로 삼았음.
- 북한 군총참모부는 북한의 로켓이 영해나 영토에 떨어질 경우 요격하라는 '파괴명령'을 내리거나 안보리 회부를 위해 주도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초점을 맞춰 일본의 요격 시 "이미 전개된 (일본의) 요격수단 뿐 아니라 중요

대상”도 보복타격할 것이라고 ‘확전 불사’ 의지도 드러냄.

- 그러나 북한군 총참모부는 미국에 대해선 일본의 요격에 대응한 자신들의 보복타격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전개된 무력을 지체없이 철수”시킬 것을 요구, 미국에 대한 이러한 ‘연성’ 언급은 미국측이 최근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인공위성으로 보인다고 요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의식
- 총참모부는 “우주공간을 평화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며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는 나라와 민족의 번영, 인류의 진보를 위한 정의로운 사업”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

● 노동신문, 선군조선 전성기 만들자(4/1,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1일 “뜻깊은 4월”을 맞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주위에 뭉쳐 “김일성조선, 선군조선의 전성기를 펼쳐나가자”고 주민들에게 호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 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어 나가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뜻 깊은 4월에 모든 일꾼, 당원, 근로자들은 장군님(김정일)의 애국의 의지와 강행군 정신을 체질화하고 강성대국 건설대전의 영예로운 참전자, 위훈자로 삶을 빛내일 비상한 사상적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 신문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김 위원장의 현지도도를 “대소한의 강추위와 삼복의 무더위도 가리지 않고 무한한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애국헌신의 강행군”이라고 표현하며 “전후 천리마대고조 시기처럼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민들을 독려
- 그러나 신문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열쇠는 자력갱생에 있다며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식·우리의 힘이 제일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예비와 잠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

● 北, 이번엔 안보리 압박(4/1,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 민주조선은 1일 ‘돌부처도 경악할 어불성설’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문제를 취급하면 “특정국가들의 손탁(손아귀)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놓는 것으로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 美정찰기 영공침범시 격추(4/1,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일 미국이 RC-135 전략정찰기를 이용,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장에 대한 공중정찰을 하고 있다며 “미제가 감히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 준비를 간섭하며 함부로 우리측 영공에 간첩비행기를 침범시킨다면” 북한군이 “가차없이 쏘아갈 것”이라고 경고
-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의 온라인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은 최근호(제272호)에서 “북한 당국은 인공위성 발사를 앞두고 전국 시, 군당 간부들에게 ‘긴장된 정세’ 사항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며 강연은 “무수단에서 발사하는 인공위성을 적대국들이 방해할 경우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소개, 소식지는 또 “(북한의) 노동적위대는 물론이고 교도대, 붉은청년근위대까지 전투 준비에 들어갔다”고 언급

● 김정일, 생일연설서 ‘강성대국’ 드라이브(3/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장군님따라 조선은 나아간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위원장이 생일 연설을 통해 “수령님(김일성)께서는 늘 우리 인민들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는데 우리는 아직 수령님의 이 유훈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며 “나는 최단 기간 안에 인민생활 문제를 풀어 우리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살도록 할 데 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반드시 관철하자고 한다”고 말했다고 전
- 신문은 또 그가 “이 땅 위에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없이 잘 사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것은 수령님의 뜻이었고 당의 의지”라며 “우리는 총공격전을 더욱 힘있게 벌려 2012년에 반드시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
- 신문은 김 위원장이 올해 초 석달동안 “강행군 또 강행군”했다며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원산청년발전소 등 주요 경제시설에 대한 그의 현지도 동선을 자세히 되풀이 설명하고 “올해의 하루를 늦추면 내일의 10년, 100년을 잃게 된다” “시간을 최대한 앞당기라” “찾으시는 곳마다 시간을 앞당겨야 한다시며 새로운(목표 달성) 시간표를 정해주는 장군님의 강행군 속도를 따라” 등의 표현을 쓰며 “대고조에 힘껏 박차를 가하라”고 독려

● 北외무성, 유엔 대북인권 결의 배격(3/30, 북외무성 대변인)

- 북한 외무성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26일 북한의 인권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 결의를 채택한 것을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30일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번 결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반공화국(북한) 결의”라거나 결의안을 공동제안한 “EU(유럽연합)와 일본이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해마다 벌리고 있는 모략책동의 산물”이라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北주민, 수백만명, 기아로 고통(4/5, 연합)

-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이 심각한 식량 위기로 굶주리고 있다고 유엔 관리가 5일 밝힘.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베이징(北京)지부의 레나 사벨리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식량 위기를 기억해주길 바란다’며 ‘다른 상황들로 인해 인도주의적 필요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당부, WFP는 잇따른 흉작으로 북한 인구의 40%가 넘는 870만 명이 몇 달 내 식량원조를 시급히 필요로 할 것으로 추정
- 지난 9월 WFP는 세계 각국에 북한을 위해 5억400만달러 상당의 식량을 원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목표량의 11%밖에 확보하지 못했음. 이는 18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으로 굶주리는 북한 주민을 돕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

● 美 구호단체, 3월 말 북한 철수(4/3, 연합)

- 북한에서 식량 배급활동을 펴 온 미국 구호단체들이 북한의 추방 지시에 따라 3월 말 모두 철수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3일 밝힘. 이 소식통은 마지막까지 북한에 남아있던 구호요원들이 3월 30~31일 모두 출국했다고 전언
- 미국이 대북지원을 2년 6개월 만에 재개함에 따라 2008년 6월부터 북한에서 활동해 온 이들 단체는 2009년 5월까지 세계식량계획(WFP)과 함께 50만t의 식량을 배급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지난 17일 북한은 로켓 발사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갈등을 이유로 미국 정부로부터 더 이상 식량 원조를

받지 않겠다고 밝히고 구호단체들에 3월 말까지 철수할 것을 요구, 외교 소식통은 구호단체들이 북한에 들여온 식량을 모두 배급하지도 못한 채 북한을 떠났다고 설명

● 北, 초등학교 신입생에 교복 공급(4/2, 조선신보)

- 북한은 1일 신(新)학년도를 맞아 모든 소학교(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과 학용품을 국정가격으로 공급했다고 조선신보가 2일 보도
- 신문은 “11년제 무료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있는 조선에서는 새 학년도를 맞으며 소학교 신입생들에게 새 교복과 가방, 학습장, 필갑, 연필, 지우개, 신발 등의 학용품 일식을 낮은(싼) 국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전통화하고 있다”고 보도
- 신문은 “새 교복은 개학 6개월 전에 어린이들의 몸치수를 잴 데 기초해 전문 피복업체들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며 교복과 학용품 공급은 각 지역의 공업품상점을 통해 진행됐다고 설명

● 北, 네덜란드서 역병에 강한 감자품종 도입(4/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은 네덜란드로부터 감자 역병에 저항이 강한 감자 품종 15t을 이달 초 도입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 방송은 북한 과학자 2명이 2008년 7월 네덜란드에 입국, 바게닝겐 대학 산하 국제식물연구소 연구팀과 합동으로 연구한 결과, 감자 역병에 저항이 강하고 북한 땅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했다며 이미 선적을 마친 새 품종의 감자가 성공적으로 재배되면 북한의 감자 생산량이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소개
- 방송은 국제식물연구소의 한 연구원의 말을 인용, 북한의 감자 생산량이 역병 때문에 50%가량 떨어졌다고 설명

라. 군사 관련

● 당국자, 로켓 2·3단계 함께 떨어져(4/5, 연합)

- 정부 고위당국자는 5일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과 관련, “로켓의 2단계와 3단계 부분이 한꺼번에 태평양에 떨어졌다고 미국측이 평가했다”고 언급

- 이 당국자는 북미방공사령부(NORAD)가 로켓의 궤적을 추적하고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전하고 “그러므로 궤도에 올라간 것은 없다”며 실패를 확인, 그는 2.3단계 로켓의 낙하지점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보다 짧았다는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위치는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2단계와 3단계 로켓의 분리여부와 로켓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는지 여부, 실패원인 등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 그는 발사는 실패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과시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평가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판단을 유보
- 이 당국자는 “우리가 계속 문제시한 것은 북한의 로켓이 위성인지 미사일 인지나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가 아니라 북한이 계속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것”이라며 발사 실패로 정부 대응이 바뀌지 않을 것임을 시사, 그는 “발사가 실패했지만 정부는 안보리 결의 채택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

● 이란, 北 로켓 발사에 협력(4/3, 요미우리신문)

- 북한이 이달 4~8일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인공위성’에 이란이 협력하고 있다는 관측이 부상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일 보도, 신문에 따르면 이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으로, 북한과 이란 양국이 핵기술과 미사일 기술을 서로 제공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것임.
-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글로벌 시큐리티의 미사일 전문가인 찰스 빅 선임연구원은 위성 촬영 사진에서 나타난 관제 시설 부근의 버스나 손님용 차량은 테헤란에서 온 사람들이 탄 차량이라고 설명, 그는 이란에는 북한을 위한 전용 엔진 시험장이 있으며 이번에 발사하려는 대포동 2호 개량형의 엔진도 이란에서 연소 실험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보도

마. 사회·문화 관련

● 北축구협회, 남북전 南당국 반복책동 산물 주장(4/5, 북한축구협회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 북한 축구협회는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전에서 북한 선수들의 배탈과 정대세 헤딩슛의 ‘노 골’ 처리 등을 남한 정부의 “반공화국(반북) 대결

- 책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남한 정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즉시 사죄할 것”을 요구,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남조선 당국과 불순세력들”의 “차후행동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여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
- 북한 축구협회는 5일 대변인 성명에서 또 국제축구연맹(FIFA)이 “경기 전 과정을 검토하고 적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이 성명은 경기 하루 전 선수단 주축인 “2명의 문지기와 공격수 정대세 선수가 구도.설사를 하면서 심한 머리아픔으로 침상에서 일어설 수 없는 사태가 빚어졌다”며 “의심할 바 없이 그 어떤 불량식품에 의한 고의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
 - 성명은 “우리가 넣은 골은 틀림없는 득점이고 우리가 실점 당하게 된 반칙도 우리 선수가 아니라 남조선 선수의 반칙이었다는 것은 녹화물에 의해서도 확인됐다”며 “편심한 것은 분명히 남조선 불순세력들의 막후책동과 매수된 자들의 의식적이고 비열한 행위로밖에는 달리 볼 수 없다”고 주장

● 김일성 생일, ‘국제예술축전’ 개최(4/5, 노동신문)

- 북한은 자신들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한 한반도 긴장 국면과 상관없이 고 김일성 주석 생일(4.15)인 ‘태양절’을 맞아 해외 예술단도 초청해 열어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준비 상황을 전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띄웠음.
- 노동신문은 5일 ‘주체의 태양송가 높이 울려 퍼질 축전도시 평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0일 평양대극장에서 성대히 개막될 제26차 4월의 봄 친선 예술축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며 축전 준비 작업이 “마감단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
- 신문은 “이번 축전에는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예술단체들과 국제콩쿠르 수상자들과 명배우들이 전례없이 많이 참가”한다며 중국,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 몽골, 베트남, 우크라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미국, 일본 등 20여개 나라에서 수십 개 예술단과 대표단들의 예술인과 손님 수백 명이 참가한다고 설명. 특히 미국에서 ‘애니모스 밴드’와 ‘캐스팅 크라운즈’, 프랑스 실내악단, 이탈리아 여성3중창단 등이 참가한다고 신문은 전언

● 천도교 창도 기념식 개최(4/5, 조선중앙통신)

- 천도교 창도 149주년 천일기념식이 5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기념식에는 류미영 조선천도교회 위원장, 오익제 고문 등이 참석

● 평양대극장, 리모델링 완공(4/3, 조선중앙통신)

- 지난 1960년 개관된 평양대극장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3일 준공식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평양 대극장은 2008년 6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벌여왔음.
- 통신은 “면모를 일신한 대극장에는 1천300여 석의 관람석과 무대, 최신음향 및 조명설비, 여러 연습실과 분장실은 물론 편의봉사시설에 이르기까지 예술창조와 공연활동, 관람에 필요한 온갖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소개
- 준공식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준공사를 통해 “피바다가 극단과 평양대극장의 창작가, 예술인, 종업원들은 격동하는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는 명작들을 내놓는 것과 함께 예술창조와 공연활동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
- 북한은 이번에 준공한 평양대극장의 첫 무대를 김일성 주석의 생일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제2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준공식에는 김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 김기남과 강능수 문화상 등이 참가

● 北TV, 정대세 헤딩슛에 아쉬움(4/3,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4월 1일 열린 남한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5차전을 이틀 후인 3일 오후 약 1시간 정도 녹화중계
- 이날 해설로 나선 북한 축구해설의 간판인 리동규 체육과학연구소 교수는 후반 1분 남한의 골키퍼 이운재가 가까스로 건어낸 정대세의 헤딩슛 장면을 느린 화면으로 보면서 “아...득점이 된 볼이었다고 보여진다”며 안타까움을 표시, 하지만 리 교수는 곧바로 “경기장을 표시하는 선은 경기장 안과 같이 취급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이 금에 조금이라도 걸려 있으면 경기장 안이라고 보고 완전히 선을 통과해야만 아웃, 득점으로 결정된다”고 소

개하면서 골로 인정하지 않은 심판의 결정을 수용

- 리 교수는 북한 대표팀의 월드컵 진출 가능성에 대해 “이 경기에서 우리팀이 아쉽게도 져서 우리팀의 종합점수는 10점에 머물게 됐다”며 “남조선팀은 11점이지만 우리팀은 앞으로 두 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며 낙관적인 견해를 표시

● 北 각급 학교 새 학년도 개학(4/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각급 학교가 1일 일제히 개학
- 조선중앙통신은 “주체98(2009)년 새 학년도가 시작됐다”며 “전국의 학교들에서는 개학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하고 개학식장에선 교직원과 상급생, 학부모들이 신입생들을 축하해 줬다고 소개

● 北 IT수재학교·금성학원, 교사·기숙사 신축(3/31, 조선중앙방송)

- 북한 최고의 문화예술 분야 인재 양성기관이자 최근엔 컴퓨터 수재 반도 설치된 금성학원이 컴퓨터 수재반 용도의 새 교사(校舍)와 기숙사를 신축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31일 보도
- 평양 만경대구역 금성동에 있는 금성학원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부속학교로, 의무교육 과정인 4년제 인민반 및 6년제 중등반 과정과 함께 4년제의 전문부를 두었음.

2 대외정세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유엔 안보리 ‘北로켓’ 1차 협의 종료(4/6, 연합)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1차 비공개 협의가 5일 오후 6시(현지시간) 종결, 5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의 협의에서 안보리는 대북 규탄 회견문 작성 등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였으나 구체적인 결론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짐.

- 안보리는 6일 또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

● 유엔 안보리 6일 새벽 소집(4/5, 연합)

- 일본이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 6일 새벽(한국시간) 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열릴 예정, 유엔 한국대표부 김봉현 차석대사는 5일 “일본 측이 4일 밤 11시5분께(현지시간) 의장국인 멕시코 대표부에 팩스와 이메일, 전화를 통해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면서 “이에 따라 비공개회의가 5일 오후 3시(한국시간 6일 새벽 4시)에 열리게 됐다”고 언급
-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지난 2006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며 기존 제재안 보다 더 강도가 높은 새 결의안 채택 또는 유명무실화된 기존 제재안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됨.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주장대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이라면 ‘실질적 위협’이 되지 못한다면 의장 성명 채택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안보리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사국 간 논의를 거쳐 새로운 대북 결의를 채택할지, 의장 성명 수준의 경고로 끝낼지를 결정한 뒤 공개회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확정짓게 됨.

● 美·EU, 北 규탄 공동성명 채택(4/5, 연합)

- 미국과 유럽연합(EU) 정상들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 5일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정상회의를 가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북한이 발사한 물체를 “미사일”로 규정하고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한 행동이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
- 미-EU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한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난, 성명은 “북한은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자신들의 약속을 존중하고, 국제관계에서 인정되는 규범(norm)을 준수하며,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노력하라”고 촉구
- 성명은 “(북한이) 주장한 이번 발사의 목적에 상관없이 북한은 탄도미사일 역량개발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를 이용, 주변국 및 원거리 국가들을

위협할 능력을 스스로 갖추려는 의도”라고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가 아무런 처벌 없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엔 안보리가 보여주는 것을 포함,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는 국제사회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덧붙여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를 촉구

- 대서양 양안 정상들은 그러나 핵무기 포기를 전제로 북한을 국제사회에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음. 성명은 “미국과 EU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WMD 추구 및 주변국 위협 정책을 포기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북한을 국제사회에 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힘.

나. 북·미 관계

● 美, 北로켓발사 확인...유엔결의 위반(4/5, 연합)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도발적 (provocative)”이라고 비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힘. 그는 북한이 발사한 로켓을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시험으로 규정하고 로켓 발사 행위가 명백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 행위라는 점을 지적
- 체코 프라하 방문 중 로켓 발사 소식을 접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추가적인 도발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북한은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을 자초했다”고 언급
- 그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과 확산은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는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활동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음.
-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관련, 그는 “비핵화 달성과 긴장 완화 그리고 북한과 주변 4개국 및 미국 간의 다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틀을 제공해왔다”고 말해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 이후에도 6자회담의 틀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등 북·미관계 현안을 처리나갈 것임을 시사

● 오바마, 北, 이란 핵확산에 우려 표명(4/4, 연합)

- 유럽을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 북한과 이란의 핵 확산.

개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의 참석차 프랑스 스트라스를 방문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젊은이들과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핵확산 문제에 언급하면서 북한과 이란을 특정해 지목

- 그는 이어 런던 G20 정상회의 기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 핵무기 감축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런 연후에야 이란에 대해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라’, 그리고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더 큰 도덕적 권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

● 보즈워스, 北로켓발사 재고 기대(4/4, 연합)

-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는 3일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로켓 발사를 재고하길 촉구,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이날 워싱턴D.C.의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로켓 발사가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다를 바가 없는 도발적인 행위”라고 언급
-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만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유엔안보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응수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함.
- 그는 그러나 자신의 대북 협상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압박이 가장 생산적인 접근법은 아니며, 인센티브(유인책)를 결합해야 한다”고 밝혀 로켓 발사 이후 미국이 강경일변도로 치달지 않을 것임을 시사, 그는 미국이 로켓 발사 이후 ‘장기적인 과제’인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문제를 파트너들과 매우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은 로켓 발사에 따른 소란이 진정되면 6자회담을 재개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6자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그는 로켓 발사와 6자회담 재개 사이에 냉각기가 필요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회담이 언제 재개될지는 점칠 수 없지만,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의 모든 당사국들이 단기적인 문제(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장기과제인 6자회담 테이블에 가급적 조속히 복귀하는데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답변하고 특히 6자회담이 북한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

서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우리는 북한과 양자접촉을 계속하겠으며, 어느 때라도 (양자 대화) 채널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고 언급

-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자신의 방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이 초청할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라도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고 답변, 또 방북시 의제와 관련, “가장 중요한 비핵화 문제가 다뤄질 것이며, 이에 더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북한을 역내에 어떻게 수용, 통합시키느냐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언급

● 北, 미국이 결정하면 미군유해 발굴 재개(4/3,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명길 공사가 북한은 한국전 때 북한 지역에서 실종된 미군의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재개 여부는 미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언급
- 3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전쟁 실종자 가족협회’ 프랭크 미터스키 워싱턴지부장은 2일 열린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발굴에 관한 청문회에서 김명길 공사를 지난 1일 만났을 때 김 공사가 “유해 발굴 작업을 중단한 쪽은 미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언급, 그는 “김 공사는 한국전 때 북한 지역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의 재개는 미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고 언급

● 美, 기자억류 외교노력 지속, 안전 최우선(4/1, 연합)

- 미국은 31일(현지시간) 북한이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 2명에 대한 기소 방침을 밝힌데 대해 미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 고든 두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의 관심은 항상 미국민의 안전에 있다.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라면서 “우리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변
- 그는 ‘북한이 여기자 2명을 공정하게 기소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들이 기소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봤지만, 우리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접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계속 추구하고, 우리 국민을 도울 수 있는지 보고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

● 美, 스웨덴 외교관 통해 北 억류기자 면담(3/30, 미국무부)

-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 국적 기자 2명을 스웨덴 외교관을 통해 면담했다고 30일 밝힘. 고든 두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 주말에 면담이 이뤄졌다”면서 “스웨덴 대사관의 한 외교관이 기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났다”고 소개

다. 북·중 관계

● 中, 모든 관련국에 냉정과 자제 촉구(4/5, 중국 외교부 대변인)

-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중단 촉구에도 5일 로켓 발사를 실시, 전 세계적 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모든 당사국들의 냉정함과 자제를 촉구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북한이 실험통신위성이라며 로켓을 발사한 후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은 모든 관련국들이 냉정을 유지하고 자제해줄 것을 희망한다. 이와 함께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유지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 이어 “중국은 앞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고 주장
- 북한의 동맹국이자 경제 파트너인 중국은 지난 수 주 간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외교적인 수단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음.

라. 북·러 관계

● 北, 러시아에 로켓발사 사전 통보(4/5,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러시아에 미리 통보했다고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5일 발표,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러시아 우주 통제소에 따르면 러시아 영토 위로 날아가지 않았다.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모든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언급
- 그는 북한 위성의 궤도 진입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전하고 각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평가, 가능한 행동을 고려할 때 자제를 보일 것을 촉구
- 또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소집에 반대, 코사체프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는 군사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린 뒤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면서 전문가들만이 북한 로켓 발사가 군사용인지, 평화적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언급

- 러 당국, 인공위성 탑재 발사 확인(4/5, 인테르팍스 통신; 리아노보시티 통신)
 - 러시아 방공망이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확인했으며, 탑재물은 인공위성 임이 분명하다고 러시아 군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 세르게이 로슈차 극동지역 미사일부대 부사령관은 “로켓이 모스크바 시간으로 오전 6시32분(한국시간 오전 11시32분) 발사됐다”면서 러시아 방공 레이다가 로켓이 사정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추적했다고 소개
 - 역시 관영인 리아 노보시티 통신도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고 로켓의 궤적으로 미뤄 위성으로 확인됐다고 일본과 서방 언론을 인용해 보도, 통신은 로켓 낙하물이 일본을 비껴가면서 일본은 그 위협에서 벗어났다고 소개

- 러시아, 북한에 로켓발사 자제 재촉(4/2,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로켓 발사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 대변인은 “로켓 발사 자제는 국제 사회의 우려를 잠재우고 북핵 6자 회담에서 신뢰를 쌓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북한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그러면서 그는 “관련국도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 성급한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로켓 발사가 실제로 이뤄지기 전까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을 요청
 - 앞서 3월 27일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 차관도 북한에는 로켓 발사 자제를, 주변국에는 침착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으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4월 1일 전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발사를 자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밝힌바 있음.

마. 북·일 관계

● 日, 대북 추가 제재 착수(4/5, 연합)

- 발사 자제 촉구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에 본격적으로 착수,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관계 각국을 상대로 한 외교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
-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인공위성이라도 모든 탄도미사일 계획의 중지를 촉구한 유엔안보리 1718호에 위반된다는 입장에 따라 강력한 유감과 함께 엄중한 항의를 표한다”며 대응조치에 나설 것임을 언급
- 일본 정부는 우선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현행 대북 제재조치를 1년간 연장할 예정이며 오는 10일 열리는 각의에서 제재조치 연장을 정식 결정
- 일본은 지난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와 그해 10월 핵실험 강행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 선박 전면 입항금지와 북한산 상품 전면 수입금지, 인적 왕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현행 제재를 그동안은 6개월 기한으로 연장해왔음.
- 또 일본 정부는 “위성이라고 해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한다”는 확고한 입장에 따라 이같은 독자제재와는 별도로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 채택을 목표로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한층 더 기울일 계획

● 美日, 北발사시 안보리 새 결의안 추진(4/3, 요미우리 신문)

- 미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나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1718 결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일 보도, 신문에 따르면 유엔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새 결의안의 부속 문서로서 금융제재의 대상이 되는 북한의 기업 등 10개 단체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 미국과 일본이 작성 중인 새 결의안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2006년에 채택한 1718 결의를 엄격히 이행할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 핵심, 1718 결의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기업의 해외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금융제재도 포함돼 있지만 기업명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리스트는 없었음. 미국은

새로운 제재 대상 리스트를 정함으로써 각국에 철저히 제재를 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

-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새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이어서 의장성명이나 대언론 성명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 방안도 미국과 일본은 차선책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

● 김정남, 日정부 대응 자위 위해 당연(3/30, 후지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정남(正男)씨가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일본 정부의 행동은 자위(自衛)를 위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일본 후지TV가 31일 보도, 후지TV는 30일 중국 베이징국제공항과 마카오에서 김정남씨를 인터뷰
- 이 방송은 또 “북한이 왜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려 하는가”란 질문에 “김정남씨가 ‘모르겠다. 6자회담과, 미국과의 (직접) 대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 “김 위원장이 많이 야윈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는 “알다시피 사람은 나이가 들면 살이 빠진다. 뚱뚱한 것보다는 마른 편이 좋지 않냐. 아마 아버지가 피곤했던 것 같다. 격무 때문에”라고 말했다고 보도

바. 기타 외교 관계

● 유럽당국, 김정일 요트 구입대금 압수(4/5, 일본 지지통신)

- 유럽 금융당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가족용 호화요트 구입대금의 일부인 수백만 달러를 압수했다고 일본 지지(時事)통신이 5일 보도
- 통신에 따르면 압수된 돈은 북한 당국자가 최근 이탈리아 회사와 맺은 2척의 요트 구입 계약금으로, 출처가 불분명한데다 요트가 북한에 사치품 수출을 금지한 2006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어 차압된 것으로 알려짐. 유럽 금융관계자에 따르면 유럽 주재 북한 당국자가 구입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탈리아 이지무트사의 호화요트 95형과 105형 2척으로, 전체 대금은 2천만 달러(약 280억 원)에 달하며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감시해 온 이탈리아 당국이 이 계약을 파악, 유럽 금융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짐.

● 나토, 북한 핵 활동에 깊이 우려(4/5, 연합)

-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핵확산 활동에 우려를 나타냄.
- 나토 '맹주'인 미국의 정책과 일맥상통할 뿐 아니라 정상회의 때마다 언급 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로켓 발사를 앞둔 시점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8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4일 채택한 '스트라스부르-켈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핵 비확산조약(NPT)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명시, 나토는 선언문에서 "우리는 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핵확산 활동을 깊이 우려하며 이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라고 지적

3 대남정세

● 정부, 北로켓발사, 안보리결의위반 도발행위(4/5, 연합)

- 정부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비판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의장 자격으로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성명'을 공식 발표, "북한이 2009년 4월5일 11시30분 15초 함북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한 정보 공조를 하고 있다"고 언급
- 또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이 북한에 대해 발사 계획을 철회할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경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라고 언급

● 정부, 北 체류인원 최소화(4/4, 연합)

-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에 대비, 4일 개성공단과 금강산, 평양 등 북한 지역 내 우리 측 체류 인원을 최소화. 통일부는 북한이 예고한 로켓발사 기간(4~8일) 첫날인 이날 평양에 교류협력 등 사업을 위해 체류하던 우리 국민 81명이 항공편을 이용, 중국 베이징(北京), 선양(瀋陽)으로 각각 나왔다며 당분간 평양에는 장기간 상주해온 평화자동차 관계자 1명만 남게 됐다고 밝힘.
- 또 이날 경의선 육로를 통해 161명이 방북하고 528명이 귀환함으로써 3일 밤까지 906명이던 개성공단 체류 인원이 4일 오후 7시 현재 540명으로 줄어들었음. 이에 따라 현재 북한 지역에는 금강산 지역 체류인원 41명을 포함, 우리 국민 582명이 체류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발표

● 정부, 민간에 방북 최소화 권고(4/3, 통일부)

-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기간을 전후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해당기간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북한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권고도 하고 있다”고 언급

● 北, 조사 끝날 때까지 접견 불가 통보(4/3, 연합)

- 북한은 3일 억류상태에서 조사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에 대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접견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측이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한 조건식 사장에게 이 같은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힘.
- 이 관계자는 “북측은 조 사장에게 남북간 합의서에 따라 유씨의 식사,잠자리,건강,신변안전 등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도 남북간 합의에 접견 허용 관련 규정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 종료시까지 접견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소개하고 “북측은 또 현재 유씨가 개성 지역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언급
- 2004년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 제10조 3항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권리’의 세부 내용은 적

시되지 않음.

● 정부, 北말라리아 방역에 15억원 지원(4/3, 연합)

- 정부는 북한의 말라리아 방역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통일부는 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북한 말라리아 방역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
- 현인택 장관은 “이 사업은 북한 주민은 물론 (북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에게도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며 “시의성을 감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언급, 안보위협 요인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4~8일 사이로 예고된 상황에서 나온 통일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인도적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 또는 협력은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한다는 정부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됨.

● 北 상하이무역대표부 대표 부인 탈북(4/2, 연합)

- 중국 상하이(上海) 주재 북한 무역대표 심 모씨의 부인 리 모씨가 최근 자식들과 함께 탈북, 남한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짐. 대북 소식통은 2일 “리씨는 싱가포르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3월 초 입국했으며 현재 다른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합동신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소개
- 리씨는 남편이 회의 참석 차 지난 1월 평양에 들어간 시기에 주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에 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짐. 상하이 북한 무역대표부는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때 논의된 뒤 설치된 것으로, 영사 업무와 무역 활동 등을 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음.
- 중국 사정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엄밀히 말해 상하이 북한 무역 대표부는 정식 공관이라기보다는 법인 형태의 기관으로, 현지 북한 주재원과 식당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며 외부에는 연락사무소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고 소개

● 北, 개성공단 남측 직원 체포해 조사(3/30, 연합)

-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를 북한의 정치 체제를 비난했다는 등의 혐의로 30일 오전 체포해 조사 중임.

-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이 직원이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북한)의 정치 체제를 비난하고 여성 종업원을 변질·타락시켜 탈북(脫北)을 책동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북한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40대 중반의 미혼 남성인 유씨는 현대아산의 기능직 계약직원으로 3년째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출입국사업부가 오전 11시50분쯤 개성공단의 우리측 직원 1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중이라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발표, 유씨는 개성공단 내 북한 보위부에서 남측 인원의 도움 없이 혼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첨부 1〉 우리정부의 北로켓발사 공식입장 [전문]

-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성명

1. 북한이 2009년 4월 5일 11시 30분 15초 함북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한 정보 공조를 하고 있다.
2. 이번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이다.
3. 더구나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대하여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
4. 그동안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은 북한에 대해 발사계획을 철회할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경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발사를 강행한데 대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5. 우리 정부는 향후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강화함은 물론 유엔 및 관련국들과의 협의하에 이번 발사에 대한 구체적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의장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첨부2〉 北 “진입 성공” 발표 [전문]

북한은 5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운반 로켓인 '은하-2호'로 “인공지구위성”인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5일 오후 3시28분 발표된 조선 중앙통신사 보도 전문)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성과적으로 발사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국가우주개발 전망계획에 따라 운반로켓 '은하-2호'로 인공 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은하-2호'는 주체98(2009)년 4월 5일 11시 20분에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 위성 발사장에서 발사되어 9분 2초만인 11시 29분 2초에 '광명성 2호'를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광명성 2호'는 40.6°의 궤도 경사각으로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운 거리 490km, 제일 먼 거리 1,426km인 타원궤도를 돌고 있으며 주기는 104분 12초이다.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에는 필요한 측정기재와 통신기재들이 설치되어 있다.

위성은 자기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

지금 위성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선율과 측정자료들이 470MHz로 지구상에 전송되고 있으며 위성을 이용하여 UHF주파수대역에서 중계 통신이 진행되고 있다.

위성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과학연구 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 실용위성 발사를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운반로켓 '은하-2호'는 3계단으로 되어 있다.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한 운반로켓과 인공지구위성은 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온 나라에 아버지 수령님(김일성)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까지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 번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이룩된 우리 나라 우주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상징하는 이번 위성발사의 성공은 총진군길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

주체98(2009)년 4월 5일 평양

〈첨부 3〉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 [전문]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과 확산은 동북아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오늘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어떤 행동도 명확히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런 도발적 행위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무시했고, 자제에 대한 명확한 요청을 거부했으며, 자신들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더 고립시켰다.

우리는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기 위해 일본, 한국을 포함한 역내 동맹국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즉각 협의를 할 것이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추가적인 도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대량살상무기(WMD) 및 그 운반 수단의 확산을 막는 것은 우리 행정부의 높은 우선 순위다.

미국은 동북아 안보와 안정 유지를 전적으로 다짐하며, 6자회담을 통한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6자회담은 비핵화를 달성하고 긴장을 줄이며 북한과 주변 4개국 및 미국 간의 다른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길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추구를 포기하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지 않는 한 편입되는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첨부 4〉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발사 일지

- ▲ 1975 = 중국서 액체연료 사용 탄도미사일 DF-61 구입해 미사일 연구 시작
- ▲ 1981 = 이집트서 24기의 스커드 B형(R-17E) 미사일 및 발사대 도입해 모방생산 착수
- ▲ 1984 = 스커드 B형 복사형인 사거리 280km의 개량형 스커드 A형 개발 및 발사시험
- ▲ 1985 = 사거리 320~340km의 개량형 스커드 B형 미사일 개발
- ▲ 1989 = 사거리 500km의 스커드 C형 미사일 개발
- ▲ 1993.5 = 중거리탄도미사일 '노동 1호' 동해상 발사(사거리 1천300km 추정)
- ▲ 1998.8 = '대포동 1호' 발사(북한은 '광명성 1호' 인공위성 발사 주장. 사거리 1천 800~2천500km, 무게 25t으로 추정되는 3단식 미사일)
- ▲ 1999.9 =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선언(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한다는 북·미 합의 결과)
- ▲ 2001.5 = 김정일 국방위원장, 유럽연합(EU) 의장국 대표 자격으로 방북한 요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에게 "2003년까지 시험발사 유예하겠다"고 천명
- ▲ 2002.9 = 북·일간 평양선언에 "북한은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사일 발사 보류를 2003년 이후로 더 연장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 삽입
- ▲ 2003.2 = 동해안에서 동해상으로 사거리 100km인 중국제 실크웜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 ▲ 2003.3 = 동해안에서 동해상으로 사거리 100km인 중국제 실크웜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 ▲ 2003.4 = 서해상에서 육지로 사거리 60km의 실크웜 미사일 시험 발사
- ▲ 2003.10 = 동해안에서 동해상으로 중국제 실크웜 추정 지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
- ▲ 2004.5 = 북·일 제2차 정상회담에서 북·일 평양선언(2002.9) 내용 재확인
- ▲ 2005.2 = 美 중앙정보국(CIA) 포터 고스 국장 "핵무기 크기의 탄두를 탑재한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 ▲ 2005.3 = 北외무성 비망록 "2001년 부시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조(북)·미 사이의 대화 가 전면 차단됨에 따라 미사일 발사 보류에서도 현재 그 어떤 구속도 받는 것이 없다"고 주장

- ▲ 2005.5 = 北, 동해상에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인 KN-02 발사
- ▲ 2005.6 =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북한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에게 “미국과 수교하고 우방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한 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미사일만 가지고 장거리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다 폐기하겠다”고 밝혔다고 정 장관이 전함.
- ▲ 2006.3 =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기 발사(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의 개량형인 KN-02과 유사형)
- ▲ 2006.5 = 日언론, 북한 대포동 2호 시험발사 준비 보도
- ▲ 2006.6.12 = 美관리 “北 ICBM 조만간 시험발사 가능성” 언급
- ▲ 2006.7.5 = 대포동 2호 1기를 비롯 노동 및 스커드급 등 총 7발 발사
- ▲ 2007.5.25 = 동해상으로 사거리 100km의 단거리미사일 1발 발사
- ▲ 2007.6.7 = 서해상으로 사거리 100km의 단거리미사일 2발 발사
- ▲ 2007.6.19 = 동해상으로 사거리 100km의 단거리미사일 1발 발사
- ▲ 2007.6.27 = 동해상으로 사거리 100km의 KN-02 단거리미사일 3발 발사
- ▲ 2008.3.28 = 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미사일 수발 발사
- ▲ 2008.5.31 = 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미사일 3발 발사
- ▲ 2008.10.8 = 서해상에서 단거리미사일 2발 발사
- ▲ 2009.4.5 = 北, 오전 11시30분 15초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 발사

〈첨부5〉 北 로켓관련 입장 발표 일지

- ▲ 2.24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 로켓 ‘은하 2호’로 쏘아올리기 위한 준비사업이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
- ▲ 3.9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위성에 대한 요격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위력한 군사적 수단에 의한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대답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 “평화적 위성에 대한 요격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고 주장
- ▲ 3.12 =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들에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이 통보되었다”고 발표. 실제로 4월 4~8일 사이에 ‘광명성 2호’를 발사하겠다고 IMO에 로켓 궤도좌표와 함께 통보
- ▲ 3.24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자신들의 “평화적” 로켓 발사에 대한 “적대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름으로 이뤄진다면 안보리가 “9.19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이고 “9.19공동성명이 파기되면 6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도 의의도 없어지게 된다”고 6자회담 불참을 경고
- ▲ 3.26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을 갖는 형식으로 안보리에서 “단 한마디라도 비난하는 문건 같은 것을 내는 것은 물론 상정 취급하는 것 자체가 곧 우리에게 대한 난폭한 적대 행위”라며 불능화 조치의 원상복구는 물론 “필요한 강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위협
- ▲ 3.30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이유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참여한다면 이는 대북 “선전포고”라며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 4.2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중대보도’를 통해 “고도의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평화적 위성에 대한 사소한 ‘요격’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지체없이 정의의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

04.06-04.12

4월
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첨부> 北 김정일 3기체제 주요간부 명단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왼발 절며 등장(4/9,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일 열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에서 왼쪽 다리를 가볍게 절긴 했으나 10보가량 걸어 등장하고 양팔을 들어 박수를 침으로써 2008년 8월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졌다가 회복한 뒤 가장 '역동적인' 모습을 보임. 조선중앙TV가 9일 오후 녹화 방송한 화면에서 김 위원장은 회의 개막에 앞서 무대 오른쪽에서 등장, 주석단 중앙까지 약 10보 걸어 입장
- 한때 마비가 왔던 것으로 알려진 왼쪽 다리를 약간 절었으며 와병 이전의 '활보' 모습은 사라졌으나 양팔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입장, 주석단에 선 채 양팔을 가슴께로 올려 왼손을 밑으로 해 오른손을 움직여 박수를 쳤음. 역시 한때 마비됐던 것으로 알려진 왼손은 다소 통통하게 부은 기가 있으며, 왼손으로는 손가락을 구부려 물건을 잡는 동작을 하지 않았음. 그는 탁자의 서류를 읽을 때도 오른손으로만 넘기고 왼손은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은 채 주로 탁자 위에 올려놓은 장면이 많았음.
- 그는 회의 진행중 의자에 앉아 회의장을 둘러보면서도 시종일관 무표정한 모습이었고, 살이 많이 빠진 때문인지 나이(67세)에 비해 늙어 보임.
- 이날 회의에 앞서 북한의 조선중앙TV는 9일 오후 6시부터 약 40분동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여러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주체 98.1)'라는 제목의 기록영화를 통해 김 위원장의 올해 1월 현지도 모습도 동영상으로 공개, 이 영화에서 김 위원장은 1월5일 원산청년발전소를 현지 지도할 때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3보가량 걷는 장면이 정면에서 잡혔는데, 여기에서도 그는 오른발을 디딜 때는 자연스러운 데 비해 왼쪽 다리는 곧게 편 채 옮겨 걸어 다소 부자연스런 모습을 나타냄.

● 北, 김정일 동영상 공개, 왼팔 이상 뚜렷(4/7, 조선중앙TV)

- 북한이 7일 김정일(68) 국방위원장의 와병 이후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처음 공개, "조선중앙TV가 김 위원장이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진 작년 8월

이전의 모습과 병상에서 일어나 활동을 재개한 11~12월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방송

- 김 위원장은 활동 재개 초기 왼팔을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왼팔을 활발하게 움직임. 김 위원장은 12월 초 자강도 현지도도 때는 왼손을 약간 흔들어 컴퓨터 자판을 치는 모습을 흉내내기도 했다고 했음.
- 와병 이후 화면은 와병 전과 달리 김 위원장이 활발하게 걸어 이동하는 모습을 일절 비추지 않아 왼쪽 다리가 불편해 걷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추정됨.

● 김정일, 지휘소 찾아 발사 전 과정 관람(4/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6일 새벽 “김정일 위원장이 5일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아 광명성2호 발사 전 과정을 관찰했다”고 보도, 김 위원장은 이날 “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한 데 대만족을 표시”하면서 “우주 공간의 정복과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고 통신은 보도, 이날 시찰엔 로켓 개발을 담당할 전병호 노동당 군수공업담당 비서,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동행

※ 북한이 로켓 발사 당일 김 위원장의 행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1998년의 경우 김 위원장은 로켓 발사 4일 뒤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2006년에는 무더기 미사일을 쏜 뒤 한 달 동안 은둔했었음.

나. 정치 관련

● 장성택, 3월에 유럽 3국 극비 방문(4/12, 연합)

-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3월 초·중순에 걸쳐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3개 나라를 비밀리에 순방한 것으로 확인,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12일 “장 부장이 3월초부터 중순 사이에 프랑스 등 3개국을 극비리에 다녀왔다”며 “방문 목적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소개
- 그러나 그의 방문기간과 방문국을 볼 때 최근 이탈리아에서 사건이 불거진 김 위원장 가족용 호화요트 구입을 위한 거래, 지난해 8월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졌던 김 위원장을 치료한 프랑스 의료진 면담 등의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음.

- 그는 특히 이탈리아 방문기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994년 방북해 김일성 주석 부부를 만났을 때 함께 타고 대동강과 평양을 둘러봤던 요트가 남아 이번에 최고급 호화요트로 교체하는 사업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짐. 북한은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은행 계좌를 통해 이탈리아의 요트 구입 중개업자에게 송금했지만 이러한 돈 흐름이 유럽의 금융당국에 추적당해 돈만 날린 채 요트는 구입하지 못했음.
-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 사람들이 그동안 유엔 결의 1718호에 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층을 위한 물품거래가 외국 정보기관에 별로 들키지 않고 진행되자 긴장이 느슨해지는 바람에 현금 거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번에 은행거래를 했다가 걸린 것”이라고 풀이
- 장 부장은 이탈리아 방문중엔 김일성 주석 때부터 평양을 드나들며 북한 최고위층과 친분을 다져온 이탈리아 사업가 장카를로를 만난 것으로 알려짐. 장카를로는 특히 방북할 때마다 김정일 위원장의 비밀파티에 참석할 정도로 김 위원장 및 장 부장과 절친한 사이며, 장 부장도 이탈리아를 방문할 때마다 그의 집에 초대되는 것으로 전해짐.
- 장 부장은 프랑스 방문에선 프랑스 의료진을 면담해 최근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료진의 소견과 처방 등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

● 김영춘, 혁명의 수뇌부 사수 강조(4/11,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위대한 영도자를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은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끝없이 변영할 것이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고 김 위원장 재추대는 “일대 정치적 사변”이며 “전민족적 대경사”라며 전 주민이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혁명의 수뇌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해야 한다고 지적
- 신문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적 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며 방위력을 비롯한 전반적 국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조직 영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대표하는 성스러운 중책”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재추대를 통해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우리식의 국가기구 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양”되고 선군정치를 실현할 “영원한 주권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주장

- 북한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할 것을 촉구, 그는 이날 평양 전승광장에서 열린 김 위원장 재추대 인민무력부 경축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라면서 “우리는 혁명의 수뇌부를 노리는 원수들의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오증흡7연대칭호 쟁취운동’을 더욱 실속있게 벌여 전군을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 대오, 오늘의 오증흡7연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1일 보도

● 김기남, 군사적 억제력 계속 강화 주장(4/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 비서는 10일 미국과 남한의 대북 대결정책으로 위기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군사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그는 이날 김일성광장에서 10만 평양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평양시 경축대회 보고에서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감히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대응타격으로 침략자들에게 만회할 수 없는 참패를 안기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 이 성취하고야 말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 “당의 선군혁명 노선을 틀어쥐고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데 계속 큰 힘을 쏟으며 온 사회에 군사중시 기풍을 튼튼히 세우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전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짐으로써 그 어떤 침략자도 우리의 신성한 조국 땅을 단 한치라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

● 北, 과학·문화·체육 유공자에 표창(4/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박혜정 유도감독을 비롯해 과학·문화·체육 분야의 유공자들에게 ‘김일성상’을, 공로있는 군 장성과 기관 책임자들에게 ‘김일성훈장’을 각각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

※ 북한에서 김일성상은 과학·문화·체육부문에서 기여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김일성훈장은 간부들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상훈임.

- 이번에 ‘김일성상’을 받은 박혜정은 북한 여자역도대표팀 감독으로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박현숙을 키워내 2008년 ‘올해의 감독상’을 받기도 했으며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낸 리성희도 지도, 특히 박 감독의 부친은 박명철 전 체육지도위원장으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국방위원회 참사로 승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
- 같은 상을 받은 류하률은 만수대창작사 인민예술가이며, 홍완태는 농업성 가금생물약품연구소 분소장임.
- ‘김일성훈장’을 받은 로길중은 강원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원도 원산청년발전소 건설을 주도했으며 지난 1월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도 때 현장에서 영접했음. 같은 훈장을 받은 강기섭은 민용항공총국장이며 지역직은 세관총국장, 최대일은 군 중장(우리의 소장)임. 또 박해국은 군 소장(우리의 준장)으로 자강도 지역 주둔 부대를 맡아 이 지역 중소형발전소 건설에 기여했으며 석덕환은 함경남도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를 담당했음.
- 이외에도 성중철, 유일역, 박성춘, 엄덕호, 최만수 등이 ‘김일성훈장’을, 리석수, 김용남 등이 ‘김일성상’을 받았으나 직책 등은 확인되지 않음.

● 北김일성 생일 문화행사 개막(4/10, 조선중앙통신)

- 김일성 주석의 97회 생일(4.15)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제2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10일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막식에서 강능수 문화상은 “자주, 평화, 친선의 송고한 이념 밑에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들이 민족예술 창조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을 나누며 인류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
- 이번 축전은 평양대극장과 동평양대극장, 모란봉극장,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음악당, 청년중앙회관, 윤이상음악당, 국립연극극장, 중앙노동자회관, 평양교예극장 등에서 진행

● 北대의원 중 노동자 비중 30%서 10%로 격감(4/10, 연합)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의 연령이 11기 대의원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간 많아진 것으로 나타남. 북한의 김국태 대의원자격심사위원장이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보고한 대의원 687명의 구성 내용을 11기 때와 비교한 결과 35세 이하의 경우 11기 때는 2.2%였으나 12기에서는 1%로 낮아진 반면 56세 이상은 47.7%에서 50.5%로 2.8% 포인트 많아졌다. 36~55세도 50.1%에서 48.5%로 줄어들었음.
- 특히 여성 대의원의 숫자가 10, 11기에 비해 30여명 감소한 것으로 드러남. 10, 11기 모두 남녀 비율이 79.9%대 20.1%였지만 12기에선 남성 84.4%, 여성 15.6%로 남성 비중이 많아짐.
- 직업별로 보면, 10, 11기때 각각 31.3%, 33.4%로 3분의 1가량 차지했던 노동자 출신 대의원이 12기때는 10.9%로 격감, 이에 비해 12기 대의원중 군인 비율은 16.9%로 노동자 대의원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 북한의 '선군정치'를 반영, 농업인인 협동농장원의 비율은 10, 11기 모두 9.3%였고 12기에서도 10.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
- 학력 면에서 대졸자가 10기 85%, 11기 91.9%, 12기 94.2%로 점차 고학력 화하고 있으며, 훈장이나 '영웅' 칭호를 받은 대의원은 10기 63.8%, 11기 48%, 12기 42.4%로 점차 줄어드는 대신 교수나 박사, 과학자, 전문가들이 10기 64.5%, 11기 89.5%에서 12기때는 90.4%를 차지해 증가추세를 나타냈음.

● 北, 내각서 민경협 제외(4/10, 연합)

-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을 담당하던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의 정운업 전 위원장이 비리혐의로 낙마해 공석임에도 새로 위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이 기구를 내각에서 제외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 전망에 비춰 긍정적이지 않은 신호라는 평가, 북한이 2008년 대남 경제협력을 통합관리해온 내각 산하 민경협을 폐지하고 민경협 산하 민족경제연합회(민경련)를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로 옮기는 등 대남 경협기구와 조직을 축소·개편했다는 소문이 제기됐는데, 이번 회의 결과는 그 소문에 근거가 있었음을 입증

- 김정일 국방 위원장 재추대, 장성택도 국방위원에 임명(4/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9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어 '2인자' 장성택(63) 노동당 행정부장을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또 김정일(68) 국방위원장을 재추대했고 11년 만에 헌법을 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그러나 9일 오후 11시 현재 개헌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김 위원장은 1993년 4월 처음 국방위원장에 추대된 이후 1998년과 2003년에 이어 국방위원장만 '4선(選)'을 기록, 북한은 이날 김 위원장의 매제이자 안보부서(보위부·검찰 등)를 총괄하는 장 부장을 포함해 장거리로켓 발사의 주역인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주상성 인민보안상(경찰청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수석 부부장(부장 승진 추정)을 국방위원회에 새로 임명, 이로써 9명이던 국방위 구성원은 13명으로 늘어났음.

- 北, 최고인민회의 개최(4/9, 연합)
 - 지난달 새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된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1차회의가 9일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
 - 조선중앙TV는 평일엔 오후 5시 방송을 시작하는 것과 달리 9일은 오전 9시부터 김 위원장의 지도력을 찬양하는 현지지도 기록영화 등을 방영하는 등 축제분위기를 띄움.
 - 노동신문은 9일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역사적 전환을 안아오게 될 의의깊은 회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1차 회의를 "공화국의 번영과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라며 "공화국 정권을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어나가는 혁명정권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회의"라고 규정
 - 신문은 이번 회의는 자주강국, 정치군사강국, 강성대국 총진군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영도"를 강조하면서 "강위력한 국방력은 선군조선의 자주권이고 생존권이며 당의 선군혁명 영도를 받드는 여기에 공화국 정권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길이 있다"며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방사업을 국사 중의 제일 국사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주문
 - 이 신문은 또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데 모를 박고 모든 사업을 조직, 전개

해 나가야 한다”며 “온 사회에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워 전체 인민이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군사’ 부문을 2003년 제11기 1차회의 때보다 강조

● 北, 日로켓부품 수색, 자주권침범 경고(4/8, 인민군 총참모부 보도)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8일 ‘보도’를 통해 일본정부가 북한이 발사한 로켓의 낙하물 회수에 나선 것은 “자주권을 침해하는 도발행위”라며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
- 총참모부는 “피해망상증에 걸려 우리가 위성을 쏘아올리기도 전에 ‘위성을 발사’했다는 허위보도를 날려 세상사람들을 웃기고 망신을 당한 일본반동들이 이제는 주제넘게 우리의 위성운반체에서 분리된 부분품을 찾겠다는 그 자체가 우주로 날아오르는 위성을 ‘닭쫓던 개 울바자 쳐다보듯’이 보고만 있어야 했던 가공한 처지의 발로(발현)이며 시궁창에 처박힌 제놈들의 체면을 조금이나마 세워보려는 가소롭고 어리석은 짓에 불과하다”고 비아냥

● 北, 성과적 발사 환영 군중대회 개최(4/8,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이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시민 10여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의 “성공적 발사”를 환영하는 대규모 군중대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최태복 비서는 보고에서 ‘광명성 2호’의 발사는 북한의 “존엄과 불패의 국력을 과시한 민족사적 대경사이며 강성대국 건설에서 승리의 포성을 울린 역사적 사변”이라며 오는 2012년을 앞두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첫 포성”을 울린 것에 이번 발사의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대내적 의미를 강조
- 그는 이번 발사는 북한의 “주체공업의 위력과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과시하고 “강성대국 건설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것을 뚜렷히 실증”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신심과 낙관을 안겨주고 있으며 그들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 제끼기 위한 최후 돌격전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고 주장

● 北장성택, 김정일수행 빈도 급증(4/8, 통일부)

-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수행하는 빈도가 최근 급

증한 것으로 8일 확인,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정일 위원장)수행인물 중 전에 안 나왔는데 빈도가 많이 는 사람이 장성택 부장”이라며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공개활동이 언론에 나온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 언론에 공개된 장성택 부장의 김정일 위원장 수행 횟수는 2007년 4차례(10월 이후), 2008년 14차례(10월 이후 9차례), 올해 들어서는 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19차례에 달한다고 김 대변인은 소개
- 통일부가 올해 1분기 북한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을 수행한 인물은 30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일 자주 수행했던 인물은 박남기 당 부장과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 비서로 각각 22차례씩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박남기 기획재정부장은 경제 담당자”라며 “(북한이) 경제에 치중하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김기남 비서는 노동당 역사연구소 소장으로 사상을 담당하는 인물이라고 소개
- 그는 “1분기에 김정일 위원장이 공개활동을 44번했다”면서 “경제가 20번으로 제일 많았고 군이 13번, 외교가 1번, 기타 대의원선거 참가나 공연 관람 등이 10번 정도가 된다”고 설명

● 北, 核불능화작업 계속 진행중(4/7, 연합)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남북, 북·미간 관계가 경색되고 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영변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정부 소식통이 7일 밝힘. 이 소식통은 “현재까지는 북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작업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 관리를 비롯한 미국의 핵전문가들이 영변 핵시설에 계속 머물면서 불능화 작업을 감독하고 있다”고 언급
- 정부의 또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8천개 폐연료봉 가운데 지금까지 7천개 이상을 제거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최근엔 대북중유지원 지연을 이유로 폐연료봉 제거 속도를 상당히 늦췄다”고 언급, 북핵 6자 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은 지금까지 영변 핵시설의 11개 불능화 조치 가운데 8가지를 마쳤으며 폐연료봉 제거작업, 연료봉 구동장치 제거, 사용전 연료봉 처리 등 3가지는 아직 완결되지 않음.
- 북한은 불능화 작업 초기엔 하루 80개의 폐연료봉을 제거하는 등 속도를

냈지만 당초 6자회담에서 제공하기로 한 대북중유 100만t 상당의 지원이 지연되는 것을 이유로 폐연료봉 제거속도를 늦춰 최근엔 주당 15개의 폐연료봉만을 제거하는 등 ‘지연술’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北, 5일 발사 앞서 美·중·러 측에는 통보(4/7, 연합)

- 북한이 5일 장거리로켓을 쏘기에 앞서 미국·중국·러시아 등에 발사 사실을 미리 통보했던 것으로 6일 알려짐.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보고, 한 참석 의원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날(5일), 사전에 미국·중국·러시아 등 3개국에 ‘대략 몇 시 이후에 발사하겠다’고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이는 북한이 IMO(국제해사기구) 등에 예고한 발사 시점(4월 4~8일)보다 훨씬 구체적인 시간대였던 것으로 전해짐. 그러나 이 의원은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발사 시점에 대해 통보받은 게 없으며, 미국을 통해 전해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다. 경제 관련

● 北, 아리랑 관람료 두배가량 인상(4/1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대집단체조 및 예술공연’이라고 자랑하는 ‘아리랑’의 올해 관람료에 대한 대폭 인상방침을 해외의 북한전문 여행사들에 통보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
- RFA에 따르면, 베이징에 있는 ‘고려관광’의 사이먼 카커럴 대표는 “북한 당국자에게서 오는 8월 재개되는 아리랑 공연의 관람료가 인상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소개, 북한이 통보한 올해 관람료는 좌석에 따라 80~300유로(미화 약 100~400달러)로 2008년 40~240유로에 비해 대폭 올랐으며, 가장 싼 좌석의 경우 가격이 40유로에서 80유로로 지난해의 2배로 상승
- 카커럴 대표는 “북한이 이번에 처음 관람료를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이는 공연 준비에 드는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나온 조치로 안다”고 밝히고 호텔 숙박비나 고려항공의 항공요금 등 다른 비용은 지난해와 같다고 언급
- 한편, 북한이 지난해 당 창건 60주년을 기념해 선보였던 집단체조 ‘조국이여 번영하라’는 올해 공연되지 않으며, ‘강성대국’ 달성 시한으로 잡고 있는

2012년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기념해 새로운 대규모 집단체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RFA는 보도

● 2009년 北예산 34억5천만 달러로 추정(4/10, 연합)

- 북한은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를 통해 밝힌 올해 예산수입 계획이 작년도 예산수입 결산금액보다 5.2% 증액됐다고 밝혀 북한돈 4천826억원(미화 34.5억 달러, 1달러=140원 적용)가량으로 추산됨.
- 북한의 신임 김완수 재정상은 이날 회의에서 2008년 예산결산과 올해 예산계획을 보고하면서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 않은 채 올해 예산 수입계획이 지난해보다 5.2%, 지출계획이 7% 늘어나게 된다고 밝힘. 또 2008년 예산 수입은 당초 계획보다 1.6% 더 많았으며, 지출은 99.9%가 집행됐다고 언급, 북한의 지난해 예산은 4천515억원으로 추정됨.
- 김 재정상은 세월에 대해, 중국의 기업소득세와 유사한 국가기업이득금 수입을 5.8% 늘려 편성하고 협동단체이득금 수입은 3.1%,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수입은 6.1%, 부동산사용료 수입은 3.6%, 사회보험료 수입은 1.6% 늘려 잡음.
- 지출계획의 경우, 작년에 비해 도시경영부문 지출을 11.5%로 대폭 늘렸고, '인민경제 선행부문(금속, 석탄, 철도운수 등)'에 8.7%, 교육부문 8.2%, 보건부문 및 과학기술 부문 각 8%, 농업부문 6.9%, 체육부문 5.8%, 경공업 부문 5.6%, 문화예술부문 3.2% 늘림.
- 김 재정상은 올해 예산 편성은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도록 수입원천을 최대한 찾아내고 비생산적 지출을 극력 줄이는 원칙에서 현실적이며 동원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 북한은 올해 국방예산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예산의 15.8%를 책정, 북한돈 762억5천만원(5억4천5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北이동통신, 3개월만에 2만명 가입(4/6, 조선신보)

- 북한에서 지난해 12월 시작된 휴대전화 서비스에 3개월만에 2만명이 가입했다고 조선신보가 6일 보도, 북한의 조선체신회사와 이집트의 오라스콤텔레콤간 합작사인 체오합작회사의 이동통신은 "음성(통화)과 단문통보문

- (SMS)”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평양시 전 지역과 평양-향산 사이 고속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신문은 소개
- 체오사의 윤광춘(40)씨는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 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 이 회사는 올해 안으로 통신망을 각 도 소재지와 지방 주요도시, 고속도로 및 철도 연선(접경)지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북한이 ‘강성대국’ 진입 시기로 내건 2012년까지 “인민들이 사는 모든 곳에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그는 설명
 - 가입 절차는 ‘봉사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비용(단말기 가격 + 가입비 50유로)과 함께 제출하면 누구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현재 판매되는 단말기의 가격은 110~240유로이며 촬영 기능을 갖춘 것도 있음.
 - 통화요금은 전용카드를 구입해 결제하며, 카드는 이용자의 통화 빈도에 따라 A(북한 돈 850원), B(1천700원), C(2천500원)의 3종류가 있음. B와 C 카드에는 각각 125분, 400분의 무료 통화시간이 제공됨. 봉사소는 지난해 12월 개통 당시엔 보통강구역의 국제통신센터 안 한 곳에만 설치됐지만 “계속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3월 중순부터 중구역에도 임시판매소를 설치, 현재 평양 시내 2곳에 설치

라. 군사 관련

- 노동신문, 광명성2호, 저고도·경사궤도 위성 주장(4/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자 ‘인공지구위성의 종류와 그 기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에 실어 발사한 ‘광명성2호’가 저고도·경사궤도 위성이라고 주장
 - 신문은 “저고도 위성은 높이가 수백m로부터 수천m이고 중고도 위성은 높이가 약 5천~2만m, 고고도 위성은 2만m 이상되는 위성”이라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는 저고도 위성에 속한다”고 소개
 - 신문은 또 “위성궤도 경사각이란 지구 적도면과 위성 궤도면 사이의 각을 말한다”며 “경사궤도 위성은 궤도경사각이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위성”인데 “광명성 2호는 경사궤도 위성에 속한다”고 설명
 - 신문은 또 인공위성의 무게에 따른 분류도 소개, 100kg이하의 극소형 위

성, 100kg~1t의 소형위성, 1t이상의 대형위성으로 구분했으나 ‘광명성 2호’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음. 신문은 용도에 따라 실용위성과 과학위성, 군용위성으로 구분하고 “실용위성은 응용분야가 넓은 위성으로 여기에는 통신위성, 방송위성, 기상위성, 지구자원탐사위성, 해양관측위성 등이 있다”며 “광명성2호는 앞으로 실용통신 위성발사와 운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사된 시험통신위성”이라고 소개

● 北로켓과학자들, 위성 정상 가동 주장(4/8, 조선중앙TV)

- 북한이 “시험통신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2호’ 개발 및 발사에 참여했던 북한 위성관제종합지휘소 과학자들은 8일 조선중앙TV에 출연해 현재도 “위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신호와 측정자료들이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 조선중앙TV가 마련한 ‘좌담회’에서 관제지휘소 부소장인 장태섭 박사는 “광명성2호는 이미 우리가 세상에 알린 것처럼 시험통신위성”이라며 “위성 안에는 필요한 측정기재들과 통신기재들이 설치돼 있다. 지금 그 기재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라고 주장
- 그는 “위성이 운반로켓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순간 위성에서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울려나왔다”며 지난 10년간 김정일 위원장의 “우주정복구상”을 받들어 투쟁한 결과라고 역설
- 최광일 실장도 “광명성2호 위성은 자기궤도를 따라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며 “지금 위성에서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선율과 측정자료들이 470MHz로 지구상에 전송되고 있다”고 거듭 주장, 박원형 박사는 “타원궤도를 따라 우리 위성은 돌고 있다”며 기존 북한의 발표대로 위성의 궤도경사각은 40.6도이며 주기는 104분12초라고 언급
- 이들 과학자는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사 당일 지휘소에 들러 발사 전 과정을 지켜본 뒤 “동무들이 이번에 큰일을 했다. 오늘 정말 기쁘다”라고 말하고 “우주의 정복과 그 평화적 이용을 위한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며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언

● 北위성관제소, 위치는 평양 룡성구역(4/7, 연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전 과정을 지켜봤다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는 평양시 룡성구역 제2자연과학원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 대북 소식통은 7일 “북한의 위성관제종합지휘소는 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 제2자연과학원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2자연과학원은 평양시 룡성구역에 자리잡고 있다”고 밝힘. 앞서 6일 정부 당국자도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난 5일 김 위원장은 평양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해 ‘위성관제종합지휘소’가 평양에 있음을 시사

- 제2자연과학원은 로켓, 미사일과 같은 유도무기 개발을 전담하는 1국, 상용무기(재래식 무기) 개발을 담당한 2국 등과 공학연구소를 비롯한 30여 개의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이중 중추인 공학연구소가 노동1호와 대포동1호를 개발했고 이후 대포동 2호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이 과학원은 1964년 6월 당시 민족보위성(현 인민무력부) 산하 국방과학원으로 출범했다가 1970년대 초 군수생산을 전담하는 제2경제위원회가 생겨 이 위원회 산하로 들어가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다시 제2경제위원회(위원장 백세봉)에서 독립돼 노동당 군수공업부에 직속되었음. 북한은 이 과학원에서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무기와 군사장비를 연구 개발하면 제2경제위원회가 생산하는 체제를 구축
- 제2자연과학원은 중장거리 로켓 연구·개발, 각종 포의 자행(自行) 자동화 실현, 군사분계선과 해안선을 완전 봉쇄할 수 있는 고성능 지뢰 개발 등을 중요 과제로 삼고 있음. 이번에 로켓을 발사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로켓 발사기지도 이 과학원 산하로 ‘농업시험소’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는 제2자연과학원, 제2경제위원회 외에 분강핵연구소(영변원자력연구단지)도 산하에 뒀 핵문제를 다루고 있음.

● 北, 발사 9분2초만에 위성궤도 진입 주장(4/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5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이 9분2초 동안 날아 위성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고 발표, 하지만 한국과 미국, 일본 정부는 “발사시각도 10분이나 차이가 나고, 위성의 궤도 진입에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혀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음.
- 조선중앙통신은 오후 3시20분쯤 긴급 보도를 통해 “은하2호가 5일 오전 11시20분 함경북도 화대군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발사돼 9분2초 만인 11시29분2초에 광명성 2호가 궤도에 진입했다”며 “광명성 2호는 40.6도의 궤도

경사각으로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운 거리 490km, 제일 먼 거리 1426km인 타원 궤도를 돌고 있으며 주기는 104분12초”라고 발표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우주항공 인재 양성 체계(4/9, 조선신보)

- 북한이 5일 “시험통신위성”이라는 ‘광명성 2호’ 발사를 전후해 자신들의 우주개발·이용계획을 강조함에 따라 북한의 우주항공 과학 수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관련 기구·제도·시설이 새로 공개, 조선신보는 9일 북한의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우주항공공학과’가 있다고 소개
- 신문이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의 발사와 잇닿아 있는 두뇌집단”이라고 설명한 이 학과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병설된 단과대학인 기계과학기술대학 소속으로, 북한 유일의 “우주공학 인재 양성 전문학과”이며 “첨단 과학의 세계적인 발전추세를 따라 앞서기 위한 국가정책”에 따라 1990년대 중엽 개설
- 이 학과의 김상운(74) 교수는 이 학과가 김책공대 재료공학부나 기계과학대학의 분사식학과 등 다른 학부, 학과들과 긴밀히 연계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엔 특히 티탄합금, 몰리부덴 등 “내열성 합금재료에 대한 연구”을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
- 이 학과 졸업생들은 “과학원의 우주기술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들, 항공분야 기술기관들과 공업부문 생산단위들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소개, 우주항공공학과 학생들은 수재중에서도 “선발된 수재”들임. 평양시와 각 도에 있는 중고교 과정의 수재학교인 ‘제1중학교’ 외에 김책공대에도 학년마다 수재반이 따로 있는데, 이 수재반중에서도 특히 뛰어난 학생들로 “공학수재반”을 별도로 구성, “최첨단 과학기술을 지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것
- 수재반 학생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학부, 학과를 선택하지만 “공학수재반” 학생들은 “대학측에서 전공과목이 제시”되고 이들은 4년간의 대학과정을 마치면 박사원에서 계속 배우게 된다고 조선신보는 설명
- 한편 지난 2월 발사 계획을 공식 발표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 때 ‘슬그머니’ 존재를 내비쳤다가 이번에 북한 당국을 대표 해 발사 계획을 발표하는 주체로 나섰다. 북한은 1998년 8월31일 ‘광명성 1호’ 발사 당일은 물론 그후에도 이 기구의 존재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음.

● 北, 다양한 모자보건 활동(4/6, 조선신보)

- 북한의 조선가족계획 및 모성유아건강협회가 올해 산간·농촌 순회 봉사과 지역별 선전물 제작 등 다양한 ‘재생산건강(모자보건) 봉사’ 활동을 펴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6일 소개
- 신문은 협회 서현철 서기장의 말을 인용, 협회의 “모든 봉사단위들”이 가족 계획, 부인과질병의 검사·치료, 신생아 건강, 임신·불임 상담, 초음파 검사, 일반의료, 실험검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
- 특히 7개의 이동봉사대가 교통이 좋지 않은 산간지대와 농촌의 주민들을 위주로 분기에 60~70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모자보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재생산건강의 다양화를 위해 봉사 가짓수와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중이라고 밝힘.
- 협회는 지난해 4만3천여 명에게 산과 및 소아과, 부인과 진료를 비롯한 일반 의료와 상담 활동을 했다고 신문은 소개

2 대외정세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안보리 의장 성명에 北제재 강화 적시(4/13, 연합)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12일 내놓은 의장성명 초안의 내용은 “예상보다도 높은 수위”(정부 당국자)를 담고 있음. 형식상으로는 ‘결의문’보다 낮은 격이지만, 중국·러시아까지 동의한 의장 성명에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고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은 당초 한·미·일의 목표치에 근접한 결과물
-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발사를 비난하면서 가장 강력한 용어인 ‘규탄’(condemn)을 사용한 것은 중국·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을 포함

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보여줌.

- 또 의장성명은 로켓 발사를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위반’(contravention)이라고 명시하며 “북한이 어떤 형태의 추가 발사도 하지 말 것을 요구”, 이는 곧 북한의 주장대로 로켓에 인공 위성을 탑재했다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이를 ‘탄도미사일 관련 실험’으로 인식한다고 밝힌 것으로 앞으로는 어떠한 형태의 로켓 발사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
- 의장성명은 새로운 제재를 담진 않았으나 1718호에 지정된 무기금수와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 3가지 대북 제재 조치 중 지금까지 사실상 사문화상태였던 자산동결과 여행금지의 구체적 타깃 리스트(대상 목록)를 작성토록 했음. 다만 1718호에 ‘개인과 단체’로 돼 있는 대상 목록 중 ‘개인’은 빠졌음.
- 의장성명이 채택되더라도 타깃 리스트 선정을 두고 다시 한번 마찰을 빚을 소지가 다분, 대상 목록이 구체적으로 작성됐다 해도 이에 대한 각국의 이행여부를 정교하게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 이미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거미줄처럼 얽여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북한이 얼마나 추가적인 타격을 받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음. 안보리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지만, 북한이 강력 반발할 경우 당분간 6자회담은 물론, 북한과의 어떤 협의도 진행되기 어려운 냉각기가 조성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안보리 주요국 對北 의장성명(4/12, 연합)

- 북한 로켓 발사에 대응해 유엔 차원의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 6개국(5개 상임이사국+일본)이 11일(현지시간) 의장성명을 채택키로 하는데 합의,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은 이날 낮 유엔본부에서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음. 존 소여스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2시간 가까운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의장 성명 채택에 합의했다고 밝힘.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의장성명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언급
- 그동안 결의안 채택을 주장해왔던 일본의 다카스 유키오 대사도 5개 상임이사국과 의장성명에 합의했다고 밝혀 일본이 의장성명을 수용했음을 설명

- 안보리는 주요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 대응책으로 의장성명을 채택기로 합의함으로써 12일 오후 15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비공개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리할 예정

● 北, 유엔에 '인공위성' 미통보(4/10, 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 로이터통신)

-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엔의 규정에 따른 인공위성 관련 통보는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미셸 몽타스 유엔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까지도 유엔 외기권사무국(UN-OOCA)이 북한으로부터 외기권조약이나 우주물체등록협약에 따른 정보를 받은 것이 없다”고 밝힘.
- 앞서 북한은 3월 10일 외기권조약 및 우주물체등록협약 가입 이후 뉴욕과 빈의 북한 유엔대표부를 통해 가입국의 의무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외기권사무국을 접촉한 적이 있다고 몽타스 대변인은 언급
- 북한은 로켓발사에 앞서 준비작업의 하나로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발사예정일과 시간 등 관련자료들을 지난달 11일 통보했지만, 인공위성과 관련한 우주 관련 조약에 따른 사후통보 절차는 밟지 않고 있는 것임.
-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산자이 아차리아 대변인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인공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을 보지도 못했고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일축
- 로이터 통신은 유엔이 인공위성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은 박덕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7일 북한의 인공위성 등록 여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등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보도

※ 외기권조약은 제11조에서 ‘당사국은 외기권 활동의 성질, 수행, 위치 및 결과를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로 일반 대중 및 국제적 과학단체뿐만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는데 동의한다(agree to)’고 규정하고 있고 우주물체등록협약은 제4조에서 ‘발사국, 발사일시, 발사지역, 발사 위치, 기본 궤도 요소, 우주물체의 일반적 기능에 대해 유엔사무총장에게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성 발사 ‘전에’ 정

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따로 없고, 국가들은 보통 인공 위성을 발사하고서 한참이 지난 사후에 외기권조약이나 우주물체등록 협약에 따라 유엔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짐.

● 안보리 주요 6개국 ‘北로켓 협의’ 재개(4/10, 연합)

- 이틀간 공전됐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로켓 대응방안 협의가 9일 오후 5시(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재개, 한국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와 일본이 참여하는 6개국 비공식 협의가 유엔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힘.

● 국제통신기구, 北위성·전송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4/9,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북한의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가 궤도 진입에 성공해 노래 등을 전송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을 보지도 못했고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일축
- ITU의 산자이 아차리아 대변인은 9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듣고 있다는 그 방송을 누가 감시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도 못 들었을 것이고 우리도 듣지 못했다”고 설명, 그는 북한이 인공위성의 전송에 이용한다는 주파수 470MHz를 ITU가 배정한 적도 없다고 말하고 배정하지 않은 주파수로 “다른 위성의 전파를 방해하면 회원국의 신고가 바로 들어오지만 지금까지 북한 위성 에 관한 회원국들의 신고나 보고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밝힘.
- 이어 그는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로켓이 저궤도 위성(low orbit satellite)일 가능성도 있지만 저궤도 위성은 정상적인 전송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위성이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지구로 보내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

● 안보리 회의 소집, 결의 1718호 위반(4/5, 연합)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 오후 3시(서울시각 6일 오전 4시) 회의를 열어 북한의 로켓 발사가 2006년 10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임을 재 확인하면서 대응방안을 논의
- 체코 프라하를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Obama) 미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도발적 행위(provocative act)’로 규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과 확산은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은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을 자초했다”고 언급

나. 북·미 관계

● 美, 분명한 대북 메시지 강조(4/13, 연합)

- 미국은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 합의는 국제사회가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11일(현지시간) 의장성명 초안에 합의한 직후 “(의장성명 내용이) 매우 강하다”면서 “국제법 위반이 별 탈 없이 지나가지 않고 결과를 낳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 또 “(로켓) 발사가 유엔 결의에 위배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이번 성명이 기존의 대북 제재를 보강하고 사실상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 미국 주요 언론은 12일 유엔 안보리에서의 의장성명 채택 합의에 대해 “타협”이라고 평가

● 라이스 美대사, 美, 강력한 대북제재 원치 않아(4/6, CNN, CBS 방송)

- 미국은 유엔에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분명하고도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6일 밝힘. 라이스 대사는 이날 미 CNN,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지도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도 이 같은 행동을 벌일 수는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하려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대북 결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
- 라이스 대사는 “북한을 6자 회담이라는 건설적인 협의체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외교적 노력과 압력을 조화시켜야 하는지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논의의 목표는 지역 안보와 국제 평화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에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

● 北억류 여기자 신속석방 기대(4/5, ABC방송)

-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5일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들이 재판에 회부될 어떤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 이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석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라이스 대사는 ABC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 2명의 안전하고 신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어떤 이유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는 그들의 석방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다”고 언급
- 라이스 대사는 또 북한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스웨덴대사관과 협력해 미 행정부가 “그들의 안전과 신속한 석방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

다. 북·중 관계

● 中,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무산에 만족(4/12, 연합)

-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제재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것에 일단 만족스럽다는 반응, 장예수이(張業遂)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11일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비공식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결의안 채택 불가’라는 중국의 기존 입장이 관철된 것”이라고 언급, 장 대사는 이어 “우리는 다음주 의장성명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중국은 안보리의 대응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 6자회담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
- 그는 “우리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이 신중하고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면서 “우리는 건설적이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이번 회의에 참여했다”고 언급

● 中, 北로켓 대응 ‘냉정과 자제’ 당부(4/11, 중국신문사)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11일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 6자회담 재개, 한반도 비핵화라는 관점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 중국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는 원 총리가 ‘아세안+3 정상회

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태국 파타야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

- 월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보이고 있는 반응도 당연히 적절하고 적당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관련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당부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

● 中후진타오, 北김정일에 북중관계 강화 축전(4/11, 조선중앙통신)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된 김정일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 후 주석은 축전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다시 추대된 것은 조선인민의 충심으로 되는 지지와 높은 신뢰의 표시”라고 축하했다고 소개됨.
- 후 주석은 이어 “중·조(북) 선린우호협조 관계를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일관한 방침”이라며 “중국측은 중·조 외교관계 설정 60돌과 중·조 ‘친선의 해’를 계기로 중·조 선린우호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선측과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中, 北제재는 비핵화에 도움 안돼(4/9, 연합)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이 더욱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존 매케인 미국 상원의원의 지적에 대한 중국의 논평을 요구받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압력과 제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
- 장 대변인은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안보리 이사국의 단결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유지, 6자회담 추진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외교적 방식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라. 북·러 관계

● 러, 北 제재하면 6자회담 심한 손상(4/9, 리아 노보스티 통신)

- 북한의 로켓 발사 대응 방안을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합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9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몇몇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결의안을 추진하는데 러시아는 그런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현존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 1718호도 충분하다”라고 밝힘.
- 그는 “더 엄한 제재는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6자회담에 치유할 수 없는 손상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을 더 고립시키고 더 분노하게 할 것이며 이는 부적절한 보복 조치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강조, 그러면서 그는 “가정 적절한 대응은 안보리 의장 성명일 것”이라며 “우리는 그 성명을 통해 로켓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에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임.
- 그는 특히 북한의 로켓 프로그램 중지를 위해 러시아 영토에서 위성 발사를 허락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러시아는 북한 로켓 발사에 평범하지 않은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그러한 제안에 관심을 둘 것이며 북한과 모든 관련국이 동의한다면 실행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

● 러, 北 위성 궤도 진입 실패(4/6, 인테르팍스 통신)

- 북한이 5일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우주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6일 러시아 민영 인테르팍스 통신이 러시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 이 관계자는 “우리의 우주 감시 시스템이 북한 위성의 우주 궤도 진입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위성은 거기(궤도)에 없다”고 설명
- 미군 북부사령부(USNORTHCOM)는 전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어떤 물체도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음.

마. 북·일 관계

● 日, 대북 수출 전면금지 보류(4/9, 연합)

- 일본 정부는 9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독자적인 추가 제재 조치의 하나로 검토했던 북한에 대한 수출 전면 금지를 일단 보류, 이는 일본의 대북 수출액이 연간 수억엔 정도로 적으니까 제재에 따른 효과가 별로 없다는 판단에 기인
- 대신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송금액 보고 대상을 현재의 3천만엔 이상에서 1천만엔 이상으로 확대하고, 북한 방문자가 소지하는 현금의 신고 액수 기준을 현재의 100만엔 이상에서 30만엔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방침, 정부는 10일 각료회의에서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의 현행 대북제재를 1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할 계획, 송금액 규제 등은 정부령으로 정하기로 함. 다만, 대북 송금 규제의 경우도 제3국을 경유할 경우엔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국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바. 기타 외교 관계

● 베트남, 北 식량생산 돕겠다(4/9, 베트남 외교부; 4/10, 연합)

- 베트남은 극심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베트남 외교부가 9일 밝힘. 르 둥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과의 정기 브리핑에서 “베트남은 북한의 광업과 식량 생산을 도울 용의가 있다”고 언급
- 이에 앞서 베트남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리명산 북한 무역성 부상이 자국을 방문,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베트남으로부터 더 많은 원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힘.
- 한편, 공산주의 국가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국인 베트남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관련국들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길 바란다”고 언급

● 나토, 北 로켓발사는 무책임하고 도발적 행위(4/9, 연합)

- 나토는 8일 회원국 대사급이 참석한 가운데 북대서양위원회(NAC) 회의를 갖고 북한의 로켓 발사를 “무책임하고 도발적 행위”로 규정,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 성명은 “이번 (로켓) 발사는 북한이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할 걸음 더 내디딘 것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695호와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

- 성명은 또 “북한 당국의 이처럼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행위는 지역(동북아시아)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이라며 “북한은 국제적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6자회담 틀 속에 대화를 복원하라”라고 촉구, 나토는 이와 함께 “북한은 모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연관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며 핵무기 및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되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제거하라”라고 압박

※ 나토는 이에 앞서 4월 5일 야프 데 후프 스텔페르 사무총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했으며 4일 ‘스트라스부르-켈 정상회의 선언문’에서도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명시한 바 있음.

● EU집행위, 北 고려항공, 계속 취항금지(4/8, 연합)

-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의 유럽연합(EU) 취항금지 조치가 다시 연장, 고려항공은 8일 EU 집행위원회가 수정, 발표한 역내 취항금지 항공사 리스트에서 제외되지 못했음. EU 집행위는 산하 항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차례 취항금지 항공사 리스트를 수정, 발표
- EU 집행위 관계자는 “취항금지 항공사 리스트를 작성할 때는 전적으로 항공안전을 기준으로 평가할 뿐 그 이외에 정치적, 외교적 이슈 등은 감안하지 않는다”라고 설명

● 이란, 北로켓발사 옹호, 對北협력설 부인(4/6, AP통신: AFP통신)

- 이란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모든 나라는 우주개발 권리를 갖고 있다며 북의 로켓 발사 행위를 옹호했다고 AP, AFP통신 등 주요 외신이 6일 보도
- 하산 카시카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란 정부는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평화적인 목적으로 우주를 개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우리가 우주개발 권리를 갖고 있듯이 다른 나라 역시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

- 카시카비 대변인은 이번 로켓 발사를 위해 북한과 이란이 긴밀히 협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 그는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북한의 것과는 전적으로 다를 뿐더러 독립적이라고 강조

3 대남정세

● 北, 개성근로자 올들어 2천여 명 신규공급(4/9, 통일부)

-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2천273명의 북한 근로자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신규로 공급됐다”고 소개, 신규 공급된 인력은 대부분 공단 내 생산업체들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현재 건설 근로자를 포함,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수는 총 3만9천여 명에 달함.
- 올 들어 2천명 이상 추가 투입됐음에도 작년 12월말 3만8천931명이었던 북측 근로자의 순증 폭이 그에 못 미치는 것은 작년 말 이후 공장을 신축하는 업체가 거의 없는 관계로 건설 근로자 수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통일부는 소개

〈첨부〉 北 김정일 3기체제 주요간부 명단

- 북한은 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사법부 등 각 기관의 인사를 단행

다음은 기관별 명단임.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유임)

제1부위원장: 조명록(유임)

부위원장: 김영춘(유임), 리용무(유임), 오극렬(2월 임명)

위원: 전병호(유임), 김일철(유임), 백세봉(유임), 장성택(신임), 주상성(신임), 우동측(신임), 주규창(신임), 김정각(신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유임)

부위원장: 양형섭(유임), 김영대(유임)

명예부위원장: 김영주(유임)

서기장: 최영림(유임)

위원: 류미영(유임), 강영섭(유임), 심상진(신임), 홍석형(유임), 김양건(신임), 리용철(유임), 김병팔(신임), 강창욱(신임), 로성실(신임), 변영립(유임), 태형철(유임)

〈내각〉

총리: 김영일(유임)

부총리: 곽범기(유임), 태종수(유임), 로두철(유임), 오수용(신임)

외무상: 박의춘(유임)

인민보안상: 주상성(유임)

국가계획위원장: 로두철(신임)

전력공업상: 허택(유임)

석탄공업상: 김형식(유임)

채취공업상: 강민철(유임)

원유공업상: 김희영(유임)

금속공업상: 김태봉(유임)

기계공업상: 조병주(유임)

전자공업상: 한광복(신임)

건설건재공업상: 동정호(유임)

철도상: 전길수(유임)

육해운상: 라동희(유임)

농업상: 김창식(유임)

화학공업상: 리무영(유임)

경공업상: 리주오(유임)

무역상: 리웅남(유임)
임업상: 김광영(유임)
수산상: 박태원(유임)
도시경영상: 황학원(신임)
국토환경보호상: 박송남(유임)
국가건설감독상: 배달준(유임)
상업상: 김봉철(유임)
수매양정상: 문응조(신임)
교육상: 김용진(유임)
체신상: 류영섭(유임)
문화상: 강능수(유임)
재정상: 김완수(유임)
노동상: 정영수(유임)
보건상: 최창식(유임)
국가검열상: 김의순(유임)
국가과학원장: 변영립(유임)
체육지도위원장: 박학선(유임)
중앙은행 총재: 리광곤(유임)
중앙통계국장: 김창수(유임)
내각 사무국장: 김영호(유임)
수도건설부장: 김응관(신설.신임)

〈중앙검찰소장〉 : 리길송(유임)

〈중앙재판소장〉 : 김병률(유임)

〈최고인민회의〉

의장: 최태복(유임)

부의장: 김완수(신임), 홍선옥(신임)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김국태(신임)

위원: 김원홍(신임), 지영춘(신임), 박도춘(신임), 김시혁(유임), 김영호(신임), 우두태(유임)

〈법제위원회〉

위원장: 주상성(신임)

위원: 리길송(유임), 김병률(유임), 김평해(유임), 성자립(신임), 박관오(유임), 김영일(신임)

〈예산위원회〉

위원장: 박남기(유임)

위원: 리철봉(신임), 홍서헌(유임), 계영삼(신임), 문명학(유임), 김명환(신임), 조혜숙(유임)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4.13-04.19

4월
2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및 유엔 안보리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영월발전소 현지지도(4/18,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새로 완공된 함경남도 영월발전소를 현지지도하고 앞으로도 계속 수력발전소 건설에 우선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8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수력발전소는 건설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건설해 놓기만 하면 만년대계로 될 뿐 아니라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여러모로 유리하다”며 유망한 발전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수력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할 것과 희천발전소 건설을 조기에 완공할 것을 지시
 - 그는 또 전력생산의 정상화를 위해 설비와 기술관리를 개선하고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해 발전효율을 높일 것을 강조하고 “전력생산을 늘리는 것과 함께 낭비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도중손실을 없애기 위한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언
 - 현지지도에는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와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부장, 현철해 리명수 북한군 대장 등이 수행
 - ※ 1996년 공사에 착수해 12년 만에 완공된 영월발전소의 발전 용량은 13만5천여kW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대동강 상류지역에 있어 앞으로 여름철 대동강 홍수관리용으로 사용될 전망
- 北 축포야회, 김정일 이례적 참석(4/15, 조선중앙통신: 4/16, 조선중앙TV)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 위원장이 평양 대동강변에서 열린 축포야회 ‘강성대국의 불보라’에 참석해 관람석에서 불꽃놀이를 관람했다고 보도했고, 조선중앙TV는 16일 오전 축포야회 광경을 녹화 방송, 방송에선 주체사상탑을 중심으로 대동강변 곳곳과 대동강을 지나는 배 등에서 폭죽이 계속 쏘아올려져 하늘에서 터지는 모습이 55분가량 방영
 -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 주석단에선 시종 무표정하고 경직된 표정이었으나 이날 불꽃놀이 관람 때는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음.

나. 정치 관련

● 도별 군중대회 개최(4/19, 조선중앙방송)

- 북한 평안남도, 황해북도, 함경북도, 강원도, 양강도, 황해남도 등의 도 소재지들에서 '인공위성' 광명성 2호의 '성공적' 발사를 환영하는 군중대회가 각각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9일 보도

● 4·19맞아 반미투쟁 선동(4/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4.19정신으로 매국반역의 역사를 끝장내야 한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의 논설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한은 "파쇼독재의 암흑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은 4.19 봉기자들이 지녔던 그 투쟁정신으로 결연히 들고 일어나 사대매국과 파쇼독재의 역사를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새날을 기어이 안아와야 한다"고 주장
- 또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식민지 지배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조국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며 남한의 각계각층은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 것"이라고 신문은 촉구

● 핵 억제력 더욱 강화할 것(4/19,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19일 '불공정성과 전횡의 극치, 단호한 정치적 결단'이라는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평화적 위성발사까지 문제시하며 도전하는 적대세력들의 가중된 군사적 위협"에 대처해 북한은 "부득불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
- 신문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한 것은 "불공정성과 이중기준, 전횡의 극치"라며 "유엔 안보리는 이번에 우리로 하여금 핵 억제력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실감하게 했다"고 언급
- 신문은 또 의장성명에 대해 북한 외무성이 지난 14일 '자회담 절대 불참과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엄중한 사태에 대처한 지극히 정당하고 시기적절한 자주적인 대응조치"라고 옹호하고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 최고이익 수호를 담보하는 자위적 핵 억제력을 튼

튼히 다져나갈 것”이며 “우리 공화국이 자기 존엄을 훼손당하면서까지 6자 회담에 참가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동설한에 산딸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강조

- 온라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주권국가의 정당한 자위적 대응조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6자회담이 없어지고 비핵화 과정이 파탄된 조건에서”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해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주장하고 또 북한이 “자주적인 우주이용권리를 계속 행사해나가며 6자회담의 그 어떤 합의에도 구속됨이 없이 주체적인 핵동력공업구조를 완비하기 위한 자체의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적극 검토하는 데 대해 그 누구도 시비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고 거듭 주장

● 노동신문, 南 민간단체 방북불허 비난(4/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북남관계의 완전차단을 노린 극악한 망동’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남한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전후해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민간 대북지원 단체 관계자 등의 방북을 불허하는 데 대해 “북남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범죄적 책동”이라고 비난
- 신문은 “최근 남조선(남한) 보수당국의 북남관계 차단책동이 극도에 이르고 있다”며 통일부가 민간단체들의 방북을 “인공지구위성 발사와 관련시켜 그 무슨 안전보장이니, 신변안전이니 하는 당치 않은 구실을 대며 가로막는” 조치를 취했다고 비난
- 신문은 통일부가 민간단체들의 학술교류와 인도주의적 교류협력을 위한 방북과 북남 협력사업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미 북남 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날려 보낸” 남한 정부가 “간간히 유지되어 오는 민간단체들 사이의 협력과 교류마저 근원적으로 파탄시키고 북남관계의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아버리려는 반통일적 흉계”라고 비난
- 신문은 “인공지구위성 발사와 남조선(남한) 민간단체들의 평양 방문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며 “민간단체들의 협력, 교류마저 차단된다면 이제 북남관계에서 남을 것이란 과연 무엇이겠는가”라고 주장

● 北, 국방위원회 위원 사진 모두 공개(4/10, 노동신문; 민주조선)

-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이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구성원 전원(12명)의

얼굴 사진을 실어 보도했던 것으로 16일 밝혀짐. 신문은 '김정일 3기'를 출범시킨 제12기 최고인민회의 첫 전체회의 다음 날인 10일자에 국방위 조명록 제1부위원장, 김영춘·이용무·오극렬 부위원장, 전병호·김일철·백세봉·장성택·주상성·우동측·주규창·김정각 위원 순으로 사진을 게재,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진은 1면 전면에 실음.

- 우 부부장은 국방위원 선임 직후 인민군 중장에서 상장으로 승진

● **北강성대국 건설, 젊은세대가 선봉(4/16, 조선신보; 4/7, 노동신문)**

- 조선신보는 16일 '시대적 사명'이라는 제목의 '메아리' 코너에서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에 기여한 과학기술자들이 평균 나이 30대의 수재들이라며 오는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데서 확실히 젊은 세대가 선봉적 역할을 높고(하고) 있다"고 강조

- 신문은 "지난해 새로운 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올린 강선(천리마제강의 옛 이름)의 전기로 현대화에서 주인공이 된 것은 평균 나이 25살의 청년들이었다"고 소개

- 4월 7일 노동신문은 '강성대국 대문을 두드렸다'는 제목의 '정론'에서 '광명성 2호'를 만든 과학자들이 "평균 나이가 30대인 젊은 과학자들"이라며 "광명성 1호를 성공시킨 연구집단의 1번수가 아버지라면 '광명성 2호'를 성공시킨 연구집단의 1번수는 그 아들"이라고 소개

● **간부들, 금수산궁전 참배(4/15, 조선중앙통신)**

- 김일성 주석의 97회 생일을 맞아 북한의 당·정·군 간부들이 15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들은 또 만수대 언덕의 김 주석 동상을 찾아 헌화했으며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하기도 했음.

● **北김영남, 韓·美, 전쟁 일으키면 징벌(4/14,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4일 고 김일성 주석 97회 생일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미국과 남조선 친미보수 당국의 무모한 반공화국 침략전쟁 책동으로 하여(인해)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며 남한과 미국이 "전쟁의 불집을 터트린다면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고야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

통신이 보도

- 그는 “전체 당원과 인민군 장병, 인민은 선군의 불길 속에서 다져온 정신력과 모든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폭발시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며 수령님의 위업,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고 촉구
-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선군조선의 강위력한 국력을 세계에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한 우리 민족의 일대 경사”라며 “강성대국 건설의 최후 돌격전에 펼쳐나선 천만군민에게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다”고 주장

● 北인민군보위사령관, 대장 승진(4/14,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4일 발표한 최고사령관 명령 제0029호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 줄 데 대하여’를 통해 북한의 김원홍 인민군 보위사령관이 상장(중장)에서 대장으로 승진
- 또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수석부부장도 중장에서 상장으로 승진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이 된 우동측이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제1부부장으로 승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음. 김 위원장은 명령에서 고수일도 상장으로 승진시켰으나 그의 구체적인 직책은 알려지지 않음.
- 김 위원장은 또 윤경서 등 14명을 중장(소장)으로, 공병철 등 37명을 소장(준장)으로 각각 승진시키면서 “뜻깊은 태양절(김일성 생일)에 즈음하여” 이번 승진인사를 한다고 밝힘.

● 北유엔대표부, 비장한 분위기속 침묵(4/14, 연합뉴스)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 반발해 6자회담 불참과 기존 합의 파기를 선언한 가운데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는 13일(현지시간)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을 지킴.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신선호 대사와 박덕훈 차석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은 기자들에게 일절 입을 열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

- 北, 6자회담 불참, 기존합의 파기(4/14, 북한 외무성 성명: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외무성은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한 것에 반발해 성명을 내고 북핵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6자회담의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불능화 작업이 진행 중이던 핵시설을 원상복구해 정상가동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영변 핵시설에서 나온 폐연료봉들을 “깨끗이 재처리”할 것이라고 성명은 밝히고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성명은 또 자신들의 “주체적인 핵동력 공업구조를 완비하기 위하여 자체의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근거하여 우리의 자주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계속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장거리 로켓의 시험발사를 계속 해나갈 것임을 시사
 - 또 성명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에 명시돼 있는 자주권 존중과 주권평등의 정신은 6자회담의 기초이며 생명”이라고 주장하고 “6자회담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무장해제와 제도전복만을 노리는 마당으로 화한 이상 6자회담은 그 존재 의의를 돌이킬 수 없이 상실했다”고 주장
 - 성명은 “적대세력들이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며 “6자회담이 없어지고 비핵화 과정이 파탄됐어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가 선군의 위력으로 책임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佛기업 인수 北시멘트공장에 실질투자 안해(4/17, 자유아시아방송)
 - 프랑스 건설사인 라파즈사가 이집트 회사로부터 북한의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지분 50%를 인수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이 공장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를 거의 하지 않은 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RFA) 17일 보도
 - 라파즈사의 클레어 마티뉴 공보담당자는 “투자는 없다”며 “그냥 원래 있는

공장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빌딩이나 공장을 짓지도 않았고 (북한) 내수용 시멘트 생산에만 전념하는 상황이어서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소개

- 마티유 공보담당은 북한의 열악한 기업 환경도 문제이지만 상세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어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상원 세멘트는 “우리 회사가 소유한 몇 개 되지 않는 작은 공장 중 하나”라며 “북한에서 생산하는 시멘트의 생산량에 관한 자료도 받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설명, 그는 또 상원세멘트는 “이전보다 시멘트 생산량이 증가하거나 공장의 가동률이 늘지는 않았다”고 언급

※ 상원세멘트는 오라스콧이 2007년 7월 지분 50%를 취득하면서 1억1천 5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2008년 공장 지분과 탄광 채굴권을 라파즈에 넘겼음.

● 北, 유·무선간 전화통화 지방으로 확대 중(4/1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최근 평양 외의 지방에서 휴대전화로 유선전화인 집 전화와 통화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교체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북한 내부사정에 밝은 재중 동포”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이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달 초부터 함경북도와 황해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방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기존의 유선통신만 가능하던 기기에서 무선 중계가 가능한 통신기기로 바꾸고 있어 “지방 사람들도 휴대전화로 집 전화에 전화를 걸 수 있게 됐고 앞으로 휴대전화 사용자가 많아질 전망”이라고 소개
- 이와 관련, 지난 1월말 황해북도에서 휴대전화로 거액의 골동품을 거래하던 주민들이 국가보위부의 휴대전화 감청 때문에 적발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방송은 보도, 소식통은 “이 소문이 퍼지면서 주민들은 큰 장사 거래나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정보들은 휴대전화로 말하는 것을 삼가고 있다”고 소개

라. 군사 관련

- 北총참모부 PSI는 선전포고 거듭 경고(4/18,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8일 남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는 것은 “선전포고”라고 거듭 경고
 - 총참모부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을 통해 특히 “우리 혁명무력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다”며 “이명박 역적 패당은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km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

마. 사회·문화 관련

-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폐막(4/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행사의 하나로 열렸던 제26차 ‘4월의 봄’ 친선 예술축전이 18일 평양대극장에서 폐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폐막식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로두철 부총리, 강능수 문화상, 박관오 평양시 인민위원장 등이 참석
- 제2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연환공연 개최(4/16, 조선중앙통신)
 - 제2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연환공연이 16일 평양대극장, 동평양대극장, 청년중앙회관, 평양교예극장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에 앞서 15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인민문화궁전에서 이번 축전 참가자들에게 연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참가자들은 이날 낮 평양체육관에서 친선유희오락경기를 갖기도 했음.
- 北, 태양절 때 ‘파격’ 사흘연휴 시행할 듯(4/14, 연합뉴스)
 - 김일성 주석의 생일로 북한의 최대 명절로 꼽는 태양절(4월15일)을 맞아 북한 당국이 올해 3일 연휴를 시행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이는 해마다 이틀에 그쳤던 태양절 연휴 관행에 비춰볼 때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 14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태양절인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을 공휴일로 정했음.

- 올해의 태양절 기념행사도 4월 7일 종합체육대회인 '만경대상' 체육대회와 원로화가 전시회, 명절 요리축전 등이 치러졌으며 중국, 러시아, 독일 등 20여개국 예술단이 참가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10일 개막해 최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한 평양대극장 등에서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음.

● 北, '요리축전'에 각종 이색요리 등장(4/13, 조선신보)

- 북한의 조선요리협회가 지난 6~7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주최한 제14차 '4월의 명절요리 축전'에서 각종 이색 요리가 등장했다고 조선신보가 13일 소개
- 축전에는 옥류관, 청류관, 평양송어국집 등 평양의 대표적인 식당과 평양 고려호텔, 평양호텔 등 대외봉사 단위들, 각 도의 요리봉사 부문들이 참가, 이번 축전에선 특히 평양호텔이 내놓은 타조고기 전골과 뱀장어 요리들이 호평을 받음.
- 축전에는 또 메기 요리, 뱀장어 요리, 강냉이국수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지도 과정에 가르쳐 주신 음식들과 요리들"이 많이 출품됐다고 신문은 보도

● 北, 평양 현대적 개진보수 역점 보도(4/12, 조선중앙통신)

- 12일 조선중앙통신이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15)을 앞두고 평양시의 여러 봉사망(봉사시설)과 건물이 "현대적으로 개진 보수"돼 "모습이 더욱 일신"됐다고 사업 진행 상황을 상세히 보도
- 통신에 따르면 평양을 대표하는 음식점이 밀집한 창광음식점거리는 차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늘어선 18개 식당의 외부공사가 끝났음. 본래의 건축 형식을 살리면서 주민들의 "문화적 요구"와 각 식당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색깔의 타일을 붙인 식당들은 주변의 고층건물, 살림집들과 한데 어울려 "경쾌하고 세련된 감을 준다"고 통신은 소개
- 통신은 또 "봉화거리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봉사망들이 여러가지 색깔의 외장재와 타일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단장"됐으며, 평양제1백화점의 지붕과 종합청사가 새롭게 개조됐다고 보도
- 이밖에 "걸음길(인도)들이 색 보도블록(블록)들로 특색있게 꾸려지고" 새

로 화단과 잔디밭이 조성됐으며 “수도의 야경을 이채롭게 할 불장식도 새롭게 하였다”고 통신은 소개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및 유엔 안보리 관련

● 美, 6자회담 참가국들과 4월말 북한문제 협의(4/16, 교도통신)

- 미국은 북핵 6자회담 참가국인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이달 말 회동을 갖고 북한 로켓 발사로 촉발된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16일 밝힌 것으로 교도통신이 보도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16일 방미 중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민주당 부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전했다. 마에하라 부대표는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면담에서 미국은 6자회담을 재차놓고 북한과 직접 접촉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언

● 안보리, 대북 의장성명 만장일치 채택(4/14, 연합)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클라우드 헬러 의장은 13일 오후(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지난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condemn)한다”면서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contravention)”이라고 발표, 이번 달 의장국인 멕시코 유엔 대사인 헬러 의장은 이날 의장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존 결의안의 제재 조항에 대한 실행에 착수할 것을 제재 위원회에 요구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추가 발사 행위를 금지하라”고 촉구
- 의장성명은 4월 11일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일본이 참여한 주요 6개국 회의와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의장성명 초안에 대해 이날 낮 12시(한국시간 14일 오전 1시)까지 이사국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견을 제시한 국가가 없어 만장일치로 채택
- 특히 성명은 1718호 결의 8항에 의해 부과된 대북 제재 조치를 조정키로 합의하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24일까지 제재 조치 조정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제재위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보리가 이달 30일까지

조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강도높은 대북 제재에 착수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힘. 이날 안보리 회의는 오후 3시에 소집돼 10분 만에 의장이 성명을 낭독하고 종료

나. 북·미 관계

● 美, 3월 카터 방북 타진, 北 거부(4/19, 산케이 신문)

- 미국이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기 전인 3월 로켓 발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9일 보도
-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비공식으로 타진 받은 북한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신문은 미국 및 일본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美국무부, 北과 대화 갖고 입장 전달(4/17, 연합)

- 미 국무부는 북한의 6자회담 참여 거부 선언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팀 등에 대한 철수 명령과 관련, 최근 직접 대화를 갖고 미국 정부의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남. 국무부는 또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활동해 온 미 검증요원 4명이 수 일 내에 북한을 떠날 것이라고 밝힘.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접촉 여부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과 대화(conversations)를 가졌으며, 우리의 입장(views)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언급, 그러나 우드 부대변인은 북·미간 접촉이 뉴욕채널을 통해 이뤄졌는지,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함.
- 그는 유엔 제재위원회가 몇차례 논의를 거쳐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재대상 기관 및 물품 선정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도 언급

● 美, 유엔의 對北 제재 확대 검토(4/17, 연합)

-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의 한 위원회가 소집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힘.

● 美과학자들, 北요청으로 이르면 7월 방북(4/1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요청에 따라 미국의 과학·기술자들이 이르면 7월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며 미 국무부는 이들의 방북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시라큐스대의 스튜어트 토슨 교수가 밝힘. 이들 방북단은 197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데이비드 볼티모어 박사를 단장으로 해 컴퓨터와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자 수명과 과학단체, 미국 대학 관계자들로 구성될 예정
- 방북단의 목적은 북한과 미국의 과학자간 신뢰관계를 정립하고 어느 분야의 과학 교류가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방북이 성사되면 지난 2002년과 2004년 각각 20명, 22명의 미국 과학자들이 북한 김책공대를 방문한 이래 4년 만에 미국의 중량급 과학자들이 방북하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설명
- 북한은 2001~2005년 7차례 김책공대 연구진을 시라큐스대에 보내 공동 연구토록 했으며, 김책공대의 컴퓨터공학자 6명이 2007년부터 3개월~1년 일정의 미국 연수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북한 당국이 불허해 이뤄지지 못했다고 RFA는 소개
- 한편 캐서린 웨더스비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이 과학자를 미국에 장기 연수시키는 것은 꺼리지만 독일에는 무리해서라도 보내고 있다”며 북한의 건축학 전공 학생 10여명이 독일에서 최근 5년간의 연구과정을 마쳤고 이달부터 30여명의 학생이 컴퓨터를 포함한 석사과정을 시작했다고 소개
- 최근 독일을 방문했던 그는 특히 “북한 학생들에게 자금을 지원했던 독일 정부가 경제난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자 북한 정부는 자신들이 자금을 댈 테니 연구과정을 계속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제안했다”며 북측 자금은 3년 계약으로 독일에 파견된 70여명의 북한 의사들이 베를린과 인근 도시의 병원과 보건소에서 독일 환자들을 돌보면서 번 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

● 美, 北 결과 감당해야, 대화 복귀 촉구(4/15, 미국무부; 백악관)

- 미국은 15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하며 회담 불참과 핵활동 재개 방침을 천명한 북한에 대해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위해 북한에 체류 중인 미국 불능화팀에 대한 북측의 추방 명령을 확인하면서 “이는 후퇴하는 조치”라고 비판, 그는 “북한이 자신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국제사회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안했지만, 어제와 같은 조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
- 백악관도 1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북핵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다면서 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관련된 모든 당사국들은 북한이 2005년 9월 핵프로그램의 해체에 합의한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하고 “핵프로그램 해체에 대한 계속된 진전과 추가 협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美스미스소니언서 北미술 전시회 계획(4/15,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워싱턴에 있는 스미스소니언박물관에서 북한의 현대 미술작품들을 선보이는 특별전시회가 추진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
- 이번 전시회를 추진중인 네덜란드 사업가이자 미술품 수집가인 프란치스쿠 브뢰르센씨는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스미스소니언박물관의 ‘아시아문화계획(Asian Cultural Program)’측이 북한의 현대 미술품을 전시하는 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박물관측과 전시회 시기와 작품 선정을 비롯해 구체적인 전시회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 이와 함께 “미국 뉴욕에서 동양 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미술관 한 곳과 네덜란드의 그로닝거 박물관도 북한 현대 미술품을 전시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빠르면 올해 후반기부터 미국과 네덜란드 관객들이 북한의 미술품들을 만날 수 있다”고 언급
- 전시회 준비를 위해 4월 초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다는 그는 북한 당국자들이 자국의 미술품을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전시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미국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소개
-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전시될 북한의 현대 미술품은 주로 산수화와 민속화 등 회화이며, 김성희, 정창모, 문화춘 등 북한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들을 비롯해 북한 최고 예술가들의 작품을 망라하고 있다고 RFA는 소개

● 美, 안보리에 11개 北기업 리스트 제출 계획(4/15, 요미우리 신문)

-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대북 제재를 구체화하도록 한 유엔 안전보장회의 의장성명에 따라 미국이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11개의 제재 대상 북한 기업 리스트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5일 보도
- 이들 기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거래를 하고 있는 무역 및 금융회사로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대표적임. 이 회사는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업체로,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와 설비 수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 있는 사무소를 통해 무기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측은 추정
- 방위 복합기업체인 '조선령봉종합회사'도 리스트에 포함돼 있으며 이 회사는 군수물자 확보 및 군사 관련 물자 매각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 금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포함된 회사는 '단천상업은행'으로 탄도미사일이나 일반 무기 거래의 결제를 담당, 이 회사의 전신인 '창광신용은행'은 1980년대 후반부터 중동, 아프리카로 매각한 무기대금을 축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조선령봉종합회사의 자회사 8개사도 리스트에 포함됐음.

● 클린턴, 北추방령 무익한 대응(4/15, 연합뉴스)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0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비난성명 채택에 맞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 및 불능화 검증요원 추방령을 내린 것은 무익한 대응이라고 밝힘.
- 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과 동맹국뿐 아니라 중국에는 북한과도 대화할 기회를 기대한다"고 밝혀 북한이 북·미 양자 또는 6자회담의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

다. 북·중 관계

● 김영남, 방북 中정협 부주석 면담(4/17,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7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방북중인 리진화(李金華)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을 면담했다고 조선중앙

통신이 보도

- 리 부주석은 “전통적인 중·조(북) 친선은 후진타오 총서기와 김정일 동지의 깊은 관심 속에 강화발전되고 있다”고 말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선물을 전달, 리 부주석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 14일 방북했으며 북·중 우의탑에 헌화

● 中외교부장, 북미관계 개선·발전 희망(4/17, 니혼게이자이 신문)

-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은 16일 최근 북한을 둘러싼 정세 변화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과 발전을 바라고 있다”며 북미 양국의 직접 접촉을 희망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7일 보도
- 양 외교부장은 베이징(北京)에서 니혼게이자이와 가진 회견에서 “(중국은) 양자 루트나 다자 루트를 통해서도 쌍방이 서로 촉진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왜 (로켓 발사)행동을 취했는지는 북한이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
- 그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반발하며 6자회담 불참 선언을 한 데 대해 “회담 프로세스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에 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일 생각임을 표명, 양 부장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과 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 프로세스 유지는 관계 각국의 공통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본다. 협의 프로세스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각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는 등 적극 힘쓰겠다. 관계국과 북한과의 교류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힘.
- 그는 북한과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공위성을 쏘았다는 북한의 발표와 함께 관계국의 반응에도 유의를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조 쌍방의 공통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북한과 관계 각국 간의 연락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 또한 올해가 북한과의 국교수립 60주년을 맞는 해임을 상기시키면서 “양국 간에 다양한 행사가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호 왕래가 계속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임.

● 中, 北에 백두산 호랑이 3마리 수출(4/16, 중국신문)

-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최근 북한에 백두산 호랑이 3마리를 포함, 모두 5마리의 호랑이를 수출, 랴오닝성출입국검사검역국은 다롄(大連)삼림동물원의 호랑이 3마리에 대한 검역을 마친 뒤 4월 9일 단둥(丹東)을 통해 북한에 보냈으며 이는 랴오닝성 백두산 호랑이 수출의 첫 사례로 '중조(中朝)우호의 해'를 맞아 '우호사자(友好使者)'가 될 것이라고 중국의 반관영 중국신문이 16일 보도
- 랴오닝성출입국검사검역국은 수출에 앞서 북한의 요구에 맞춰 엄격한 검역을 실시했으며 사육사를 동행시켜 이들 호랑이의 소독과 운송, 건강 등을 챙기도록 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소개, 같은 날 쓰촨(사천)성의 벵갈 호랑이 2마리도 단둥을 통해 조선에 반입

● 中, 안보리 제재에 반대했다고 강조(4/14,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성명을 통해 “중국은 안보리의 대응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6자회담과 한반도의 비핵화, 국제사회의 무기 비확산을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해왔다”면서 “이같은 정신에 입각해 중국은 안보리의 제재결의안 통과와 제재조치 시행에 반대했다”고 언급

라. 북·러 관계

● 러 대통령, 김정일에 친선 축전(4/17, 조선중앙방송)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재추대를 축하하는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7일 뒤늦게 보도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축전에서 김 위원장의 국방위원장 재추대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우리는 러·조(북) 사이의 다방면적이고 효과적인 호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당신의 특출한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했다고 보도
- 그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관계가 “앞으로도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그리고 2000년 2월 9일에 체결된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공고한 기초 위에서 계속 발전함으로써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고 소개

-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내주 방북(4/17, 연합: 로이터 통신)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는 24일께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17일 북수의 외교 소식통들이 보도
 - 우리 측 외교 소식통은 “라브로프 장관이 24일께 평양을 방문하는 방안에 대해 북측과 최종 조율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힘. 로이터도 이날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 소식을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보도, 이번 라브로프 장관의 방북은 지난해 10월 박의춘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며 북한 로켓 발사 이전부터 계획됐던 것임.

- 러, 北 IAEA 검증팀 추방에 실망(4/16, 인테르팍스 통신)
 - 러시아 정부가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팀 추방 조치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16일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 러시아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한반도 담당 특사는 “북한이 이미 추방 조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만큼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실망스런 것은 사실”이라고 밝힘.
 - 러시아 외교 소식통은 전날 “모든 이해 당사국과 관련 기구 특히 IAEA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힘.

- 러, 6자회담 거부 불구 北 제재 원치 않아(4/15, 인테르팍스 통신)
 - 러시아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거부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를 원치 않는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15일 보도,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길 바라지 않는다면 무엇 보다는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
 -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은 핵 군축 회담 지속에 무게를 둔 것이었다고 주장

마. 북·일 관계

- 日각의, 대북 엔화반입 신고강화안 의결(4/17, 연합)
 - 일본 정부는 17일 각료회의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일본 정부의 대

북 추가 제재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 현금 지참액을 100만 엔 초과에서 30만 엔 초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령(외국환령) 개정안을 의결, 이번 개정 정부령은 내달 12일부터 적용됨.

- 일본 정부는 또 현금 신고액 하향 조정과 함께 마련한 대북 송금 신고액 확대 방안은 오는 22일 재무성령으로 확정할 방침임. 대북 송금 신고액은 3천만 엔 초과에서 1천만 엔 초과로 확대된다. 모두 5월 12일부터 적용

● 김정일, 조총련에 장학금 송금(4/1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97회 생일을 맞아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에 장학금 1억9천900만 엔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 통신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총련에 보낸 장학금은 총 155차례에 걸쳐 464억1천22만3천 엔에 달한다고 소개

● 日, 유엔 제재위에 北 14개 단체 제재 요청(4/16, 요미우리 신문)

- 일본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를 구체화하도록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 따라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작성하는 자산동결 대상 리스트에 북한 관계 14개 기업·단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6일 보도
- 일본 정부가 제출하는 리스트는 미국 정부가 제출키로 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등 11개사에 일본 독자 정보를 통해 대량과괴무기 개발 및 수출입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3개 단체를 추가한 것임. 일본 정부가 리스트에 추가하는 곳은 조선동해해운회사, 평양정보과학센터, 봉화병원 등임.
- 일본 정부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을 결정하는 24일까지 추가할 기업이나 단체가 있는지 정밀히 조사할 방침임.

바. 기타 외교 관계

● 이란대사관 연회 개최(4/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주재 이란대사관 무관이 이란 군대절을 맞아 17일 대동강 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 연회에는 북한측에서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전영진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

● EU, 北 최근 동향에 심각한 우려(4/18, 연합)

- 유럽연합(EU)이 6자회담 거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팀 추방 등 최근 일련의 북한 동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EU 이사회 순번의장국을 맡고 있는 체코는 17일 의장국 성명을 통해 “EU는 6자회담을 거부하고 IAEA와의 협력을 중단하며 핵 시설을 복구하기로 한 북한 정부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언급
- 의장국 성명은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6자회담을 통해 비핵화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자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난
- 성명은 또 “북한 정부는 IAEA 검증팀을 추방한 결정, 핵 시설을 복구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IAEA와 협력을 재개하며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라”고 촉구

● 北, 말레이시아와 유일하게 무비자 협정(4/1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주민을 입국 사증(비자)없이 받아들이는 나라는 이집트 등 29개국이고, 북한이 비자면제를 해준 나라는 말레이시아가 유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
- 방송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상대국의 수를 기준으로 국가 순위를 집계해 온 유럽의 법률회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결과를 인용, 북한 주민이 입국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는 2008년까지 29개로, 이집트, 도미니카, 아이티, 요르단, 캄보디아, 몽골, 마카오, 싱가포르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밝힘.
- 북한이 유일하게 외국과 무비자협정을 맺은 말레이시아는 지난 2000년 4월 체결한 협정을 통해 한달 이하의 단기 방문에 대해 입국 사증을 일부 면제하고 있다고 미국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 관계자가 설명

● EU, 美·北 직접대화 지지(4/17, 연합)

- 유럽연합(EU)의 베니타 페레로-발트너 대외관계 담당 집행위원은 1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및 핵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힘.
- 파키스탄 지원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를 방문한 페레로-발트너 집

행위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이 준비가 돼 있다면 이는 교착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주요한 긍정적 발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언급, 그러나 페레로-발트너 집행위원은 6자 회담을 매개로 한 다자협의 틀 지지 입장 또한 변함이 없다고 설명

● EU, 北, 6자회담 틀 속 대화 계속 촉구(4/15, 연합)

- EU 집행위원회는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지지, 환영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북한에 대해 6자회담 복귀를 촉
- 이에 앞서 크리스티안 호먼 집행위 대변인도 14일 정레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해 국제사회의 단합을 강조하며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라며 “북한이 의장성명의 메시지를 이해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3 대남정세

● 정부, 北 개성접촉 제의 수용(4/19, 통일부)

-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 측 (접촉) 제의를 수용, 21일 개성에서 남북접촉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김영탁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과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장, 실무인력 등 10명 내외의 관계자가 21일 중 개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
- 이 부대변인은 “우리 측은 국민의 신변안전과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이 주요한 관심사항이며, 이런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이번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남북접촉이 국민의 신변 안전과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北, 개성공단 관련 남북접촉 제의(4/18, 연합)

- 북한 당국이 4월 16일 개성공단 채널을 통해 ‘중대사안을 통보하겠다’며 오는 21일 남북 당국자 간 접촉을 제의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 정부 소식통은 18일 “북측 개성공단 관리당국인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측

이 지난 16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중대 사안을 통지할 것이 있으니 관리위원장은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와 함께 21일 개성으로 오라’고 통보해왔다”고 설명, 이 소식통은 “북측은 통보할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북측이 통보할 내용이 조사 중인 현대아산 직원의 처분 문제에 대한 것인지,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부연

04.20-04.26

4월
3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북·일 관계
-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첨부 1 <북측 통지문 요약 전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로켓 발사 관계자 만나 사진 촬영(4/2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광명성2호'의 발사에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과 만나 환담을 나누고 기념촬영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과학기술의 종합체인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 발사는 선군조선의 존엄과 국력, 우리 인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한 민족적 경사이고 강성대국 건설대전에서 승리의 첫 포성을 울린 역사적 사변”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
 - 이날 면담에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과 리영호 군총참모장, 전병호 당 중앙위 비서,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등이 참석

- 김정일, 軍선전대 공연 관람(4/21,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 제10215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TV가 21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공연 관람을 마친 뒤 “예술선전은 군인들의 사상 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며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 김 위원장의 공연 관람에는 현철해 리명수 북한군 대장과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박남기 노동당 부장, 최익규 선전선동부장, 김양건 통일선전부장 등이 수행

- 北김정운, 후계수업 시작(4/26,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지명된 것으로 전해진 셋째 아들 정운이 최근 국방위원회의 말단 직책인 ‘지도원’으로 후계수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 소식통은 26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가 열리기 며칠전 김정운에게 국방위원회 지도원 직책이 부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대북 소식통도 같은 소식을 전했다. “정운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소개

나. 정치 관련

● 北, 우주기술력 존재가치 시위할 것(4/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확고한 자주적 입장과 배짱, 과학기술 위력의 승리'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우리의 우주개발 기술력은 앞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와 생활력을 뚜렷이 시위할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또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가 "위인송가로 지구를 덮으며 자기의 궤도를 따라 기운차게 돌고 있다"며 " '광명성 2호'로부터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470MHz로 지구상에 쉬임없이 전송되고 있다"고 주장

● 민주조선, 신해철 고발 비난(4/26,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 민주조선이 26일 '동족 대결에 미친 자들의 발작증'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남한 보수단체들이 '북한 로켓발사 성공 경축' 글을 쓴 가수 신해철씨를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동족 대결에 환장한 자들이 일으키는 또 하나의 히스테리적 발작"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민주조선은 "가수 신해철이 우리의 위성발사 성공을 두고 한 핏줄을 나누는 동족으로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기쁨을 담은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

● 천리마제강 연구사에 영웅칭호 수여(4/25, 조선중앙방송)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4월 23일 '정령'을 통해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연구사 리재경에게 노력영웅 칭호를 수여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 정령은 리 연구사가 "우리식의 현대적인 초고전력전기로 설계를 훌륭히 완성해 나라의 흑색금속공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수여 배경을 설명

● 北, 자위적 국방노선 고수(4/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은 조선(북한)이 어제든 오늘도 변함없이 들고 나가고 있는 노선"이라고 강조, 통신은 핵무기를 시사하는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없으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도, 사회

주의도 지킬 수 없으며 강성대국도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이 조선인민의 철석의 신념이며 의지"라며 현재 북한이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마음 먹은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강위력한 국방공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 통신은 이같은 성과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 압살 책동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도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만은 한시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

● 北, 南의장성명 연관, 분별있게 처신하라(4/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외세와의 공조로 얻을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에는 남측 당국의 “불순한 책동”이 연관돼 있다며 남측 당국이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이에 대처해 우리가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선군의 위력으로 책임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며 “이명박 패당의 죄악을 철저히 결산할 것이고 반민족적 범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 말 것”이라고 주장하고, 남측 정부는 “우리의 경고를 무게있게 새겨들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경고

● 北, 군창건일 맞아 ‘선군정치’ 찬양 주력(4/24, 4/25,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노동신문)

- 북한 언론은 군창건 기념일 전날인 24일 김 위원장이 ‘광명성2호’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과 만나 “광명성2호 발사를 강성대국 건설대전에서 승리의 첫 포성을 올린 역사적 사변”이라고 평가하고 기념촬영을 했다고 일제히 반복 보도하면서 경축 분위기를 고조.

- 또 북한은 이날 4.25문화회관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리용무,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리영호 총참모장 등 고위간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중앙보고대회를 열었으며, 리 총참모장은 남한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지적하면서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고 보다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 25일 북한 각지의 군인과 주민들은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 ‘조국

해방전쟁승리 기념탑’ 등과 지역에 있는 김일성 주석의 동상에 헌화하는 행사를 가졌고 평양과 지방의 주요 극장들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업적”을 찬양하는 경축공연이 열림.

- 노동신문은 기념사설에서 군인과 주민들에게 김 위원장의 주위에 굳게 뭉치고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는 한편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모든 사업을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전개해 나가자고 역설

● 北외무성, 폐연료봉 재처리 시작(4/25, 외무성 대변인)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5일 영변 핵시설에서 폐연료봉 재처리작업을 시작했다고 언급, 그는 2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4월14일부터 외무성 성명으로 선언한 데 따라 우리 시험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폐연료봉들을 재처리하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설명
- 외무성 대변인은 “폐연료봉 재처리는 적대세력들의 가증된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재처리를 통해 확보되는 플루토늄을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함.

● 北, 이란 미국 기자 실형 보도(4/25,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5일 이란이 최근 재판에서 미국 기자에게 간첩혐의를 적용, 실형을 선고한 사실을 보도, 방송은 이날 “이란이 18일 지난 1월에 체포된 미국 기자에게 8년간의 징역형을 언도했다”며 “판결문에 의하면 지난 6년간 이란에서 기자활동을 하다가 2006년에 기자활동 자격을 박탈당한 그는 그 후에도 비법적으로 이란에 체류하면서 미국 정탐기관을 위해 간첩행위를 감행했다 한다”고 논평없이 짤막하게 보도

● 北, 안보리 제재 철저히 배격 반발(4/24, 연합)

- 북한은 2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제재위원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기업 3곳을 자산동결 등 제재 대상으로 선정 한 것과 관련 “이를 철저히 배격한다”며 반발
- 박덕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안보리 제재위가 제재 대상

기업 선정에 합의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철저히 배격하고 이를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박 대사는 또 “최근 안보리 활동 영역을 보면 안보리가 민주화되지 않는 이상 아무 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안보리를 비난

● 北리영호, 억제력 강화, 강경대응조치 취할 것(4/24, 연합)

- 북한군 리영호 총참모장은 24일 남한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지적하면서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고 보다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그는 이날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인민군 창건 77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미국의 호전세력과 이명박 역적패당이 우리의 거둬드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감히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강하고 무자비한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대응할 것”이며 “모든 군사적 잠재력을 총폭발시켜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탕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이라고 언급
- 그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투쟁은 우리 조국을 경제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워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더없이 보람찬 투쟁”이라며 “전체 당원과 군인, 인민들은 올해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례없는 대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촉구
- 이날 보고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오극렬·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등이 참석

● 조선신보 ‘北 핵시험’ 가능성 시사(4/24, 연합)

- 조선신보가 24일 ‘6자구도의 붕괴-3, 조선반도 비핵화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로켓발사를 비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 채택에 따라 북한이 핵시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시사, 조선신보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에 대해 “조선(북한)을 핵시험으로 떠밀었던 선행 정권(부시 행정부)의 실책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북한)군대의 경계와 불신을 불식시키는 외교적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

● 北, IMF활성화는 금융지배 강화 의도(4/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실속이 없는 걸치레식 회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 대해 서방 열강들이 "리속(잇속)만을 채우려"한 회의이며 합의 내용은 "대부분 빈껍데기"라고 평가절하. 노동신문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회의의 성과를 찬양하지만 발전도상국들은 회의 결과를 비난

다. 경제 관련

● 北, 2009년 식량 178만t 유입 필요(4/25, 식량농업기구)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발간한 '수확 전망과 식량 상황'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양곡년도(2008.11~2009.10)상 식량 유입 필요량이 178만6천t에 달한다고 소개, 25일 FAO 법인 문서 보관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4월 2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올 양곡년도상 지난 3월말 현재 외부에서 들여온 식량은 모두 20만3천500t에 불과
- 이중 상업적으로 수입한 양은 2만600t이고 외부에서 식량원조로 할당되거나 운송된 양은 18만2천900t 이었음.
- 북한은 지난해 양곡년도상 상업적 수입 73만8천100t에 원조 76만200t으로 모두 149만8천300t을 외부로부터 들여왔음. 보고서는 북한을 외부 지원이 절실한 32개국 가운데 포함시키면서 "북한은 만성적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외부 식량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4월부터 배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언

● 안보리, 對北제재 기업 3곳 선정(4/24, 연합)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제재위원회는 24일 오후(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북한의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 이날 제재위에서 선정된 북한 기업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조선령봉종합회사 등 3곳임.
- 제재위 의장을 맡고 있는 바키 일킨 유엔 주재 터키 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1718호에 따른 대북 수출입 금지되는 기술과 장비, 품목, 상품 등의 목록을 최신화(업데이트)했다"며 여기에는 탄도 미사일 관련

- 일부 최신 기술도 포함된다고 밝혀 안보리의 대북 금수 대상 품목도 추가
- 안보리의 대북 제재 리스트는 유엔 회원국들에 곧바로 공지되며, 각 회원국은 안보리가 지난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따라 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업·단체의 모든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도 금지해야 함.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채래식 무기 및 탄도미사일 관련 장비의 주요 수출기관' 혐의로, 단천상업은행은 '채래식 무기, 탄도미사일 등의 제조, 조립 관련 물품 거래 담당' 혐의로 이미 미국 등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이번 안보리의 선정에 따라 이들 3개 기업의 제재는 국제적으로 확대됨.
 - 안보리는 2006년 북한 핵실험 직후 채택한 1718호 결의에서 무기금수와 자산동결, 여행제한 등의 제재를 결의했지만 자산동결 및 여행제한 대상을 이후 선정하지 않았음. 안보리 제재위는 제재대상 기업 선정과 관련, 미국과 일본이 각각 11곳과 14곳씩 제출한 대상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대상 기업 수가 3곳으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짐.

● 北대동강에 6개 발전소, 총출력 26만9천kW (4/19, 노동신문)

- 북한의 대동강에는 모두 6개의 발전소가 건설돼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발전소의 총출력은 26만9천kW라고 노동신문이 14일 보도
- 신문은 평안남도 대동강 상류지역에 최근 완공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시찰한 것으로 지난 18일 보도된 영원발전소를 소개하면서 대동강에는 영원발전소, 대동강발전소 등 2개의 언제(댐)발전소와 미림, 봉화, 성천, 순청 등 4개의 갑문발전소가 있다고 설명

● 러-北-中 국제철도 올해 개통(4/22, 리아노보스티 통신)

- 러시아와 북한, 중국을 연결하는 국제 철도가 올해 안에 개통될 예정이라고 22일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극동 하바로프스크 현지 신문을 인용해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러시아 철도공사(RZD) 자회사인 '제일화물'과 중국 현지 무역 회사가 최근 철도운송협정에 최종 서명했으며 북한은 내달 서명할 예정이다. 총연장 126km인 이 철도는 두만강 하류의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에서, 북한 함경북도 두만강 역을 거쳐 러시아 하산까지 연결됨.

● 北, 내각 전원회의 개최(4/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내각이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 회의에는 내각 상들이 참석했으며 각 성의 국장, 도·시·군 인민위원장, 각 도의 농촌경리위원장과 지구계획위원장, 지방공업관리국장, 주요 공장·기업소 지배인이 방청
- 전원회의에서는 '새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1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정형총화와 2분기 인민경제계획 실행대책에 대하여'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된 올해 국가예산집행을 위한 내각결정채택에 대하여'를 논의

● 北, 신생 간석지도 사탕수수 재배에 활용(4/20, 조선중앙통신)

-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새로 개간해 아직 염분이 많은 간석지에서도 자랄 수 있는 사탕수수 종자를 최근 개발, 재배하는 데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
- 통신은 "지난 시기에는 간석지를 새로 개간하면 염기 성분이 없어질 때까지 일정한 기간 아무런 작물도 심지 못하고 묵여두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지만 온천군은 과학자들과 함께 "새로 개간되는 간석지 조건에 맞는 작물을 얻어내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킨 끝에 "생산성이 높고 실정도도 맞는 새로운 사탕수수 종자를 얻어내어 현실에 도입"했다고 설명

● 北학술지, "남는 노력" 활용 강조(2009년 1호, 경제연구)

- 북한의 계간 '경제연구' 2009년 1호는 '남는 노력 동원 이용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특히 공장·기업소에서 '남는 노력'을 등한시하면 "건달을 부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노동행정 사업을 강화할 것을 촉구
- 이 학술지는 "새 세기, 정보산업시대에 들어선 오늘 공장·기업소들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남는 노력이 적지 않게 조성"되고 있다며 "노동행정부 문 앞에는 남는 노력을 최대한 동원 이용하여 노력낭비를 없애고 노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
- '남는 노력'이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노동생활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노력"이라고 학술지는 설명

라. 군사 관련

- 北, 핵무기 탄두화·중거리미사일 장착 가능(4/24, 더타임스)
 - 북한이 개발된 핵무기를 미사일 탄두에 장착할 정도로 작게 만드는데 이미 성공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핵탄두를 ‘스커드’나 ‘노동’같은 중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이 위험 요인이라고 더 타임스가 24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민간단체 국제위기감시기구(ICG)의 대니얼 핑크스틴 수석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해 말까지 핵무기 탄두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핑크스틴 수석연구원은 ‘스커드’ 미사일이 한국 전역을 사거리 안에 두고 있고 ‘노동’ 미사일이 일본까지 날아갈 수 있다며 이 미사일들 중 일부를 탐지하기 어려운 점도 위험 요인이라고 설명
 -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나는 어느 국가를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인민대학습당 전산화 막바지(4/24, 조선신보)
 - 북한이 2006년 6월 시작한 국립도서관격인 인민대학습당의 전산화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 중이며, 이를 북한 전역의 도서관들과 통신망으로 연결,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4일 보도
 - 인민대학습당의 홍현문(58) 부총장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의 경험을 토대로 인민대학습당의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
- 北, 지적재산권 철저히 보호·장려(4/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4.26)을 앞두고 북한에서 “지적소유권(지적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 국가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 통신은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법’을 채택해 새롭고 발전적이며 높은 기술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과학기술적 성과들에 대하여 발명권 또는 특허권을 주고 “발명권, 특허권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것이 정확히 보장되도록 하고 있으며 발명사

업을 적극 장려하고 현실에 도입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끊임없이 늘여나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

-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상표, 원산지명, 공업도안의 보호를 위한 법들도 채택해 “모든 단위들에서 상표, 원산지명 등록의 신청과 심의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경제 발전과 생산 증가에 맞춰 “공업도안을 부단히 갱신하도록” 유도
- 북한 국가품질감독국 최치호 처장은 “최근년간 지적소유권 부문의 법, 규정들을 새로 제정·공포하고 수정·보충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지적소유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과학적인 기업전략, 경영전략 수행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는 사업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

● 北 시장통제 심해져 주민불만 고조(4/22, 연합뉴스; 오늘의 북한소식 제275호)

- ‘오늘의 북한소식’은 제275호에서 소식통을 인용, 함경북도 청진시는 북한 당국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는 금지 물품을 규정한 ‘2월17일 방침’을 지난 10일 여성 상인들에게 전달하고 “판매 금지된 상품을 시장에 내다팔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소개
- 소식지는 “각 구역에서는 선전비서들이 직접 시장에 나가 방송차를 세워놓고 이 방침을 선전했다”면서 “금지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비사회주의를 조성시키는 행위’로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장사 금지 물품은 서로 약속을 정한 뒤 장마당 밖에서 사고파는 일이 많아졌으며 방문판매도 늘고 있다고 소식지는 소개, 또 상인이 금지 품목을 판매한다는 표지를 들고 있으면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상인의 집까지 따라가 매매하는 형태도 있다고 소식지는 설명
- 또 함흥시는 장사할 수 있는 시간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한편 북한 시장에선 수입상품이 90% 이상을 차지하지만 “한국 상품은 일절 사고팔 수 없게 돼 있다”며 “만약 팔다가 걸리면 몰수당하는 것은 기본이고, 더한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고 소개

● 北, 오진우 모델 영화로 군간부 충성심 고양(4/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4.25예술영화촬영소’가 지난 1995년 사망한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을 “원형”으로 만든 예술영화 ‘백옥’ 1,2부의 시사회가 평양 대동문

영화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

- 이 영화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하였던 항일 혁명투사 오진우를 원형으로 하여 혁명의 영도자를 백옥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받들어 모신 전사의 투철하고 진실한 사상정신 세계를 감명깊게 보여 주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 전 부장의 생전에 “혁명전사의 양심과 의리는 티없이 맑고 깨끗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그에게 흰옷 차림을 하도록 하고 자신도 같은 차림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일화를 소개

● 北송암소고기, 외국인들에게 인기(3/21, 조선신보)

- 평양의 ‘송암소고기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쇠고기가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호평받으며 ‘평양소고기’로 유명해졌다고 조선신보가 21일 소개
- 평양시 대동강구역 룡라동에 있는 이 판매소는 2006년 개업한 이래 “국산 소고기의 고유한 맛과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의 하나”라고 신문은 보도, 평남 개천군에 있는 송암소목장에서 생산, 공급하는 이곳의 쇠고기는 “선도가 좋고 살이 연하고 만문(만만하고 무름)하며 감칠맛이 있다”는 게 신문의 설명

2 대외정세

가. 유엔 안보리 관련

● IAEA 엘바라데이 사무총장, 北 핵보유국 간주해야(4/20, 연합)

-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0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IAEA 주관 국제회의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나는 어느 국가를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

- 그는 북한을 포함, 9개국을 핵보유국으로 거명,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은 핵비확산조약(NPT)에 따른 공식 핵보유국이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음.
-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또 북한이 몇 달내 주요 핵시설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교착상태가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

나. 북·미 관계

● 클린턴, 北 상황 만족스럽지 않다(4/26, 폭스뉴스)

- 클린턴 국무장관은 26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가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확산하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하지만 “북한이 과거처럼 앞으로도 불량 정권(rogue regime)을 지원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
- 그는 테러리스트 조직이 핵물질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미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북한이 순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뒤에서는 비밀리에 핵확산 활동을 계속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 그는 또 6자회담 참가국 등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과 최근 유엔에서 대북 제재 방안이 결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언급

● 클린턴, 北 의무이행·대화재개 기대(4/25, 연합)

- 이라크를 방문한 클린턴 장관은 호시야르 제바리 이라크 외무장관과의 회담 뒤 가진 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북한이 자신들이 맡은 의무로 되돌아오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또 “한반도 비핵화 의무와 관련한 대화를 북한과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장

● 조선신보, 美와 협상의지 우회 표명(4/2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5일 ‘주객을 가리는 외교공방전,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대미 협상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내 보이면서도 협상 재개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배제입장을 시사

- 신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과 관련, "각국이 찬성한 문건에는 '로켓'이라는 단어도, '미사일'이라는 단어도 없고 그저 '조선의 발사를 비난한다'는 구절만이 있다"며 "주권국가의 우주계획을 문제시한 전대미문의 성명은 각국의 엇갈린 이해관계를 반영한 타협과 절충의 산물"이라고 지적
- 조선신보는 의장성명의 "더 이상 그 어떤 발사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고 한 문구에 대해 "그 어떤 강권에도 굴할 줄 모르는 조선이 이러한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며 "다른 나라의 요구에 따라 조선이 그 무슨 발사를 보류할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대화를 통한 신뢰조성의 과정에만 가능하다"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것을 거론
- 신문은 "현재의 위기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화가 이뤄질 경우 논점은 미사일이라는 개별의제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파탄된 비핵화 과정을 되살려내는 것이 초미의 문제"라고 지적

● 보즈워스, 탈북자 면담 예정(4/25, 미국의소리방송)

-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특별대표 임명 후 처음으로 오는 27일 탈북자들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27일 오후 국무부에서 '제6회 북한자유주간' 행사 참석차 방미중인 탈북자들과 면담할 예정

● 美국무부, 北에 여기자 석방 촉구(4/24, 연합)

- 북한이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 2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 국무부는 24일 북한 당국에 계속해서 이들 여기자의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힘. 국무부는 또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을 위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다시 북한 방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힘.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여기자 석방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관련, 북한에서 미국의 영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스웨덴 대사가 지난달 30일 이들을 잠시 접견했으며, 가능한 한 조용하게 외교적 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

● 北, 미국 기자들 재판 회부(4/24, 3/3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4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기관은 미국 기자들에 대한 조사를 결속했다”며 “해당기관은 확정된 미국 기자들의 범죄자료들에 기초해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정식 결정했다”고 밝힘. 중앙통신은 그러나 구체적인 조사 결과나 죄목에 대해선 밝히지 않음.
- 앞서 3월 31일 중앙통신은 북한이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중간 조사 결과를 언급, “증거자료들과 본인들의 진술을 통하여 불법 입국과 적대행위 혐의가 확정됐다”며 “해당기관은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이미 확정된 혐의들에 근거하여 재판에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었음.
- 특히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2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 해법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강력하고 끈질기며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북한 정권의 오락가락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 클린턴, 北비핵화 예산은 '작은 투자'(4/23, 연합)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3일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북한 비핵화 관련 예산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가정해 신청한 것이라고 언급
- 클린턴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외교 분야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이 예산의 목적은 (핵 문제와 같은) 특정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작은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며 행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요구

다. 북·중 관계

● 北외무상, 베이징 방문(4/25, 아사히 신문; 조선중앙통신)

- 박의춘 외무상이 25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 신문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 내에서는 중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6자회담을 북한이 거부한데 대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핵개발 재개를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며 “중국측은 박 외무상에게 자제를 촉구하고 6자회담 복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언

- 中, 북핵 해결위해 美에 더 큰 역할 기대(4/23, 미국의소리방송)
 -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더라도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미국의 중국 전문가인 몬트레이국제대학원 대량살상 무기 비확산연구센터의 유안정동 박사가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

- 中, 北 6자회담 복귀위해 중재(4/23, 연합)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남북 북한의 공동 우방과 인접국으로서 남북 관계개선과 협력이 한반도 전체 인민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여기고 있다”고 밝힘.

라. 북·러 관계

- 러시아어센터 개관식 개최(4/24, 조선중앙통신)
 - 러시아어센터 개관식이 24일 평양외국어대학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개관식에는 북측에서 김용진 교육상과 궁석웅 외무성 부상 등이, 러시아 측에서는 방북중이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발레리 수히닌 북한 주재 대사가 참석

- 러 외무장관, 6자 각각 의무 이행 강조(4/24, 연합)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4일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유명환 장관과 한·러 외무장관 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목표는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라면서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의무를 모든 관련국들이 자기 나름대로 꼭 실현해야 한다”고 밝힘.
 - 방한에 앞서 북한을 1박2일간 방문했던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은 당장은 6자회담에 복귀할 용의가 없다”면서 “평양에서 회담을 가진 뒤 북한 측이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원칙을 재확인할 준비가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

● 北, 러측에 “6자회담 불필요” 재확인(4/24, 북한 외무성)

- 박의춘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평양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따른 ‘정세’를 논의, “위성발사가 매개 나라의 자주적 권리라는 데 대하여 인정”했으며, 러시아 측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북한 외무성이 24일 밝힘.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 같이 밝히고 라브로프 장관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예방했다고 설명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예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김 위원장이 그를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러 대통령, 김정일에 친서 보내(4/24, 조선중앙통신)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
- 통신은 23일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24일 만수대의 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으나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음.
- 라브로프 장관이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하고 방북한 것으로 미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직접 면담을 추진했을 것으로 보이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음.

● 北·러, 외교장관 회담(4/23,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방북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23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북한 정부는 이날 만수대의사당에서 라브로프 외교장관을 환영해 연회를 열었으며, 양측 외교장관은 연설을 통해 양국간 친선협력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밝힘.

● 北·러, 문화·과학 교류계획서 조인(4/23,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러시아 정부가 23일 평양에서 양국 간 2009~2010년도 ‘문화 및 과학 교류 계획서’를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대리와 관계부문 일꾼이, 러시아 측에서 이날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일행과 발레리 수히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참가

● 러 외무차관, 北 6자회담에 잔류하기를(4/22, 이타르타스 통신)

- 러시아 정부는 북한이 북핵 6자회담 틀 안에 잔류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재차 천명, 세르게이 리아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2일 이타르 타스 통신 등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북한이 ‘협상 채널(6자회담)’에 남을 있다고 본다”라며 즉각적인 회담 복귀를 촉구

마. 북·일 관계

● 北교육성 대변인, 日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비난(4/24, 연합뉴스)

- 북한 교육성은 24일 일본 정부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자유사(自由社)판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검정 심사에서 합격시킨 데 대해 “용납 못할 범죄행위”라고 비난
- 교육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발표하고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 통치야말로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특대형 국가범죄”라며 “이러한 범죄자들이 감히 저들의 침략과 식민지통치가 ‘부드럽고 공평했다’느니, ‘근대화에 이바지했다’느니 떠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은 물론 국제사회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는 뻔뻔스럽고 날강도적인 궤변”이라고 주장

● 北, 日 일제 납치문제부터 해결해야(4/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일본은 제 할 바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일본이 납치문제 등을 이유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북 인권결의를 주도한 것을 가리켜 “일본이 그 누구의 납치문제와 인권문제를 꺼내들수록 우리 인민의 대일분노는 더욱 격증되고 있다”며 일제시대 강제연행 등을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日방위차관, 北 로켓 낙하물 회수 곤란(4/20, 연합)

- 마스다 고헤이(増田好平)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은 20일 북한이 발사한 로켓의 낙하물 회수와 관련, “낙하지점 확인되지 않았다. 회수와 관련한 기술적인 곤란성 등을 전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힘.

바. 기타 외교 관계

● 北외무상, 비동맹회의 참석차 쿠바行(4/25, 조선중앙통신)

- 박의춘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쿠바에서 열리는 비동맹운동(NAM) 조정위원회 장관급회의 참석차 25일 항공편으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은 또 대표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으로 쿠바와 일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을 방문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방문 국가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北주재 유럽국 대사 ‘태양절’ 행사 대거 불참(4/22, 연합)

- 북한에 대사관을 개설하고 있는 7개 유럽 국가의 대사들 중 대부분이 고 김일성 북한 주석의 생일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22일 밝힘. 이런 유럽 외교관들의 움직임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설명

3 대남정세

● 南北 당국자 접촉 22분 만에 종료(4/21, 연합)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당국 간 접촉이 21일 개성공단 내 북측 관할 건물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실에서 열림. 이날 저녁 8시35분부터 8시57분까지 22분 동안 진행된 접촉에서 북한은 우리 측에 3월 30일부터 억류하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조사 결과와 신병 처리 문제, 개성공단의 향후 운영 문제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즉각 확인되지 않음.

- 접촉에 앞서 남북 양측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7차례의 예비

접촉(연락관 접촉)을 거듭하며 의제와 장소 등을 논의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진통을 거듭, 남측은 오전 예비접촉에서 당국자 간 본 접촉을 남한 직원들이 근무하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하자고 주장한 반면, 북측은 자기 건물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음.

-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3월 16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중대 문제를 통지할 것이 있으니 관리위원장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와 함께 21일 개성공단으로 오라'고 통보, 이날 남북접촉이 이뤄짐.

첨부 1 <북측 통지문 요약 전문>

지금 조선반도 정세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대결책동과 모략소동으로 하여 일촉즉발의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현 남측 당국은 우리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발사를 악의에 차서 걸고 끌다 못해 국제적인 제재놀음에 앞장서서 날뛰고 있으며, 우리가 이미 전쟁선포로 간주할 것이라고 명백히 밝힌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전면참가를 떠들며 북남관계를 험악한 지경에 몰아넣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에 성의를 다해온 것은 그것이 6.15 공동선언의 상징이며 ‘우리민족끼리’ 이념의 소중한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남측 당국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까지 심히 중상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로선 부득불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예민한 분계연선의 개성공업지구를 철거 이설비도 안 되는 혈값으로 남측에 내주고 우리 근로자들의 노임을 낮게 정하는 등 여러 가지 특혜를 준 것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우리민족끼리 화해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려는 애국애족의 일념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현 남측 당국이 북남선언들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부정하고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북남협력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사업을 파탄시키는 행위나 다름없다. 더욱이 남측 당국이 개성공업지구를 우리를 반대하는 노력 기지로 삼고 있는데 대해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남측 당국의 무분별한 행위로 말미암아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의 상징으로 온 겨레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며 좋게 발전해온 개성공업지구사업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하게 됐으며 존재자체가 위태롭게 됐다.

지금 남측기업들은 개성공업지구에서 한 해 수억 달러의 이익을 얻고 있지만 우리는 근 4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노동력의 대가로 3천만 달러(연간) 정도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개성공업지구를 통해 얻는 것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만이 손해를 보면서 언제까지나 기존의 계약에 구속돼 있을 수 없으므로 땅값도 올리고 노동력 값도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단은 1단계 하부구조 건설이 끝나고 여기에 100여개의 기업들이 들어와 가동하고 있으며 건설 중에 있거나 건설을 예약한 기업들도 많은 조건에서 이제는 현실에 부합되게 계약을 갱신할 때가 됐다.

최근 남북관계가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성공업지구 사업만은

계속 유지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한 반면에 현 남측 당국은 우리의 진심에 대해 돈에 목이 매어 공업지구를 폐지 못하고 있는 듯이 왜곡선전을 일삼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은 위기에 처한 개성공업지구사업을 구원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인내성 있는 노력의 표시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남측이 이번 통지에 대해 또 다시 얼토당토않게 헐뜯으면서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 그에 상응한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서는 남측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상 '북측 통지문 요약' 끝. 통일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후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붙어 있다)

첫째로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위해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함.

당면하여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하며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4년부터 지불하게 된 토지사용료를 6년으로 앞당겨 지불하도록 할 것임. 이와 함께 공업지구 북측 노동자들의 노임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함.

둘째로, 개성공업지구 사업과 관련한 기존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함. 남측은 이에 필요한 접촉에 성실히 응해 나와야 할 것임.

주체 98년 4월 21일

04.27-05.05

4월
4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꽃파는 처녀’ 공연관람(5/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1절(노동절) 행사에 참가한 금속공업부문과 연관부문 기업소의 노동자들과 함께 가극 ‘꽃파는 처녀’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김 위원장은 피바다가극단 예술인들이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원작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형상”한 데 대해 큰 만족을 표시하면서 그들의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중앙통신은 전언
 - 공연 관람에는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최태복 김중린 김기남 당중앙위원회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강능수 문화상,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당 중앙위 책임간부들, 김명국 현철해 리명수 김원홍 인민군 대장을 비롯한 “군대의 지휘성원들”이 동행

- 김정일, 5.1절 경축공연 관람(5/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1절(노동절)을 맞아 1일 금속공업부문과 연관부문 기업소의 노동자들과 함께 국가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
 - 공연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김중린.김기남,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당 중앙위 부장 및 1부부장들을 비롯한 책임간부들, 군 대장 김명국.현철해.리명수.김원홍을 비롯한 군대의 지휘부가 자리를 함께했음.

- 김정일, 함남 중학교 시찰(4/2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낙원군에 새로 지어진 서중중학교를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
 - 그는 이 학교에서 컴퓨터실습실을 둘러본 후 “모든 사람들이 높은 컴퓨터

기술을 소유하게 하자면 초등, 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컴퓨터 교육을 주요 기초과목의 하나로 여기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 이 학교는 김 위원장이 바닷가 마을 어린이들을 위해 군인들을 동원해 짓고 “컴퓨터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기재들을 보내준 은정어린 사랑의 선물학교”라고 통신은 소개

- 통신은 김 위원장의 이번 현지도도 수행인물은 밝히지 않음.

● **김정일, 원산시 여러 부문 현지도(4/2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원산시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김 위원장은 해안광장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과 강원도 김일성혁명사적관을 참관한 뒤 원산 시내를 돌아보면서 도시경영사업과 송도원야외극장을 현지도했으며, 원산시가 도시전망계획에 따라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도시경영사업을 개선해 거리들을 변모시킨 데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보도

- 현지도에는 노동당 강원도위원회 리철봉 책임비서와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최익규 당 선전선동부장, 당 중앙위 1부부장들인 리제강 리재일이 수행

-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원산농업대학을 방문해 새로 건설된 토양식 무공해 온실을 현지도했다고 27일 오전 보도, 원산농대 현지도에는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와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중앙위 부장 등이 수행

● **김정일, 사색하라...나도 집중하면 정신 가물(5/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자 '숭고한 현신의 세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위원장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간부에게 한 이 같은 발언을 인용,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간부들에게 일하는데 있어서 사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도 "일감을 놓고 몇시간씩 정신을 집중하여 사색하느라 정신이 가물거릴 때도 있다"고 언급

● **北 후계체제 권력투쟁 격화(5/4, 지지통신)**

-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후계를 둘러싸고 체제 내부에서 권력투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동북아시아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4일 보도

- 통신은 '포스트 김정일'에 김 위원장의 장남 정남씨를 지지하는 실력자 장성택(60) 국방위원과 차남 정철, 삼남 정운씨를 후원하고 있는 군 고참 간부가 대립, 양 파벌 간 싸움이 최근의 로켓 발사 등 북한의 강경자세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
- 장성택과 대립하고 있는 군 간부는 조선인민군의 현철해(75), 리명수(72) 대장 등 2명임.
- 이들은 김 위원장의 지시를 군에 전달하고 군의 반응을 보고하는 입장으로, 북한 내에서의 영향력도 강력한 것으로 보임.
- 양 파벌 간 불화는 표면화되지 않고 있지만 동북아시아의 외교 소식통은 "후계 문제가 급기시되던 상황에서 현 대장이 정철씨나 정운씨를 새로운 장군으로 임명하려 했다"며 "이것이 장성택과의 대립의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

나. 정치 관련

● 노동신문, 美핵우산에 핵억제력 강화(5/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자위적 핵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다'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월터 샤프가 또 다시 우리 공화국을 심히 자극하는 호전적인 망발을 늘어 놓았다"며 전작권 전환 후 핵우산 유지, 검증가능한 핵폐기,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의 언급을 지적
- 노동신문은 "북침전쟁계획의 완성과 남조선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떠들면서 우리더러 핵을 폐기하라고 하는 것은 무장을 놓고 손들고 나왔으라는 소리와 같다"며 "자위적 군사력이 없으면 자주권 수호는 물론 나라와 민족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고 주장

● 北단체, 연일 실천연대 석방 촉구(5/5,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대변인)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는 5일 실행을 선고받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핵심간부들을 석방하라고 남측에 촉구, 이 단체 대변인은 5일 발표한 담화에서 "실천연대는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북남공동선언 이행

에 앞장서 왔다”며 “실천연대에 대한 괴뢰당국의 탄압책동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전체 조선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고 주장

● 北직총, 南노동자 반정부 투쟁 촉구(5/4, 직총 중앙위 대변인)

-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중앙위원회는 4일 남한 정부가 5.1절 행사를 탄압했다고 주장하면서 남한 노동자들에게 반정부 투쟁을 촉구, 직총 중앙위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이명박 정부가 “5.1절에 즈음해 진행된 ‘5.1절 범국민대회와 용산지역 철거민들을 추모하는 100일 추모집회를 불법으로 몰아대며 수많은 경찰병력을 동원해 수백 명의 참가자들을 체포.연행하는 만행을 감행했다”고 비난
- 대변인은 “남조선의 전체 노동자들은 자기의 계급적 사명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각 계층 인민들과 굳게 단결해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

● 北, 오바마, 부시와 조금도 다를 것 없어(5/4, 외무성대변인)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대북 무시 및 압박’ 전술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현 (오바마) 행정부는 이전 (부시) 행정부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4일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강권으로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시키고, 구속력도 없는 의장 성명을 조작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실제 행동에 옮긴 불법 무도한 그 행위는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소개

● 조평통, 작계5029 맞서 핵 억제력 강화(5/3, 조평통 대변인 담화)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일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와 관련한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적대행위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대결선포”라며 이에 대응해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 조평통은 대변인 담화에서 샤프 사령관이 4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연설에서 “북한의 우발상황(급변사태)에 대비한 계획(plan)을 준비 중”이고 “한·미는 작계 5027과 5029를 통해 즉응전투태세를 유지하게 될 것”(파워포인트 자료)이라고 말했으며, 우리 군 당국자

들도 이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맞장구를 쳤다”면서 이같이 주장

● 北, PSI참여 전쟁 유발 경고(5/2,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4월 21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며 남측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이 땅에서 전쟁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
- 신문은 “언제 어디서 어떤 충돌이 일어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현 북남관계이고 조선반도의 정세”라며 “이런 속에서 남조선이 PSI에 전면 참가하려 하는 것은 화약더미 위에서 불장난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이고 위험천만한 망동”이라고 비난
- 신문은 이어 “공화국은 이미 남조선당국이 PSI에 전면 참가한다면 그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그에 대처해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데 대해 명백히 천명했다”면서 “그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라고 강조

● 北외무상, 6자회담 불참입장 확고부동(5/2, 조선중앙통신)

- 박의춘 외무상은 4월 29일 쿠바에서 열린 비동맹운동(NAM) 조정위원회 각료급회의 연설에서 “6자회담 불참” 입장을 거듭 밝히고 “강력한 전쟁억제력” 확보에 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
- 박 외무상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을 거론, 이는 유엔 안보리가 “국제법위에 균립하는 강권과 전횡의 도구로 전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태발전”이라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의 호상 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부정해 나선 이상 우리가 참가하는 6자회담은 더는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강조

● 北, 유씨 조사 계속 심화중(5/1, 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 북한의 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1일 남한이 현대아산 개성사업소 직원 유모씨에 대한 북한 억류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데 대해 “남조선당국과 보수세력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경우 사태는 더욱 엄중해지며 개성

- 공업지구 사업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북측 총국 대변인은 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같이 말하고 유씨가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악의에 차서 헐뜯으면서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해당 법에 저촉되는 엄중한 행위를 감행하였다”며 “해당 기관에서는 현재 조사를 계속 심화하고 있다”고 언급
-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출입사업부는 지난 3월30일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선 유씨에 대한 혐의를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비난하고 여성 종업원을 변질·타락시켜 탈북을 책동”한 것이라고 주장

● 北, 南 반복대결 국제화 시도 비난(5/1,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일 ‘동족 모해와 대결에 환장한 적대세력들의 추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의 제재와 관련, 자신들의 “격분을 더욱 더 자아내는 것”은 “이러한 적대세력들의 소동”을 남한이 “앞장에서 부채질하며” 대북 “대결 책동을 국제화”하려는 것이라고 비난
- 매체는 4월 하순 쿠바에서 열린 비동맹 조정위원회 각료급회의 개.폐회식에 ‘게스트 국가’로 신동익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를 중상모독하기 위한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해보려고 어리석게 소란을 피웠다”고 비난

● 北, 비동맹회의 6자회담 불참 北 지지 주장(5/1, 외무성대변인)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월 비동맹운동(NAM) 조정위원회 각료급회의에서 채택된 최종문건에 “6자회담이 포함된 조선관련 조항을 넣지 않기로 하였다”며 이는 참가국들이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이해를 표시”하고 “지지”한 것이라고 주장, 그는 1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같이 말하고 지금까지 비동맹 회의의 “최종문건들에 포함되어 오던 조선관련 조항이 이번에 빠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반공화국(반북)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에 의하여 6자회담이 없어지게 된 현 사태의 반영”이라고 주장

● 北, 美비난 강화(5/1,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일 '미제는 조선침략의 야망을 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방송에서 지난 3월 실시된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 합동군사연습 등을 들어 미국이 "도발 준비를 보다 완성"했다며 "제반 사실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침략 야망을 변함없이 추구하며 우리를 한사코 힘으로 압살하려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방송은 미국이 "앞으로도 최신 무장장비들을 동원해서 북침전쟁 연습들을 계속 벌이려고 있다"며 "자기를 지키자면 자체의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

● 조평통, 南, 6.15지지단체 탄압 중지 요구(4/30, 조평통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0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이명박 정부가 "6.15 지지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그로부터 초래되는 엄청난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담화는 남한 법원이 최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단체 핵심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6.15 지지세력을 전면 말살하려는 매우 위험한 공안 광풍의 전주곡"이라고 비난하면서 남한 당국의 이런 태도는 "북남 선언들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으로, 6.15 지지세력을 말살하기 위한 파쇼적 폭거"라고 주장하고 이적단체 규정 철회와 구속자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

● 北, 한미, 4월 170여회 대북 공중정탐(4/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군사소식통'을 인용해 국군과 미군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있었던 4월 모두 170여 차례의 "공중정탐 행위"를 했다고 주장, 통신은 국군은 70여 차례, 미군은 100여 차례 대북 공중정찰을 했으며 "북침 전쟁연습과 공중정탐 행위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선제타격하려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호전광들의 전쟁 책동이 극히 무모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그대로 실증하여 주고 있다"고 비난

● 北, 핵시험·대륙간미사일시험·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재추진 위협(4/29, 외무성대변인)

- 북한 외무성은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장성명 등 대북조치에 대해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자위적 조치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을 할 것이라고 밝힘.
- 외무성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또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첫 공정으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체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
- 성명은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과 그에 따른 북한의 3개 회사에 대한 제재 결정 등을 “반공화국 제재를 실동에 옮기는 불법무도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1990년대에 우리는 이미 조선정전협정의 법률적 당사자인 유엔이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는 경우 그것은 곧 정전협정의 파기 즉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고 상기시켜 핵시험 등이 ‘유엔의 선전포고에 따른 자위적 조치’라는 논리를 전개
- 성명은 “적대세력에 의해 6자회담과 함께 조선반도 비핵화의 염원은 영원히 사라지고 정세가 전쟁접경으로 치닫고있는 엄중한 사태”라고 현 상황을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한 데 대하여 당장 사죄하고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채택한 모든 반공화국 결의와 결정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
- 성명은 의장성명에 따른 제재조치들에 대해 “지난 수십년간 적대세력의 갖은 제재와 봉쇄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이따위 제재가 절대로 통할 리 없다”고 주장
- 성명은 유엔이 “많은 종류의 군수관련 물자와 자재들을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입 금지품목으로 공식 지정”한 것은 “우리 공화국의 최고이익인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며 “적대세력은 6자회담을 통해 우리를 무장해제 시키려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이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국방공업을 질식시켜보겠다는 망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

● 노동신문, 핵 억제력 강화 필요성 절감(4/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천만번 정당한 자주권 행사’ 제목의 논평에서 북핵 6자 회담에 “절대 불참”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자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힘.

- 신문은 6자회담을 “깨진 사발”, “간신히 굴러가는 달구지” 등으로 표현하면서 “6자회담은 ‘의장성명’ 발표와 동시에 존재 가치와 의의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북핵 9.19공동성명에 담긴 “자주권 존중과 주권평등의 정신이 없는 6자회담,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무장해제 등을 노린 그런 회담은 필요없다”고 주장
- 신문은 특히 “일본은 6자회담 마당에 그 정신에 맞지 않는 우리에게 대한 도발적인 문제들을 들고 나오면서 자기의 의무 이행을 고의로 회피했고 회담의 진전을 막아나서곤 했다”고 말하는 등 일본을 집중 비난

● 北, 유명환 외교 집중 비난(4/28, 노동신문; 4/26,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주요 언론매체들이 최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잇달아 집중 비난, 노동신문은 28일 ‘동족대결과 외세공조에 환장한 자의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유명환 장관의 북한 재처리에 대한 강력대응 발언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노력 등을 거론, “외세를 등에 업고 그들의 힘을 빌려 동족을 모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유 장관에 대해 “개성공업지구 문제와 같은 자기 소관도 아닌 북남 관계 문제에게까지 끼어들어 외세와의 공조로 그에 휘방”을 놓으려 한다고 불만을 표시
- 26일 우리민족끼리도 논평에서 유 장관에 대해 “북핵문제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느니 선임정권에서 공약한 합의서를 우리가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느니 하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데 앞장섰다”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민족 내부문제를 주변 나라들에 들고 다니며 국제화하려고 이성을 잃고” 있다고 비난

● 北, 실천연대 이적 규정, 6·15선언 부정(4/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북남공동선언을 짓밟는 파쇼적 악행’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나고 핵심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북남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대한 공공연한 부정이고 북남관계 파괴책동”이라고 비난

다. 경제 관련

- 北, 모든 나라 식량 자급자족 필수적(5/5, 조선중앙통신)
 - 유엔 산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제65차 총회(4.27-29)에 참석한 북한 대표는 국제적인 경제위기를 강조하면서 모든 나라의 식량 자급자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 북한 대표는 회의 연설에서 “현 시기 가장 심각한 식량위기에 대처해 매개 나라들이 자급자족의 원칙에서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림으로써 국내식량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고 발전도상나라들의 농업 발전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

- 北농촌, 봄철 영농작업 분주(5/4, 연합)
 - 북한 농촌지역이 벼 냉상모판(보온못자리) 씨뿌리기와 옥수수 이앙작업, 논·밭갈이 등 봄철 영농작업으로 분주, 일반적으로 3월 중순경 벼 냉상모판에 씨를 뿌려 5월 초 중순 무렵부터 모내기를 하고 있으며, 옥수수는 직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4월 초순경부터 ‘영양단지(비닐포티)’에 파종한 뒤 4월 하순 이앙작업을 시행

- 국제상품전람회 5월 11-14일 개최(5/2, 조선중앙통신)
 - 제12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11일부터 14일까지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 전람회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독일, 말레이시아, 시리아, 스웨덴, 싱가포르, 호주, 오스트리아, 영국,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타이, 프랑스, 터키, 대만의 회사들이 참가하며, 공작기계, 전기.전자설비, 운전기재, 석유화학제품, 의약품, 일용품, 식료품 등이 출품

- 北, 세계적 식량난 다시 강조(4/30,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춘궁기를 앞두고 식량난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선중앙방송이 30일 현 식량 위기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 방송은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계속 악화되어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

내고 있다”면서 “유엔은 2010년에 세계적으로 곡물 생산량이 줄어드는 반면 식량 가격은 지금보다 30~50%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소개

- 방송은 이러한 세계적 식량난의 원인으로 “혹심한 이상기후의 후과”를 들고 “미국과 서방 나라들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알곡(곡물)을 이용한 생물연료 생산에 계속 열을 올리고 있어 세계 식량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미국 책임론’도 내세움.

라. 군사 관련

● 北, 대미·대남 사이버전 전담부대 운영(5/5, 연합)

- 정보당국은 4일 북한이 인터넷을 수단으로 대남, 대미 첩보를 수집하고 전산망을 교란하는 사이버전 전담부대인 ‘기술정찰조’를 확대 편성해 운용하고 있다고 밝힘. 이 부대는 인민군 총참모부 정찰국 소속으로, 군 컴퓨터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평양의 지휘자동화대학 졸업생 위주로 100여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정보당국은 “이 부대의 임무는 군사관련 기관들의 컴퓨터망에 침투해 비밀 자료를 해킹하는 등 정보유통체계를 장악하는 한편 필요시 바이러스를 유포해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펜티엄 IV급 등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한 고속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고 언급
- 북한군은 과거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 전력에 대한 정보 수집, 그리고 미군 인터넷과 첨단 C4I(지휘통신) 체계 교란을 위한 자료 축적에 관심을 가지다가 현재는 사이버전 수행과 군 정보화체계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고 당국은 소개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신종플루 대비 방역사업 강조(5/3, 조선중앙TV)

- 북한은 3일 세계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A[H1N1](신종플루)의 확산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크다면서 방역사업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 북한 의학과학원 의학과학정보센터 소장인 로문영 박사는 이날 조선중앙TV와의 대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경지대를 비롯해 모든 지역들에서 돼지독감(신종플루)

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역사업을 철저히 하는 것과 함께 누구나 돼지 독감에 대한 상식들을 잘 알고 그 예방사업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

● 北사찰서 부처님오신날 법회 개최(5/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각지 사찰에서 2일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조국통일기원 북남 불교도 동시법회’가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법회에는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와 각 도·시·군위원회 교직자, 해당 사찰의 주지와 승려, 신도들이 참가
- 법회 예식에 이은 연설에서는 남한의 “친미사대, 반북대결 책동으로 6.15 공동선언 발표 후 좋게 발전하여온 북남관계가 전쟁 접경의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불교도들이 화합해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 이행”할 것을 호소했다고 통신은 소개, 법회에서는 “북남 전체 불교도들의 일치한 염원을 담은 조국통일기원 공동발원문이 봉독됐다”고 통신은 전언

● 北, 세계마술사연맹 가입 추진(5/2, 조선신보)

- 북한이 세계마술사연맹(FISM) 가입을 추진, 북한 마술의 국제무대 진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에 따르면, 4월 평양을 방문한 도미니코 단테 FISM 부위원장은 북한 마술사들의 수준에 감탄하면서 “조선(북한)의 FISM 가맹을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고 ‘조선요술협회’의 김택성(74) 회장이 전언
 - 북한은 2006년에도 FISM 가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었는데 당시에는 “요술(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가맹국의 찬동을 얻는 문제가 걸렸다”고 김 회장은 언급, 올해 FISM 총회는 오는 7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
 - FISM에 가입하면 연맹 대회 등 “국제적인 요술 축전의 정식 프로그램”에 출연할 권리를 가지며 가맹국들은 “요술의 세계적 발전추세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서로 교환, 공유”함.
- ※ 북한은 마술을 ‘요술’이라고 부르며, 2001년 10월 ‘조선요술협회’를 설립

● 北도 SI에 대해 국가적 대책 논의(5/1, 조선신보)

- 북한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돼지인플루엔자(SI) 경보수준 격상에 따라 “국가적인 대책들”에 나섰다
- 조선신보가 1일 보도, 북한은 4월 28일 김 영일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가비상방역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 이 회의에선 북한엔 현재 SI 감염 사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항과 항만 등에서 위생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홍순광 보건성 국가 위생검열원 부원장이 설명
- 홍 부원장은 “(SI) 발생지역을 비롯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위생 검역을 강화하며, 국내 인민들에게 새롭게 제기된 질병에 대한 선전을 긴급 조직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고 소개

● 北, 120여만개 연관어 사전 출간(4/29, 조선신보)

- 북한에서 글을 쓸 때 특정 어휘에 관한 표현이나 성구, 속담 등을 참고할 수 있는 ‘조선말연관대사전’이 편찬됐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평양외국어대학의 민영화(68) 연구사가 20여 년 간 작업해 편찬한 사전에는 사회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어휘 2여만개가 올림말로 수록됐고 이들 어휘는 “그에 해당하는 합친말(합성어), 동의어, 반의어, 대립어, 파생, 내용, 상식 등 98개 부류와 연관” 지어져 있으며, 자모 순서에 따라 배열된 연관어들은 모두 120여만개에 달한다고 소개

● 北, 올해 중앙식물원 전면 개보수(4/30, 조선신보)

- 북한이 올해 중앙식물원을 전면 개보수한다고 조선신보가 30일 보도, 지난 27일 착공식을 가진 이번 공사를 통해 6천㎡ 규모의 온실이 새로 건설되고 각종 화초를 키우는 재배실과 원예도구 판매점, 원예지식 보급실, 청량음료점 등도 세워지며, 식물원내 수천m의 도로가 아스팔트로 포장되며 인도에는 컬러블록이 깔린다고 신문은 설명
- ※ 중앙식물원은 1959년 4월 개원한 북한 최대 식물원으로 약 2천여 종의 식물이 전시·재배

● 평양 거리 색단풍나무로 단장(4/29, 조선신보)

- 북한이 최근 평양시 단장과 정비를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평양의 주

요 거리들이 색단풍나무로 단장된다고 조선신보가 29일 보도

- 신문은 “색단풍나무가 도시의 원림 효과에 매우 좋은 식물인데 번식이 쉽지 않아 지난 시기에는 원림 조성에 대대적으로 이용되지 못하였다”며 “씨앗으로 번식시키면 80% 이상 변이됐고 눈점으로 번식시키면 사름물(생존율)을 20~30% 밖에 보장할 수 없었다”고 소개

● 北, 고전문학 번역·윤색 적극 추진(4/27, 조선신보)

- 최근 북한에서 “선조들의 반침략, 반봉건 투쟁”을 소재로 한 장편·중편 역사문학이 잇따라 창작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7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고전문학분과위원회의 작가들은 장편 사화 ‘문익점’, ‘임진의 메아리’, ‘국강상의 전설’과 중편 사화 ‘삼포왜란’ 등의 집필을 끝냈으며 ‘천균록’, ‘증명’, ‘경천사 흰대리석탑’ 등의 작품을 집필 중임.

2 대외정세

가. 6자회담 관련

● 북 유엔대표부, 6자회담 재개 완전히 배제 안 해(5/5, 연합)

- 박덕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4일(현지시간) 북한은 6자회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유엔의 주장을 일축하면서도 언젠가 협상을 재개할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음.
- 박 차석대사는 “우리는 절대 6자회담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6자회담에 참가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언급, 그러나 박 차석대사는 계속 이어지는 답변에서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경우 협상 재개를 배제하지 않을 것처럼 언급
- 그는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멈추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적대감이 종식돼야 한다”고 반복해 언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이것인 주요 쟁점이다”라고 언급

● 美 보즈워스, 내주 한국 등 방문(4/30, 연합)

- 외교 소식통은 30일 “보즈워스 대표가 다음주부터 6자회담 참가국 순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소개, 이번 순방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한을 제외한 모든 6자회담 참가국이 포함되며 한국은 내주 후반께 방문할 것으로 전해짐. 보즈워스 대표가 이번 방문기간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이 소식통은 전언
- 보즈워스 대표는 참가국들과 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 착수, 핵실험 경고 등 최근의 제반 북핵상황을 평가하고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나. 북·미 관계

● 美위원회, 北종교탄압국 지정건의(5/2, 연합)

- 미국의 독립적 정부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1일 ‘2009 연례 종교자유보고서’ 발표를 통해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 중국, 이라크 등 13개국을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CPC)으로 지정해 줄 것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에 건의
- 미국의 국제종교자유법령(IRFA)는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를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미 국무부는 종교자유위원회가 조사한 연례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년 9월 종교탄압국을 지정, 북한은 2001년부터 3008년까지 8년째 계속 종교탄압국 명단에 올라 있음. CPC 지정대상으로 건의된 된 국가에는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에리트레아도 포함
-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라면서 “북한의 종교 시설과 활동은 완전한 통제 속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주로 외국의 종교단체나 비정부기구(NGO)들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밝힘. 또 “중국으로부터 건너오는 종교 활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안전조치가 취해졌고, 사적·공적 종교활동은 금지되고 있으며, 비밀종교 활동을 벌이다 적발될 경우 처형까지 가능하다”고 지적
-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믿을만한 보고에 따르면 정확한 상황은 불명확하지만 북한 내 지하 종교활동이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

● 오바마, 여기자 北억류에 우려표명(5/2, 연합)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에 억류중인 미국적 여기자 3명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언론자유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에 억류중인 2명의 기자와 이란에 억류중인 1명의 기자 문제에 대해 "특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 美 WMD 조정관, 北, 핵실험 또 할 것(5/2, 연합)

- 버락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비확산 담당 '차르' 역할을 맡고 있는 게리 세이모어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정책조정관은 1일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들이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그는 "그것(핵실험)이 그들이 우리에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
- 세이모어 조정관은 "북한이 싸움 걸기를 원하는 것은 매우 명확하다"면서 "그들은 6자회담을 없애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6자회담의 나머지 5개 참여국을 분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 그는 미국은 6자회담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9개월 이내에 협상장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더 이상의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음. 또 그는 "중국은 북한에 대해 매우, 매우 화가 나 있다"고 선언

● 클린턴, 北 더 깊은 무덤 파고 있다(5/1, 연합)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30일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유엔의 대북비난 의장성명 채택에 반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2차 핵실험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스스로 더욱 더 깊은 무덤을 파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 또 미국은 현 상태로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 북한의 최근 도발적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힘.
- 그는 "그들(북한)은 스스로 더욱 더 깊은 무덤을 국제 사회에 파고 있다"면서 "우리는 매우 진지하게 북한의 최근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북측에 명확히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우리 행정부는 그들에게 어떤 경제적 지원도 할 관심도 없고, 그럴 의향도 전혀 없다"고 강조
- 그는 국무부가 북한 비핵화 예산으로 1억4천여만달러의 배정을 의회에 요

청한 것과 관련, 샘 브라운백(공화) 의원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제동을 걸고 나서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시설 불능화에 다시 착수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美, 北 ‘대테러 비협력국’ 지위문제 검토(4/30, 미국무부)

- 미국 국무부는 30일 북한의 최근 거듭된 위협 고조 행위에도 불구하고 2008년 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한 입장을 유지, 국무부는 이날 ‘2008년 테러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란과 시리아, 수단, 쿠바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거듭 지정, 북한은 지난해 10월 핵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된 뒤 이번 보고서에서부터 테러지원국에 포함되지 않았음.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열어뒀음.
- 로널드 셸리처 국무부 대테러 담당 조정관 대행은 기자들의 질문에 “소위 (대테러 노력에) 협력을 완전히 하지 않는 국가(not fully cooperating country)라는 북한의 지위에 대해 국무부가 재검토 과정에 있다”고 전언, 그는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이 수주일 내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셸리처 조정관 대행은 북한 로켓 발사 등 최근 위협 고조 행위는 “대테러 문제와 구체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언급

● 美NSC, 北이 국제의무 준수토록 노력(4/29, 연합)

-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9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위협 발표를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해머 대변인은 “북한이 자신들의 성명이 무책임하고 도발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제 사회는 비핵화된 북한을 보기를 일치되게 원하고 있다”고 강조, 그는 “이것이 오바마 행정부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 보즈워스, 對北제재 강화 계획 없다(4/28, 연합)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국이 당장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남북피해자가족회가 밝힘.

- 보즈웬스 대표는 제재 조치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지금 시점에서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고 피해자가족회 측은 전언

다. 북·중 관계

● 평양서 北·中친선도시대회 예정(5/5, 조선중앙통신)

- 평양에서 ‘북·중 친선도시대회’가 열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 통신은 “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친선 도시(성), 시 사이의 관계발전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나누고 앞으로 여러 도시들이 친선관계를 맺고 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고 소개, 그러나 이 통신은 이번 대회의 구체적인 일정과 행사에 참가하게 될 도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中과학기술부 부부장 방북(5/4, 조선중앙통신)

- 차오지엔린(曹健林)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과학기술부 대표단이 북·중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43차 회의 참가 차 4일 방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 ‘중국의 날’ 제정(5/4,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중국이 수교 60주년인 올해를 ‘친선의 해’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중국의 날’까지 제정한 것으로 확인, 조선중앙통신은 4일 “평양 시내 대학생과 조선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4일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중국의 날’에 즈음한 친선연환모임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중국의 날’이 언제인지는 명시하지 않음.

● 中, 北위협에 ‘대국적 견지’ 강조(4/30, 외교부대변인)

-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을 공언한 것과 관련, 각국이 대국적 견지에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주변국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즉답은 하지 않은 채 이같이 답변

- 장 대변인은 “우리는 유관 당사국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6자회담의 진전을 공동으로 수호하길 희망한다”며 “중국은 각국과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언급
- 그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수교 60주년을 맞은 북·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

● 중국인 신의주 관광 3년여 만에 재개(4/29, 신화통신)

- 단둥을 통한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중단된 지 3년여 만에 재개됐다고 신화통신이 29일 보도,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29일 오전 71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압록강을 건너 북한의 신의주로 넘어갔으며 관광객들은 대부분 단둥 주민들이었음.
- 중국인들이 북한 관광에 나선 것은 지난 2006년 2월 중국인들의 도박 열풍을 차단하기 위해 중단된 이후 처음임. 중국 정부는 최근 단둥을 변경 여행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중국인들이 여권이나 비자가 없더라도 북한 변경 관광에 나설 수 있도록 했음.
-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재개된 신의주 관광은 김일성 혁명기념관을 포함해 모두 6개 관광지를 둘러보는 당일 프로그램이며 참가비는 690위안임. 관광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은 개별적으로 경찰 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음. 한편 중국 정부는 단둥 외에도 러시아 접경지역인 헤이허(黑河), 베트남 접경지역 등을 변경여행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음.

라. 북·러 관계

● 北·러, 임업분과위원회 조인(4/27,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러시아 정부가 27일 평양에서 양국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 제13차 회의 의정서를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지광해 임업성 부상 등 관계부문 일꾼이, 러시아 측에서 이반 마체로프 공업무역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임업대표단 관계자와 발레리 수히닌 주북 러시아 대사가 참가, 통신은 지광해 부상과 마체로프 차관이 의정서에 각각 서명했다고 전했다, 자세한 의정서 내용은 소개하지 않음.

마. 북·일 관계

● 北,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서 日 철저히 배제(5/5,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군국주의 독사의 전쟁광기’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정세안정은 그 특성과 예민성으로 하여 고도의 과학적 타산과 논리에 기초한 정치적 대응을 요구한다”며 “따라서 모든 국제문제 특히 조선반도 문제 해결과정에는 일본반동들이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 신문은 특히 “이것이 6자회담의 막을 내리면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결론이고 국제사회가 명심해야 할 교훈”이라고 밝혀 6자회담의 “폐기”를 다시 제기

● 北, 日 긴급정보감시체계 한심(5/2,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둘러싼 일본의 잇따른 오보 사태는 “일본의 긴급정보감시체계라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에 있는가”를 전세계에 드러냈다고 주장
- 신문은 “모든 정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겨우 2천km의 고공 감시능력 밖에 없는 일본이 그 이상의 고공능력을 가진 공화국의 인공지구 위성 발사과정을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역시 일본은 공화국(북한)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주장

● 北, 일본에 군사적 위협(4/28, 조선중앙통신; 민주조선; 노동신문)

- 북한의 주요 신문들이 28일 일본의 대북 제재 등을 들어 일본에 대해 “폭발의 분화구를 찾아 소용돌이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일 적개심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명심”하라는 등의 말로 위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소개

- 민주조선은 ‘일본은 6자회담 파탄의 주범이다’ 제목의 논평에서 가와무라 다케오 일본 관방장관이 북한에 대해 9.19공동성명의 의무준수를 요구하고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한 것을 가리켜 “6자회담을 깨뜨린 최악에 대해 사죄”는 하지 않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고의적으로 심히 자극하고 있다”며 이같이 위협하고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고 보도
- 노동신문도 ‘무자비한 징벌 타격을 안길 것이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대북 단독제재를 결정한 것을 거론, “우리 공화국은 이미 우리에게 대한 그 어떤 제재도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며 그에 대처하여 응당한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여러차례 밝혔다”고 상기시킴.

바. 기타 외교 관계

● 체신성대표단 베트남 방문(4/30, 평양방송)

- 베트남을 방문하는 심철호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체신성 대표단이 30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평양방송이 밝힘.

● 베트남, 북한과 전통적 협력관계 강화(4/30, 국영 베트남통신)

- 농 드억 마잉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29일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북한의 김정각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대장)을 단장으로 한 “인민군 정치일꾼 대표단”을 위해 베푼 연회에서 양국 공산당, 국가 및 국민간의 관계 증진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한 뒤 양국이 동북아시아와 세계에서의 평화, 안정, 협력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국영 베트남통신(VNA)이 30일 보도
- 마잉 서기장은 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의 구성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재선을 축하했다고 통신은 전언
- 김 부국장은 이에 앞서 레 반 중 베트남군 총정치국장과 만나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등의 문제와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통신은 보도

3 대남정세

● 정부, 남북, 2차접촉 위한 협의 중(5/5, 연합)

- 정부는 북측과 4월 21일 개성접촉에 이은 후속 남북 당국 간 접촉의 일정, 의제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힘.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차기 접촉의 시기, 의제 등에 대한 조율을 마친 뒤 이르면 주 중 북에 공식적으로 회담을 재의할 것으로 보임.
- 남북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차기 접촉을 위한 물밑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정부, 억류직원 상황 매일 간접 확인(4/28, 통일부)

- 정부는 30일째 북측에 억류된 개성공단 직원 유모씨의 안전 상황을 매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유씨의 건강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통일부가 28일 밝힘.
-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대아산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신변이나 건강, 안전 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다’는 정도의 상황확인도 매일 이뤄지고 있다”고 밝힘. 이 부대변인은 “물론 직접적인 접점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측의 간접적인 전언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임.

● 北, 개성접촉 주간 대남비방 증가(4/28, 연합)

- 남북 간 첫 당국자 접촉이 있었던 지난주 북한 언론의 대남비방 보도 횟수가 오히려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방송들은 여전히 통상적인 대남비방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4월 넷째 주(20~26일)에는 그 전주에 비해 2배 정도로 늘어났다”고 밝힘.

● 3월 남북교역 작년 대비 31% 하락(4/27, 연합)

- 키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훈련(3.9~20) 기간 북한의 육로통행 차단 등으로 남북관계에 긴장이 조성됐던 지난달 남북교역규모가 작년 3월에 비해 약 31%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27일 통일부에 따르면 3월 남북교역은 반입 6천773만2천 달러, 반출 4천 101만2천 달러로 총 1억874만4천 달러를 기록, 작년 3월(1억5천789만8천 달러)에 비해 31.1% 줄어 들었음.
- 3월 남북교역 중 대북지원을 제외한 상업적 거래 규모는 1억455만8천 달러로, 작년 3월 1억5천27만6천 달러에 비해 3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월간 남북 교역액은 작년 9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하락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3월 01일	김정일 위원장, 자강도 만포시 사업장 현지지도	중통(3/1)
	'광명성 2호' 발사준비, "국제우주조약들 가입 및 해당 국제기구들에 발사자료" 통보사실 발표	중통, 중방(3/1)
03월 02일	조평통대변인 담화, 남 정부의 3.1절 기념사 비난	중통(3/2)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박의춘 외무상, 이집트 외무성 대표단과 담화	중통(3/2)
	조선직업총동맹 대표단, 세계직업연맹 위원장 이사회 제3차 회의 참석차 열차편으로 키프로스 항발	평방(3/2)
	김병팔 직총 위원장, 근로자들 결기모임 및 식수행사 참가	중방(3/2)
	김원균명칭평양음악대학 창립 60돌 기념보고회	중방(3/2)
	노동신문, 시마네현의 '다께시마의 날' 비난	노동신문(3/2)
03월 03일	민주조선,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관련 대미 비난	민주조선(3/3)
	노동신문,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및 친미 외교 비난	노동신문(3/3)
03월 04일	김정일 위원장, 평양시 선교구역 이태화 할머니(100세) 생일상 전달	중통(3/4)
	노동신문,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 공식발표 관련 비난	노동신문(3/4)
	김정일 위원장, 삼지연지구 혁명전적지 건설사업 현지지도	중방(3/4)
	북·쿠비단결위원회 연차회의 개최(평양)	평방(3/4)
03월 05일	조평통 대변인 성명, 민간항공기의 항공안전 위협	중통(3/5)
	김정일 위원장, 618건설돌격대 지원사업 모범일꾼 등에 감사 전달	중방(3/5)
	박의춘 외무상, 주북 브루나이 대사과 담화	중통(3/5)
	중앙선거위원회, 제12기 대의원후보자 추천 등록사업 마감 보도	중통(3/4)
	김영남 상임위원장, 주북 브루나이대사 신임장 접수	중통(3/5)
	주북 독일 대사, '북·독일 외교관계 설정' 8돌 연회 개최	중통(3/6)
03월 06일	김정일 위원장, 장정수(70세, 삼흥목정 지배인)와 정정대(80세, 평양의대 임상 제2의학부 교원)에게 생일상 전달	중통(3/6)
03월 07일	'3.8국제부녀절' 99돌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	평통(3/7)
	국제여도연맹, 북박현숙 선수를 2008년 세계여자역도 최우수로 선정	중통(3/7)
03월 08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 실시	중방, 중통(3/8)
	김정일 위원장, 공훈국가합창단의 붉은별극장 개관 공연 관람	중통(3/8)
	김정일 위원장, 김일성정치대학 시찰 및 대의원선거(제342호 선거구 제22호분구) 참가	중통(3/8)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3월 0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출자 명단 발표	중방, 중통(3/9)
	중앙선거위원회, 김정일을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으로 추대 (제333호 선거구, 100%찬성) 선거결과 발표	중통(3/9)
	중앙선거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선거결과 보도	중통(3/9)
	조선기계무역총회사, 2012년까지 기계 수출 확대 계획 보도	조선신보(3/9)
03월 10일	北·독일 외교관계설정일 즈음 사진전시회 개막(함흥대극장)	중통(3/10)
	최영길 철도성 정치국장, '철도방송위 창립50돌 기념보고회' 진행	중방(3/11)
	김정일 위원장, 청남장공장 지배인 이성국 등에 '감사' 전달	중방(3/11)
	노동신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청년학생본부' 성원들 방북 불허 및 민간단체들의 남북협력기금 사용신청 보류 관련 비난	노동신문(3/10)
03월 11일	각지 사찰들, '열반절(3.11)' 기념 조국통일기원법회 진행	중방(3/11)
	경공업과학분원 식료연구소, 콩우유(두유) 가공기술 개발	중통(3/11)
	외무성대변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훈련 비난 중통기자회견	중통(3/11)
	조선중앙통신사, 통일부장관의 '통일부 창설 40주년 기념사' 비난	중통(3/11)
03월 12일	김정일 위원장, 황해북도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현지지도	중통(3/12)
	김두남 인민무력부 부부장 사망	중통(3/12)
	김정일 위원장, 김두남 인민무력부 부부장 영전에 화환전달	중통(3/12)
	교육성 대표단(단장양학순 부상), 우간다와 케냐 방문차 평양 출발	중방(3/12)
	조선중앙통신사, 위성발사 관련 국제우주조약 가입, 국제기구에 통보했음을 발표	중통(3/12)
03월 13일	서해지구, 철광역-은률광산 사이 새 철길 부설	중통(3/13)
	'3.8 국제부녀절' 99돌 즈음 주북 쿠바대사관 성원들과 친선모임	중방(3/13)
03월 14일	평양역-만경대간 궤도철길개건 2단계공사, 광복거리입구-만경대 진행	조선신보(3/14)
	김정일 위원장, 만포시민 수천 명에 컬러TV 선물	노동신문(3/14)
	함경남도 전자도서관 건설	중방(3/14-15)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남측 정부의 대화 제의 비난	중통(3/14)
	김영일 총리, 북-러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0돌 관련 러시아연방 정부 수상 '푸틴'에게 축전	중통(3/17)
	북적십자 대표단(단장 김진범 중앙위 부위원장), 중국 방문차 출발	평방(3/14)
	평양예술단, '북-중 친선의 해 개막행사' 참가차 중국으로 출발	평방(3/14)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946호 발표	중통(3/14)	
03월 15일	김정일 위원장, 조선인민군 포병사령부관하 제1811군부대 포사격훈련 관람	중통(3/15)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3월 16일	북·러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0돌 관련 사진전시회(평양국제문화회관) 개최	중통(3/16)
	공보위 대표단(단장: 정영철 부위원장) 중동국가들 방문차 평양출발	평방(3/16)
	조선신보, 한·미의 군사적 도발에 강경대응 입장표명 지지 대변	조선신보(3/16)
	조선신보, 인공위성 발사 관련 미 일 등의 강경입장 비판 대변	조선신보(3/16)
	유럽의회 사회당그룹대표단, 평양 도착	중통(3/1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3107호', 강석승(전 당역사연구소장)에게 '영웅칭호 및 금별메달, 국기훈장 제급' 수여	중방(3/1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조선노동당 강원도위 비서 박정남 노력영웅 칭호 수여 정령(제2108호) 발표	평방(3/21)
	노동신문, 일본의 과거청산 회피 및 핵무장화 비난	노동신문(3/16)
03월 17일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세계의 지리, 수학, 체육) 출판	중통(3/16)
	주북 러시아 대사, 북·러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60돌 관련 연회 개최	중통(3/18)
	북·독일 외교관계설정일 즈음 사진전시회 개최(3/17-21)	중통(3/21)
	평양시 봉화거리 2단계 공사 진행	조선신보(3/17)
	김영일 총리, '원자바오' 총리 초청으로中方문(3/17-21)	중통(3/17)
	원산만 제염소 소금생산 주력	중통(3/17)
	이희철 주 아이슬란드 대사, 주재국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출	중방(3/24)
03월 18일	조선노동당 대표단(단장: 김태중 국제부 부부장), 멕시코인민사회당 중앙위 총비서와 담화	중통(3/27)
	김정일 위원장, 생일 즈음 러시아대통령 등 세계 여러 나라(25개국) 당 및 국가 영도자들이 보내온 축전 및 축하편지에 답전	중방(3/18)
	김정일,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현지지도	중통(3/18)
	노동신문, 주한미군 재배치 및 합동군사연습 관련 대미 비난	노동신문(3/18)
	중앙·지방 병원, 통신망을 이용한 '먼거리의료봉사' 시작	조선신보(3/18)
	김영일 총리 中 원자바오 총리, '북·중 친선의 해' 개막식 및 '북·중 총리회담' 참석	중통(3/19)
03월 19일	내각, '선군봉화상 쟁취를 위한 사회주의경쟁 공동순회승기' 285개 공장·기업소 등에 수여하기로 결정	중통(3/19)
	김정일 위원장, 평양시내 대학생들의 예술소조공연 관람	중통(3/19)
	김영일 총리, '후진타오' 주석·'우방귀' 전인대 상무위원장 각각 방문	중통(3/19)
	자연보호연맹, 세계보호연맹 제1차 아시아지역회의의 참가차 평양 출발	평방(3/19)
	北올림픽위 연차총회 개최(인민문화궁전)	중통(3/20)
	2.16과학기술상 수여식(인민문화궁전)	중통(3/20)
	한대성 그리스주재 북대사, 주재국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출	중방(3/27)

일시	내용	보도일자
03월 20일	김영남 상임위원장·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 만수대의사당에서 유럽의회 사회당그룹 대표단과 담화	중통(3/20)
	적십자회 대표단(단장: 김진범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중방문 후 귀국	중방(3/20)
	김정일 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에 새로 건설된 수영관 현지지도	중통(3/20)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차 회의 개최 발표	중통(3/20)
	조평통대변인, 북 인권 문제 제기 비난 담화	중통(3/20)
03월 21일	조선중앙통신, 북·중 국경지역을 통해 불법 입국(3.17)한 미국인 2명을 억류하고 해당 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보도	중통(3/21)
	김정일 위원장, 조선인민군 전초병 열성자대회 참가자들 축하	중통(3/21)
	김영일 총리, 중국 공식친선방문 후 귀국	중통(3/21)
	유럽동맹 트로이카대표단(단장: 이리 슈틀레르 체스코외무성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국장), 평양도착	중통(3/21)
	유럽의회 사회당그룹 대표단, 귀국	중방(3/21)
03월 22일	김정일 위원장, 가극 '홍루몽' 창조사업 현지지도	중통(3/22)
	김영남 상임위원장, '파키스탄 날' 즈음 대통령에게 축전	중통(3/22)
	조선중앙통신사, 각지 공장·기업소 '4.15기술혁신돌격대원' 활동 선전	중통(3/22)
03월 23일	김정일 위원장, 의학과학원 천연물약품연구소 일꾼 등에게 감사 전달	중방(3/23)
	흥남비료연합기업소, 가스화 암모니아 생산공정 조기완료 기념대회 개최	중방(3/24)
	김정일 위원장, 재령광산 현지지도중통(3/23)박의춘 외무상, 유럽동맹(EU) 트로이카 대표단과 담화	중통(3/23)
	김영남 상임위원장, 주북 팔레스티나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싼' 대사 신임장 접수	중통(3/23)
	주북 파키스탄 대사 '누를하흐 한', '파키스탄의 날' 연회개최 (대동강 외교단회관)	중방(3/23)
	조선불교도연맹대표단, 제2차 세계불교학술토론회 참가차 중국 향방	평방(3/23)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 선전교육일꾼 대표단(단장: 웬반화), 방북	중통(3/23)
	김일성 함경북도 현지지도 50돌 기념보고회중방(3/24)노동당 대표단 (단장: 김태중 당 부부장), 멕시코 노동당 전국조정위 당수 면담	중방(3/28)
03월 24일	외무성대변인 담화 발표, '안보리' 제재시 6자회담 파탄 위협	중통(3/24)
	일의 불법 정치자금 파동 및 자위대 해외 파견 비난(3/24-25)	노동신문(3/24), 민주조선(3/25)
	쿠바혁명승리 및 영화예술제작협회창립 50돌 관련 영화상영주간 개막식	중통(3/24)
	파키스탄의 날 친선모임 개최	중통(3/24)
	제5차 기계설계부문 과학기술전시회 개최(평양, 3/24-27)	중통(3/28)
	'세계 결핵의 날' 위생 강연, 사진전시회 등 관련행사 개최 (인민문화궁전, 3/24)	중통(3/28)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3월 25일	노동신문-민주조선, 장거리 로켓발사 관련 남측 정부의 대응 비난(3/25-26)	노동신문(3/25), 민주조선(3/26)
	김정일 위원장, 故김성진 인민군 장령(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 영전에 화환	중통(3/25)
	6.15공동선언실현 민족공동위 북·남·해외 위원장회의(3,25-28)	중통(3/28)
03월 26일	위성 발사 관련 '외무성대변인 기자회견'	중통(3/26)
	김정일 위원장, 자강도 희천1,2호 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	중통(3/26)
	수의위생방역월(3-4월)간에 즈음한 수의방역사업 전대 보도	중통(3/26)
	평양재백화점, 김정숙 방문 60돌 기념보고회 개최	중방(3/27)
	중문화부, 北피바다가극단에서 '북중친선의 해'를 맞아 공연준비 중인 기극 '홍루몽' 출연 배우자들에게 의상 기증	중통(3/26)
	조선노동당 대표단(단장: 김태중 당부부장), 과테말라 민족혁명당일당 전국집행위 총비서와 면담	평방(4/2)
03월 27일		
03월 28일	김정일 위원장,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 현지지도	중통(3/28)
	김정일 위원장, 구성공작기계공장 현지지도	중통(3/28)
	축구연맹 2010년 월드컵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승리소식 보도	중통(3/28)
	경제대표단(단장: 리명산 무역성 부상), '北·베트남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7차 회의 참가차 베트남 항발총련 일꾼대표단(단장: 조한주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평양출발	중방(3/28)
03월 29일		
03월 30일	조평통대변인,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가 논의 비난	중통(3/30)
03월 31일	홍성남 함남 당 책임 비서 사망	중통(4/1)
	김정일, 故 전기련 군 장령 빈소에 화환 전달	중통(3/31)
04월 01일	김정일 위원장, 고 홍성남 영전에 화환 전달	중통(4/1)
04월 02일	'총참모부 중대보도', 위성 요격 관련 강경 입장 재차 천명	중통(4/2)
04월 03일	'평양대극장' 개건 준공식 개최(김영남·최태복·김기남·강능수)	중통(4/3)
04월 04일	조선중앙통신, '위성발사 임박' 보도	중통(4/4)
	북한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러시아협회, 北 위성발사계획지시 성명 발표	중방(4/4)
04월 05일	김정일 위원장, 평양대극장 현지지도	중통(4/5)
	北축구협회대변인 성명, 월드컵 경기관련 남한 정부 사과 요구	중통(4/5)
	김정일 위원장, 새로 개건된 평양대극장 현지지도	중통(4/5)
	김정일 위원장, 비전향장기수 흥면기에게 80세 생일상 전달	중방(4/5)
	조선중앙통신, 인공위성 '광명성-2호' 발사성공 및 정상궤도진입 주장 보도	중통, 조선신보, 중방, 중앙TV(4/5)
	태양절 즈음 기념우표 발행 및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선전화 출판	중방(4/5)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4월 06일	김정일 위원장,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방문 및 광명성 2호 발사 전과정 관찰	중통(4/6)
	박의춘 외무상, 팔레스티나 신임특명전권대사와 담화	중통(4/6)
	제14차 4월의 명절 요리축전(평양, 4/6-7)	중통(4/7)
04월 07일	노동신문, '광명성2호' 발사 성공 자축	노동신문(4/7)
	중앙TV, 김정일의 '08.8-12월 현지지도 동영상 및 장거리 로켓 발사장면 공개	중앙TV(4/7)
	재일조선인대표단, 제2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할 평양 도착	중통(4/7)
	문화보존지도국 주관, 개성의 문화유적 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하기 위해 유네스코와 긴밀 협조사업 추진	중통(4/7)
04월 08일	평양시, 광명성2호 성과적 발사 환영 군중대회(김일성광장) 진행	중방(4/8)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참가 대의원들,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대성산혁명열사릉 김정숙 동상 헌화 및 만경대 참관	중방(4/8)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425문화회관)	중방(4/8)
04월 0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개최	중방, 중통, 중앙TV(4/9)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	중통, 중방, 중앙TV(4/9)
	태양절기념 영화상영순간 개막식(인민문화궁전) 진행	중통(4/9)
04월 10일	태양절 맞이 제26차 4월의 봄 예술축전(4.10-18) 개최	조선신보(4/4)
	'제26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개막(평양)	중통(3/10, 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관련 인민무력부 경축대회 개최(전승광장)	중방(4/11)
04월 11일	김정일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 주석단 참석 및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	중통(4/11)
04월 12일	재중조선인총연합회,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경축집회 개최	중통(4/16)
04월 13일	주북 팔레스티나 대사, 태양절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6돌 연회 개최	중방(4/14)
04월 14일	노동신문, 일본의 대북제재 강화 및 군사적 대응 시도 비난	노동신문(4/14)
	김일성 출생 97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평양체육관)	중통(4/14)
	조선노동당 대표단(단장: 김태중 당부부장), 중남미 국가 방문 마치고 귀국	평방(4/14)
	태양절 기념 몽골대표단, 평양도착	중방(4/14)
	김정일 위원장, 김일성 출생 97돌 기념 축포야회 '강성대국의 물보라' 관람	중통(4/15)
	주중국대사, 대사관에서 김일성 생일 연회 개최	중통(4/16)
04월 15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 대표단, '판문점' 과 국제친선전람관 등 참관	중방(4/16)
04월 16일	김정일 위원장,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전달	중통(4/16)
04월 17일	조평통 서기국, 한미 전투기 교환 지휘비행 비난 보도	중통(4/17)
	민주조선, 미국의 대북 방송 비난 및 인권 유린 비난 대변	민주조선(4/17)
	광명성 2호 발사 환영 군중대회, 전국 각 도 소재지들에서 진행	중방(4/17)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4월 18일	총참모부대변인, 남측 정부의 PSI 전면참여 등 경고	중통(4/18)
04월 19일		
04월 20일		
04월 21일	김정일 위원장, 조선인민군 제10215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중통(4/21)
04월 22일	김정일 위원장, 김계중(김책공업종합대 교수 박사) 등에게 일흔번째 생일상 전달	평방(4/22)
	김영남 상임위원장, 주북 불가리아 대사(게오르기 페이치노브)의 신임장 접수 및 답화	중통(4/22)
	제24차 중앙과학기술축전 개막(평양 3대혁명전시관)	중통(4/22)
04월 23일	러시아 외무장관(세르게이 아보노프) 방북, 궁석웅 외무성 부상 등 비행장 영접	중통(4/23)
	북·러, '2009-2010년도 문화 및 과학교류계획서' 조인(평양)	중통(4/23)
	주북 경제 및 무역참사단, 김정일에게 군 창건 77돌 축하편지 전달 및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중통(4/23)
	김영남 상임위원장, 재일본조선인대표단과 담화	중통(4/23)
	러 임업대표단, '북·러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 임업분과위 제13차 회의' 참가차 방북	중통(4/23)
	김일성의 동명왕릉 현지지도 기념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	중통(4/23)
	재일조선인예술단(단장: 이용수 금강산 극단장), 평양 출발	중통(4/23)
04월 24일	김정일 위원장, '광명성2호' 발사에 공헌한 과학자 등과 기념촬영	중통(4/24)
	외무성 대변인, 러시아 외무상 방북관련 중통기자 답변	중통(4/24)
	조선중앙통신사, 미 억류기자(여,2명) 재판회부 결정 보도	중통(4/24)
04월 25일	김정일 위원장, 군 창건 77돌 즈음 제851군부대 지휘부 축하방문과 공훈국가합창단 경축공연 관람중통(4/26)박의춘 외무상, 비동맹운동 조정위 장관급 회의(쿠바) 참석차 평양출발	중통(4/25)
	외무성대변인 기자회견, "시험원자력발전소의 폐연료봉 재처리 시작"	중통(4/25)
	군 창건 77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주석단 발표	중방(4/25)
04월 26일		
04월 27일	김정일 위원장, 원산시 여러 부문 사업 현지지도	중통(4/27)
	북·러,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 임업분과위원회 제13차 회의 의정서 조인	중통(4/27)
	조선신보, "광명성 2호" 성공적 발사 의의 보도	조선신보(4/27)
	박의춘 외무상, 쿠바 수도 아바나 도착	평방(4/28)
04월 28일	인민군 정치일꾼 대표단(단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베트남 항발	중통(4/28)
	노동신문, 남측 외통부 장관의 대북문제 및 PSI가입, 개성공단연계 언급 등 비난	노동신문(4/28)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04월 29일	김정일 위원장, 함남 낙원에 새로 건설된 서중중학교 현지지도	중통(4/29)
	조선중앙방송, 남측정부의 대북 인권문제제기 비난	중방(4/29)
	외무성대변인 성명, 유엔 '안보리' 국방공업 분야 3개회사 제재 사죄 및 결의결정 철회요구 및 추가 핵실험 경고	중통(4/29)
04월 30일	체신성 대표단(단장: 심철호 부상), 베트남 향발	중통(4/30)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일꾼 대표단(단장: 김형준 부위원장), 평양도착	중통(4/30)
05월 01일	5·1절 경축 축포야회(평양 보통강반)	중통(5/1)
	노동신문, 日 수상 아스쿠니신사 참배관련 비난보도	노동신문(5/1)
05월 02일	김정일 위원장, 공훈국가합창단 경축공연 관람	중통(5/2)
	인민군 정치일꾼 대표단(단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베트남 방문 후 귀국	중방(5/2)
	재미조선인 의학자 대표단(단장: 박문재 부회장)·재일조선인 의학자 대표단(단장: 이대국 회장), 제11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 참가차 방북	중통(5/2)
05월 03일	김정일 위원장,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관람	중통(5/3)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